

李惟澈 추모집

작은神話

너의 빈 무대를 위하여

이 작은 책자를 연극연습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우리의 친구 고李惟澈 군의 영전에 바칩니다.

1987년 3월24일 유철의 49재에.
극회 「작은신화」 일동

머리말

맑은 靈魂을 위하여

金義卿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直視할 수 없는 것, 太陽과 死.

太陽은 存在이고 死는 無라고 해도 좋다. 하지만 엄청난 光束은 우리의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게 다가오지만 막상 우리 눈은 그것을 꿰뚫어보지 못한다. 빛은 太陽의 存在를 증명할 뿐 太陽 그 自体는 아니다. 마치 그림자가 存在가 아니듯이 빛도 存在는 아니다. 太陽은 어쩌면 宇宙學的으로만 存在하고 있을는지 모른다.

死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感知할 수 없다. 當者에게는 오직 不可思議이며, 死者를 지켜보는 자들에게는 충격일 뿐. 死는 빛도 발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있다. 그러나 死는 드러낼 수 있는 아무 것도 없기에 無라 할 수 밖에 없다. 無란 없다는 것이 아니고 認知되지 않은 그 무엇이다. 死는 생각하는 자에게는 論理이며 느끼는 자에게는 不條理다.

五十知天命이란 성현의 말씀을 나는 그저 引用이나 할 뿐 그실 그 뜻은 아직 모른다. 그런데 50이 되면서 死의 의미를 깨닫고 싶어하는 나 자신이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혹시 이것이 五十知天命하고 무슨 관련이나 없을까 생각하게 된다. 死를 생각하다 역시 알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나는 문득 보이지 않는 DEAD END의 싸인을 지나쳐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유철군의 急漸를 당하면서 나는 또한번 DEAD END의 표지판을 지나쳐 왔구나 하고 느낀다. 사실 나는 유철군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그의 재능과 정열을 간접적으로만 알고 지내왔다. 지난 정초에는 기어이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지만 그때도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글쎄, 생리학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는 심장에 이상이 있었는데, 반드시 과로, 흥분, 지나친 신경쓰, 거기에 찬공기를 피해야했다는 것이다. 그가 쓰러지던 새벽에 그에게는 나쁘다는 위의 네가지가 한순간에 만났다. 며칠동안 밤잠을 설치며 회곡을 써왔으며, 그날밤 연극동지들과 심한 논쟁 끝에 흥분해 있었으며, 빙판길로 자동차를 몰고나온 것은 孟春이라는 正月이긴 했지만 매섭게 추운 겨울 새벽이었다.

그런데 이 네가지가 어떻게 묘하게 한순간에 만날 수 있었을까? 의학적인 판단으로 死因은 이해되지만 왜 그렇게 그들이 만났는지는 알 수 없다. 역시 死는 神의 權能 안에만 있다는 것일까?

神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인간은 거두어 가신다고 했다. 깨끗한 인간만 옆에 두고 싶으신 것이리라. 또는, 지옥에 보내기는 마음이 아프셔서 고약한 심성의 자들이 회개할 시간을 가능한 한 길게 가지도록 神은 배려하시는 것이리라. 사실 고약한 사람들이 일생을 그렇게 지내오다 갑자기 마음을 바꾸면서 곧 저승길을 재촉하는 것을 우리는 몇번이나 경험해왔다. 육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했다. 이런 사람은 체력이 허용되는 한 고약한 심성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天壽라고는 못하겠지만 長壽하는 비결은 된다.

유철군이 극단을 경영하게 되면서 기성연극에 대한 비판이 적어지더라고 어느 날 이교수께서 말씀하셨다. 역시 연극을 해보니 기성연극인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고 유철군은 고백했다 한다. 이 얘기를 듣고 기성연극인인 이교수나 김의경도 따뜻한 구제의 손길이 가까이 와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희망이 솟구쳤다고 하면 다른 여러 우리 동지들도 동감할 것이다. 내 친구의 따님이 연극을 좋아하는데 고등학생시절에는 극단현대극장 대표를 그렇게 존경하더니 대학생이 되어 첫 소견은 그렇지 않더라는 전갈을 받았다. 『김의경 아저씨 끝났어!』

끊임없이 연극관객으로부터 동료로부터 특히 평론가로부터 생명의 연극을 의미해온다는 질책과 모멸을 받아온 우리다. 여기에 후배연극인들의 위협까지 느끼며 전전긍긍하는 우리들이다. 유철군이 잠시동안의 극단대표 경험을 통해 이 땅의 연극의 어려움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결코 홀려들을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 정초에는 적어도 내가 유철군의 말상대쯤으로 격상되리라는 포부가 있었었다. 결국 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 구원의 빛은 다시 한발 물러갔다는 느낌이다.

死의 合目的性을 存證하는 論理學은 분명히 어느 학자에 의해 쓰여졌을 법하다. 다만 게으름 덕택에 그런 책을 아직 읽지 못했다. 그러나 역시 論證은 우리들의 정서를 가다듬어주지는 못할 것이다. 카타르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쑥대로 연극의 목적이니만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실험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러한 연극의 창조를 위해 공력을 들이자.

無垢한 유철군의 영혼을 위로하는 길은 오직 그것 뿐이라는 확신이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오고 있다.

1987년 3월 24일

유철군의 49재에 부쳐

차 례

머리말 · 맑은 영혼을 위하여 / 김의경	2
이유철 연보	6
추모시 · 화계사 소인으로 부치는 노래 / 송기호	8
길떠나기, 혹은 고 이유철에게 부침 / 강서중	10
우리 시대의 이별가 / 성연찬	11
고별사 · 너의 빈 무대를 위하여	12
작은신화 창립 선언문	14
작은신화 창립일지	15
추모좌담회 · 유철이와 작은신화	16
유철이가 쓴 편지들	23
일기	28
낙서	34
화보 · 유철의 스물두 해	37
가버린 유철이를 그리워 하며	49
오빠와 같이 한 스무해 / 이유정	51
너의 영혼 가는 그 길따라 / 박정영	55
캠퍼스의 두 어릿광대 / 최용훈	59
목련꽃 피는 교정에서 / 조창남	62
어느 날의 우리 일기 / 윤주상	64
유철, 보게나 / 김용호	67
바보의 초상 / 전대일	71
유쾌한 웃음으로 기억되는 그에게 / 김진옥	77
그가 남긴 것들 / 김시라	80
유철아, 잘 있니? / 임애리	82
기억에 남는 얘기들 / 김철리	85
처음이며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 / 유상우	90
그 푸르름을 아쉬워 하며 / 엄정국	92
창작회곡 · 심청전 / 이유철	95
창작회곡 · 송의원의 죽음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이유철	103
번역회곡 · 즉흥극 / 태드 모젤 작 · 이유철 역	115
내 아들 유철아. / 이근삼	131
후기 / 김재형	138

이유철 연보

- 새벽 3시 청량리 위생병원에서 출생. •1965년3월 24일
심장질환으로 6개월 선고반음. •1969년
유치원 입원 5일만에 퇴원. •1970년
장위국민학교 입학. •1971년
동물들에 관심이 높아 능력있는 동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광운중학교 입학. •1977년
보이스카우트에 입단하여 국토순례 및 세계 잼버리 대회 참가.
보성고등학교 입학. •1980년
고교 1학년 단막극 〈심청전〉을 쓰면서 연극과 극작에 관심을 높였다.
운동과 음악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연극에의 꿈을 키웠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입학. •1983년
부전공은 신문방송학을 선택. 「서강연극회」에 입회. 본격적인 연극활동 시작.
극회 「작은신화」 조직. 대표로서 활동. •1986년 7월
새벽 3시 교통사고로 사망. •1987년 2월 4일

- **1983년 10월** 42회 정기공연 〈우리는 뉴헤븐을 폭격했다〉에서 ‘베일리’ 상병역.
- **1984년 3월** '84신입생환영공연 〈결혼소동〉의 ‘카치레프’ 역.
- **1984년 6월** 43회 정기공연 〈겨울 사람들〉의 기획 및 ‘가쓰’ 역.
- **1985년 3월** '85신입생환영공연 〈따르튀프〉의 타이틀롤인 ‘따르튀프’로 주연을 맡음.
- **1985년 5월** 45회정기공연 〈외더란트백작〉에서 ‘하안박사’ ‘장군’ 역.
- **1986년 7월** 「서강문예대상」 희곡부문에서 〈송의원의 죽음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로 대상 수상.
- **1986년 11월** 동덕여대 국문학과 연극부 창반공연 〈제십팔공화국〉 연출로 활동.
- **1987년** 극회 「작은신화」의 제 2회 공연 〈Morning Noon and Night〉 연출로서 맹연습 중이었음.
- **1983년** 이해에 조직한 음악단체 ‘미르’의 기획및 보컬리스트로 활동해옴.

화계사 소인으로 부치는 노래

송 기 호

서강대 정외과 석사과정.
유절의 2년 선배로 서강
연극회에서 함께 활동.

잘가거라 잘가거라, 잘가 있거라.

엄마도 아빠도 누이도

형도 동생도 친구도

한 손 담고 두 줌 쥐어

혹 -

너를 보냈네.

눈 위고 바위 밑이고 풀잎 사이고

혹은

땅 위고 바람 옆이고 햇살 사이고

소복 소복 응큼 응큼

혹 -

너를 보냈네.

벌거벗은 나무들이 기지개 켜는 오후

겨드랑이 새에서 살아나는 숨소리를 들었네.

물빛 네 미소를 보았네.

- 벌거벗은 나무들이 옷을 입으면 난 한여름 풍뎡이로 울어떨거야.

‘옷벗어라’고 싱싱하게 울어제칠거야.

그리말하곤 푸르르

산새되어 날아갔네.

세상의 무엇이든 다 보려고

세상의 누구와도 숨쉬려고, 얘기하려고

눈·코·입, 꿈이 컸었나.

... 결론은 항상 공허했었네.

- 세상은 비틀러서 웃음으로 삭이지 않으면 모두가 눈물, 고통뿐.

몸 속 핏길에 누룩기운이 돌아야
핏길도 질척여 기쁜 숨으로 돌아야
태양 아래 옷 못 벗는 위인들을 향하여
무대 위 옷 못 입는 졸부들을 위하여
깊퍼린 바다 속으로 자맥질해뒀던가.

자, 술 한 말 들고 찾아올거나.
이승 저승 오가며 취해볼거나.
'행복' 노래 목쉬도록 불러볼거나.
아직은 더운 가슴 한잔 술에 적셔주고
지금은 차운 손발 두잔 술에 담혀주고
여태껏 찌든 머리 석잔 술에 씻어 줄거나.
아니면, 너 한입 나 한입 털어놓고 모든 걸 잊어버릴거나.
아-, 삶과 죽음엔 형식논리도 없단말가.

잘가거라 잘가거라, 잘가있다 오너라
엄마도 아빠도 누이도
형도 동생도 친구도
한 손 담고 두 줌 쥐어
혹 -
소복 소복 응큼 응큼
혹 -
너를 보냈네.
너를 보냈네.

- 돌아나던 우리 꿈은 우거지리다. 모두들 가슴에 뿌리내려 퍼지리라.
은 세상 골짜기에 잡초로 무성하리라.
그리하여, 하늘이 즐거하는 이야기를 만들리라.

길 떠나기, 혹은故이유철에게 부침

강 서 중

-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그대

달빛마저 구름에 가리워
어스름 깊어 떠나게
머무는 곳 어디에도 우리의
안식처 하나 없고
수령 같은 미궁 뿐
홀연히, 그대 먼저 떨치고 일어났나니
그대 슬픔의
자취 없이 떠나게

흠으로 돌아가는 길
너무 멀지라도, 외로움
너무 커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되돌아보지 말고
낙화처럼 바람에 날리다 흠에 내려
쉬고 싶거든 그곳에 영원히 머물게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거든 알리
그대의 품 속에 한 세대가
다시 자라나음을

시인. 유철의 보성고 동창.

우리時代의 離別歌

성 연 찬

내가 하늘이고
내가 꽃이었던 記憶들이
어느 봄 날 非情한 바람에 갈라서면서
하늘은 하늘이 되고
꽃은 또 꽃이 되어
이젠 살아있음을 꿈꿀 수 없는 때
아지랑이만 不在의 靄에
황홀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어느날내가별이었던記憶별은내가슴속에영롱하게박히고
별은눈물로떨어져외로운 들꽃을적시고꽃은별의체제속에
편입되어꿈으로되살아오는사랑이겨나苦痛이었다-

깨 어 저 버 려
脫骨한 발목으로 걸어, 걸어보는 거리
한때 자유와 만나던 겨울의 舖道
진달래, 사랑으로 움트던 낮은 언덕
모두들 제 것으로 돌아가 쓸쓸한 天地
事物은 事物끼리 以心으로 울고
노을은 노을끼리 그리움으로 타올라
생이별의 또아리를 틀면
그치지 않는 바람속으로
이별기를 불렀다.

외대 경제과 휴학 중. 유절의 보성고 등장.

너의 빈 무대를 위하여

연극은 그 시대의 진실을 담아야 한다고 말해 놓고는 아직은 그의 형태도 볼 수 없는 우리가 부끄러워 압담한 웃음을 지었었다. 그 무슨 모순 담긴 얘기나 읊조리며 가로등이 꺼져있는 거리를 걸어도 보았었다.

그러나 여기 너의 자리는 비어있고 다시는 함께 할 수 없는 너이기에 우리들의 이야기는 결론도 없는 메아리가 되어버렸구나.

먼 길을 가버린 유철아, 사랑하는 나의 친구여! 너의 이름 끝없이 불러보나 너는 한마디 대답도 없구나.

그렇게 인사도 없이 눈짓조차 없이 가버린 무정한 나의 친구여! 이세상의 어느 말, 어느 언어로서 너를 잃은 슬픔을 말할 수 있겠니.

여기 너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와있단다. 이렇게 다 모였는데 너는 혼자 어디로 가버렸니? 새벽길, 다시는 못 올길을 가는 너에게 마지막 인사도 할 줄 모른채 잠만 자고 있었던 난, 정말 한심한 친구가 되어버렸구나.

오늘은 널 보내는 날, 운명이 그렇게 이름지었음을 알면서도 고개를 저어보는 것

은 비정한 '죽음의 신'에게 한가닥 예의를 기대함인가. 함께 할 날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함께 할 일들이 그리 많이 쌓였는데 무엇이 너의 걸음을 재촉하게 하였을까?

유철! 너의 웃음을 생각한다. 너의 존재로 인해 밝아졌던 그 많은 영역들을 생각해본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돌아가는 세트 사이로 성큼성큼 다니던 너의 걸음을, 오색의 조명이 켜진 무대에서 던져졌던 너의 대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어본다.

우리에게 던져졌던 그 많은 박수갈채를. 참으로 아름다운 무대였었지. 그러나 무대는 이렇게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데 너의 목소리는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구나. 이제 우린 이 텅빈 무대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유철아! 우리 귀 열어 마음 열어 들을테니 마음에 품었던 얘기일랑 모두 하고 가라. 우린 너의 말 모두 들을 수 있단다. 너도 우리말이 들리겠지? 그래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설령 죽음이라 하더라도 막을 수는 없을거야.

네가 간다가에, 아주 멀리 간다가에 이렇게 나와보니, 너는 벌써 떠나고 환눈만 쌓여 있구나. 너의 가는 길, 그길 함께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너무 쓸쓸해 하지 말자. 우리 비록 인사조차 없이 헤어졌어도 다시 만날 수 있음을 알기에 너무 위로와하지 말자. 오래도록 나는 너를 알았음을 자랑하리. 길이 길이 나는 너를 슬퍼하리. 너의 영혼 영원히 남아 오랜 세월 흐르고 난 뒤 우리 서로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할까, 말없이 눈물로 인사를할까 아님 먼저 가버린 무정한 너의 등이라도 쳐줄까!

아- 그렇게 만날 날이 지금은 아득한데 너를 보고싶은 마음은 한없으니 이마음 어찌면 좋으니.

억만 가슴이 무너져서 눈물로 채운다하여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헤어짐이여,

친구여! 삼베옷에 꽃신 신고 가는 그길을 부디 잊지 말아다오. 그 가는길 꼭꼭 기억하여 우리가 널 찾는날 네가 우리를 찾는날 다시 그길 따라 만날 수 있도록. 그날이 올때까지 우리 계속 사랑할 수 있으리라. 넌 떠났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하니까.

잘가거라 친구여! 부디 평안히.

극회 작은신화는 유절이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창단. 대표로 일해왔다.

극회 작은신화 창립선언

- ① 한국 연극계에 만연되고 있는 상업주의를 극복하여 연극 본래의 예술성을 회복하는 데에 연극을 이기는 젊은 의식으로서 일조(一助)를 한다.
- ② 희곡을 단순히 무대에 표현하는 일차원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연극은 종합적 공연 행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지상 명제 아래 각 부문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이론과 실체가 조화된 살아 숨쉬는 행위예술로서의 연극을 정립함에 노력한다.
- ③ 연극은 그 사회의 구성원 모두를 위해 존재하여야 하므로 연극이 일부 학생층이나 소수 지성인의 전유물처럼 인식되고 있는 현재의 풍토를 개선하여 누구나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연극이 되도록 노력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존의 극장만으로 고정인식화 되어 있는 공연장의 개념을 확장시킴에 노력한다.
- ④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의 공연 형태를 답습하지 않으며 연극만이 가지는 고유 매커니즘을 최대한도로 활용하여 항상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내용의 연극을 창조함에 노력한다.
- ⑤ 우리 한국사회만이 갖는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들의 방식으로 제시하며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우리의 연극을 만드는데 노력하며 그를 위해 창작극의 시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극회 작은신화 창립일지

1986. 6. 이유철, 최용훈, 박정영, 임인섭, 임애리, 김영인 등 6명이「극회 창회 준비위원회」 구성.

1986. 7. 17 극회 명칭을「작은신화」라 명명.

1986. 7. 25 13명의 회원으로 창립총회를 가짐. 이유철을 대표로 선임하고 회칙을 제정. 이유철의 자취방을 임시 사무실로 결정.

1986. 7. 29 대외공연에 앞서 내실을 다지기 위한 워크샵 시작. 고교순회공연 계획 수립하다 무산.

1986. 8. 7 현재의 사직동 사무실로 이전.

1986. 9. 7 워크샵 마침.

1986. 9. 11 카페 순회공연이 제작회의에서 결정.

1986. 9. 16 카페 순회공연 작품과 연출 및 기획 결정.

〈결혼〉 이강백 작, 박정영 연출 / 〈불어를 하세요〉 머레이 쉬스갈 작, 최용훈 연출,
기획 : 임인섭

1986. 9. 19 연습시작.

1986. 11. 5 동덕여대 앞 ‘시와 그림’ 공연. 〈불어를 하세요〉

1986. 11. 6 동덕여대 앞 ‘시와 그림’ 공연. 〈결혼〉

1986. 11. 10 흥익대 앞 ‘발코니’ 공연. 〈결혼〉

1986. 11. 12 경희대 앞 ‘바람나그네’ 공연. 〈불어를 하세요〉

1986. 11. 13 경희대 앞 ‘바람나그네’ 공연. 〈결혼〉

1986. 11. 14 ~ 15 인사동 ‘아가페’ 공연 〈불어를 하세요〉 〈결혼〉

1986. 11. 16 인사동 ‘아가페’ 앵글 공연. 〈불어를 하세요〉 〈결혼〉

1987. 1 소극장 공연이 제작회의에서 결정. 작품과 연출 및 기획 결정.

〈Morning, noon, and night〉 이스라엘 호로비츠, 테렌스 맥넬리, 레오나드 펠포
3인 공동 작. 연출 이유철, 기획 임인섭.

1987. 2. 4 연습 후 귀가중에 교통사고로 대표 사망.

이유철군 추모 좌담회

유철이와 작은신화

일 시 : 1987년 2월22일 오후 5시

장 소 : 「작은신화」 사무실

참석자 : 송기호, 문혜주, 임애리, 박현신, 이재형, 박정영, 권태주, 유현선

사 회 : 최용훈

사직공원 맞은편 골목으로 들어서면 주위의 집과는 어딘지 다른, 마치 오랜 세월 주인이 떠나 생기를 잃은 폐허와도 같은 빨간 벽돌의 2층 양옥집이 있다. 그 곳에는 극단 「작은신화」를 비롯해 공연단체 세 개가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 단원들 사이에는 ‘유령의 집’으로 통하나 근처 동네사람에게 ‘연극하는 학생들의 집’을 물어보면 누구나 가르켜줄 수 있을만큼 유명해졌다.

구석진 방. 직사각형도, 오각형도 아니게 뺄뚱어진 방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헐어 빠진 책장과 책상, 그리고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의자들 등. 이 곳에는 정상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다. 조직표에는 대표의 자리가 비어 있고 모인 사람들의 옆 자리도 들 성 들 성 비어 있었다. 난로를 가운데 두고 커피 한 잔도 없는 썰렁한 좌담회를 시작한 시간은 오후 5시.

사회 바쁘신데 유철의 추모 좌담회에 나와주어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시

작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극단 창설 시기부터 같이 해 온 동기들도 있고 또 중간에 입회한 회원도 몇 있고 해서 이야기가 여러가지로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우선 극단 창설 시기부터 거슬러 올라가 그 당시 얘기부터 하면서 풀어나가기로 하죠. 박정영양께서 왜 「작은신화」를 만들게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정영 우리가 학교에서 대학극을 통해 만나 연극을 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대학극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많은 부딪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연극과 씨름이라는 이중적인 면, 관객과 소재의 편협성,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대학인들, 이 사이에서 우리가 가진 연극에 대한 애착이랄까, 정열은 상대적으로 높아만 갔죠. 그러나 대학극에서 눈을 돌려 기성극단을 기웃거리려 보니 이 역시 우리들의 이상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이라고는 상업극의 범람, 나약한 이론들, 번역극들, 그리고 아집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대학극과 기성극단 사이에서 갈 길을 잃어버린 셈이죠. 그래서 새롭게 우리끼리 모여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 회 역시 창단 동기로서 임 에리양께서 유철이가 먼저 얘기를 꺼내 각 몇몇 동기들이 동참함으로써 「작은신화」가 태동을 했는데 「작은신화」의 취지랄까, 성격을 말해 주십시오.

임에리 글썄요, 가장 어려운 이야기인데 취지라면 짧고 작고 알찬 연극을 해보자 하는데 있었고 또 있었다면 버스 안내양 앞에서도 할 수 있는 연극, 낙도에서도 할 수 있는 연극을 하여 돈이 없어 기회가 없어 접할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관객으로 포용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이클래스의 점유물로서의 연극, 연극인만의 연극에서 벗어나 광범위하게 다같이 모여 떠들고 웃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연극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취지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성격이라면 우선 우리가 극회로부터 출발을 했다는 점이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즉 연극의 무대공연과 그에 따르는 상업적, 영리적 목적을 가진 극단체계에서 좀 더 벗어나 무대 뒤의 작업, 즉 창작과 이론의 완성, 각 기술적인 공부를 중시하고 영리성을 버린 실험적 작업을 중시했던 것이죠. 그것들이 바로 무대공연이라는 결실과 연결되게 되면 항상 발전가능성 있는 공연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송 기호 선배가 뒤늦게 와서 잠시 자리가 소란)

사 회 이렇게 보면 「작은신화」 창설 동기가 학교극의 보호막에서 벗어나 좀 더 책입감 있고 우리 피부에 맞닿을 수 있는 연극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이 직접적 동기이며 또한 젊으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보고 싶은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관객층의 확대를 통해 우리 연극을 활성화시켜 보고 싶었다는 것. 세가지가 중요한 동기로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작은신화」를 만들면서 그 주축이 되었던 것이 바로 유철이인데 유철이의 연극에 대한 생각이나 평소 성격 등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좀 늦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자리를 소요스럽게 만들으신 송 기호 선

배님께서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모두 일제히 웃음)

송기호 후배 결혼식에 다녀오느라 좀 늦었네. (특유의 웃음으로 사과를 대신하여 또 모두 웃음) 글썽 유철의 평소 성격을 말한다면 모두가 느끼겠지만 모든 것을 웃음으로 넘기는 낙천적이라 할 수 있지. 물론 그녀석에게도 고민이 있었겠지만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고 자기 자신에게 처한 상황도 모두 웃으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 그것이 「작은신화」에 많은 여파를 주었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모이면 노래하고 웃고 떠들고, 그것이 「작은 신화」의 분위기였던 것 같아. 물론 그 점이 조직사회에서는 부정적인 면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묵과할 수 없지만. 정으로는 못쳤지만 추진력이 없게 된 것이 「작은신화」의 헛점이나니까.

임애리 유철이는 욕심이 많았어요. 공부하는 면에서나 사람 사귀는 면에서나 여러 가지 시도하고. 그래서 종합예술인 「연극」을 택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정영 우리 「작은신화」에는 특별히 극작부, 번역부가 있는데 창작을 중요시 한 점도 유철이의 평소 신념이었어요. 우리의 정신이 박히고 우리가 모두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말로 쓰여진 것 밖에는 없다는 생각이었죠.

이재철 작년 가을에 유철이가 서강대학교 문예대상에 입선된 적도 있었죠. 송 기호 선배가 주인공이 된 「송의원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래서 하루도 든든히 파티를 열었던 것이 생각이 나요.

문혜주 유철이가 대표로서 책임감을 혼자서만 지려하는 모습을 볼 때 많이 안타까웠어요. 사고난 날에 우리가 모여 얘기하던 것도 그런 거였어요. 왜 혼자 다 짊어지려 하느냐, 즐거움, 기쁨 다 나누었으면 고민도 꺾은 일도 다 같이 나누어 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대표로서 충실히 임무를 다 하려던 모습이 눈에 선해요.

사 회 「작은신화」가 86년 7월에 6명으로 시작을 하여 현재 20여명의 회원이 있을 정도로 커졌는데 그 사이 여러가지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초창기 때 생각나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재철 우리가 처음 모였던 곳이 유철의 자취방이었죠. 그 방에는 없는데 없었어요. 에어컨,냉장고,TV 등 비록 종이로 써서 붙인 것이지만 소담하고 발달한 유철의 재치가 넘치던 방이었어요. 하도 푹푹 찌서 우리가 ‘뽕통’이라 불렀지요.

권태주 저도 누나를 통해 「작은신화」에 들어 왔는데 제가 제일 어렸어요. 처음 오던 날 밤 옥상에서 벌거벗고 몇몇이, 그걸 꼭 유철이형, 용훈이형이라 밝히지는 않겠지만, 목욕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임애리 처음 총회때 한 10명이 모였는데 처음 계획이 고교순회공연이었어요. 서울

시내 고등학교를 섭외하여 직접 찾아가 고교생을 위한 연극을 해보려는 의도였죠. 학력고사를 끝내고 할 일 없어 방황하던 시절을 겪어본 저희들이기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고, 또 처음 연극을 접하게 되는 청소년에게 연극의 맛을 보여주어 계속 우리의 관객으로 끌어 모을 수 있게 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인원부족과 경비문제로 연기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작은신화」에 부서가 하나 더 늘었죠. 「희곡연구회」라는, 우리에게 맞는 작품을 찾고 연구하는 일도 초창기에 중요한 일중에 하나였어요.

사 회 그러다가 8월 초에 이곳 사직동으로 이사를 왔죠. 그때 처음 들어오게된 현 선이가 그 당시 얘기를 해보죠.

유현선 제가 「작은신화」를 처음 들어온 날이 바로 여기로 이사를 오는 날이었어요. 같이 집도 나르고 청소도 했죠. 전 「작은신화」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친밀한 느낌이 들고 젊은 느낌도 들고요. 연극에서 무언가 신화적인 일을 이루어보고자 이렇게 지었다는 얘기를 듣고 앞으로 이곳은 정말로 ‘큰 신화’를 만들 「작은신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 회 이사후에 내실을 기르고 신입회원을 확충하고자 워크샵을 실시했었죠. 그리고 첫 공연으로 카페 순회공연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그때 연출하였던 박 정영양이 말씀 좀 해 주시죠.

박정영 동덕여대의 ‘시와 그림’ 흥대앞 ‘발코니’ 외대앞 ‘바람나그네’ 그리고 인사동의 ‘아가페’ 이렇게 네군데 카페에서 이 강백씨의 〈결혼〉과 머레이 스위스갈의 〈불어를 하세요(원제 Tiger)〉를 8회 공연했어요. 사실 극장이 아닌 카페라는 장소에서 연극을 하는 것은 무리였죠. 조명시설도 무대도 그리고 분위기도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공연다운 공연이 되기 어려우리라 잘 알고 있었지만 좀 더 실생활에 파고 들어 관객을 찾고 싶었어요. 또 현재 우리 연극계의 문제점인 공연장 부족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려 하였고요. 그래서 연출면에서도 무대나 세트조명이 카페에 맞는 작품을 골라 좁은 공간을 활용하여 분위기에 맞추려 노력했었습니다.

사 회 공연중에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이재철 첫 공연이 동덕여대 ‘시와 그림’에서인데 들쭉날 〈결혼〉을 공연 때 여주인공이 사정상 못하게 되어 연출이 배우를 하기도 했죠. 그때 연출이 대사를 까먹어 애를 먹었었죠. 어떤 공연에서는 관객이 없어 카페에서 미리 받은 출연료로 그곳 음식을 다 먹어주고 나온 적도 있고 또 여배우가 공연후 쓰러져서 병원비로 고스란히 바친 일도 있었어요.

권태주 마지막 공연때는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관객이 몰려 하루 연장도 하고 우리 공연 때문에 전경이 고정배치 되기도 했었죠. 또 공연중에 남자 배우가 유철의 큰 배

형님께 말을 걸다가 오히려 웃겨서 말을 못한 적도 있었죠. (모두 웃음)

문해주 저는 「작은신화」 공연을 관객 입장에서 봤는데 극장이라는 분위기와는 다른 공연형태에서 기존연극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또 대학극과는 다른 기교적인 면도 있고 어쨌든 젊고 활기있는 인상을 받았어요.

박현신 저도 관객으로 봤는데 3시간이나 기다린 보람이 있었던 좋은 공연이었어요. 제가 전에 〈결혼〉이란 작품을 해 본 경험이 있어 어떻게 다른가 유심히 보았는데 뮤지컬로 시도한 점도 좋고 〈불어를 하세요〉에서의 통기타 연주도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작은신화」는 연극 뿐 아니라 음악적인 면에도 강점을 가진 것 같아요.

임애리 공연후 대표 유철이가 “우리는 보다 싼 가격으로 연극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그보다 더 싼 가격으로 연극을 올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연극을 하고 싶어했던 것이 우리들 바람이었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모여 무언가 이루고자 했던 정열만큼은 보여 주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권태주 카페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기동력에 문제가 있었는데 유철이형이 큰 힘이 되었죠. 그리고 항상 연습 때 배우들 배고플까봐 빵이나 음료수를 한이름 사온 산타역도 했고요. 언젠가 우리가 밤샘을 할 때 밤 12시에 양 손에 떡을 싸가지고 와서는 “너희들 밤샘하니까 나도 와서 밤샘해야지. 우리집 오늘 제삿날이었어”하고 우리의 주린 배를 채워 주었던 모습이 생각나요.

박정영 유철이는 「작은신화」의 수리공이었어요. 전기뿐 아니라 겨울철 수도관을 얼지말라고 싸매 주고 문을 고쳐주고 가장처럼 자상한 면도 있었죠.

사 회 첫 공연을 마치고 두번째 공연으로 〈Morning Noon and Night〉를 번역하여 유철이가 연출을 하고 임인섭이 기획을 하여 올 봄에 올리기로 하였는데 그 공연을 못하고 간 유철이기에 더욱 안타까와요. 꼭 공연을 하고 싶어 했던 작품이었는데.

송기호 이제 유철이의 뜻을 살려 남은 「작은신화」 회원들이 그 공연과 더불어 계속 이어 나가야지. 그래서 항상 유철이를 기억할 수 있는 「작은신화」가 되어야지.

사 회 송기호 선배님 말씀대로 「작은신화」는 항상 그 뜻을 잊지말고 훌륭한 정신을 가진 연극인으로, 연극단체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유철이는 항상 우리를 지켜볼 것입니다. 바쁜 중에 이렇게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들께 다시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극회 작은신화 회칙

총 칙

1. 본회는 극회 '작은 신화'라 명명한다.
2. 본회는 연극을 비롯한 제반 예술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예술 단체이다.
3. 본회는 제작의 질적향상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향유케 하고 이를 통해 한국문화예술의 기수로서 일익을 담당한다.

회원의 자격

4. 본회의 회원은 연극을 비롯한 예술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예술특기자로서 본회의 목적과 사명에 찬동하는 자에 한한다.
5. 본회의 회원은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에 한한다.
6. 본회의 입회는 본회 소정 절차에 따른다.

회원의 의무 및 권리

7.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모든 공연활동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8.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9.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10. 본회의 제반 공연활동에 기인한 이익금중 적정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본 회의 조직

11. 본회의 조직은 대표 1인과 운영위원회, 기획부, 제작부, 연기부, 스태부로 구성된다.
12. 정기총회는 6월 12월 년2회로 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원의 1/3의 청원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13. 운영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들로 구성된다.

각 부서의 임무

14.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본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 15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기초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 16 기획부는 기획부장을 중심으로 자료부, 홍보부로 구성되며 본 회의 제반 재정, 홍보를 담당하며 기타 자료수집 및 정리를 한다.
- 17 제작부는 제작부장을 중심으로 연출부, 극작부, 번역부로 구성되며, 실제적인 공연에 있어서의 연출, 극작, 번역을 담당한다.
- 18 연기부는 연기부장을 중심으로 항시 심신을 단련하여, 보다 창의적이며 정열적인 연기를 행할 수 있도록 한다.
- 19 스태프부는 스태프부장을 중심으로 무대1, 무대2, 무대3으로 구성되며 무대1에서는 음악, 음향, 무대2에서는 무대미술, 무대장치와 조명, 무대3에서는 분장, 의상, 소품을 담당한다.

1986년 7월 25일 극회 작은신화

작은신화 회원 (87. 3. 1 현재)

- 권미경** 중대 연영과 졸업. 기획팀.
권태주 국민대 국문과 2, 무대팀.
길혜연 동덕여대 국문과. 극작팀.
김영인 서강대 독문과(군 복무중). 무대팀.
문혜주 서강대 영문과 졸업. 번역팀.
박정영 서강대 국문과 졸업. 극작팀.
박현신 이대 체육학과 졸업. 기획팀.
반무섭 서울시립대 환경학과. 무대팀.
배윤수 추계예대 문창과 2, 기획팀.
송기호 서강대 정의과 대학원. 고문.
송정은 신구전문대 공예과 졸업. 기획팀.
신영희 서강대 신방과. 연출팀.
유현선 성신여대 불문과. 무대팀.
이재형 동덕여대 국문과 졸업. 무대팀.
임인섭 서강대 경영학과 4, 기획팀.
임에리 서강대 불문과 대학원. 번역팀.
조윤상 추계예대 문창과 2. 음악팀.
최응훈 서강대 철학과 4. 연출팀.

이상 18명(가나다 순)

유철이가 쓴 편지들

다음 글들은 유철이가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들이다. 평소 연극연습으로 바쁜 나날을 보낸 그는 편지를 많이 남기지 않았다

지희에게

志禧! /

A.M 4:42... 지희가 준 시계가 가리키고 있는 시간이다. 지금 내 주위에 온통 지희의 형상들이 날 둘러싸고 있다. 시계두, 인형두, 조개껍질, 목걸이, 책을 들치면 편지지, 책상앞엔 크리스마스 카드, 레코드...:

유정이가 옆에서 잠들어 있다. 기끔씩 깨나서 “오빠, 휴지통!”하고 소리를 지르긴 했지만 지금은 좀 평안한 모습이다. 휴지통을 왜 찾냐고? 응, 녀석이 두 시간전 쯤 쏘주 한 병을(그저께 지희랑 같이 사놓은 거) 다 마셔버렸어. 딱 3분 만에 들이키더라. 침엔 좀 야단을 쳤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 같더라. 어젯밤에두 잠 못 지구 갱깁거리고 있었거든. 아나나 다들까, 내 방에 들어와선 이 얘기, 저 얘기, 주절주절 늘어놓더니 쓰러지더라. 그러더니 토하기 시작하더라, 휴지통에... 지금, 잠들은 유정일 보니까, “땀이 컸구나!” 소리가 절로 난다. 나한테 얻어맞고 집나가서 헤매다가 파출소에서 보호받고 어머니 손에 끌려 집으로 오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은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있다. 창밖엔 온통 달빛으로 눈이 부실 지경이야. 지금 뭐하고 있을까, 지희는? 편안하고 따뜻하게 잠들어 있을까? 지희 내가 앞으로 지희를 보살펴 줄게. 따뜻하게, 편안하게... 약속해! /

독서실에 잤었어. 오늘 11시간 공부했다. 벌써 다섯시 육분이다. 아, 진짜 맥주

는 딱 두잔, 작은 걸루 마셨어. ... 야단치지 말라구. 뭔가 열심히 해내기 전엔. 앞
으루 슬 취하는 일 없을 거니까.

지희. 유정이가 또 꾸룩꾸룩거린다. 또 휴지통 받쳐줘야 되구. 연탄불도 갈아야
되구, ... 아이고 정말 바쁘다. 꼬박 새울 모양이다. 이따가 한잠자구 또 열심히
공부할게... 지켜봐줘. 지희... 그럼, 토요일날 밝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원할
게... 안녕!

1985년 1월 22일 새벽 장위등에서 유절.

P. S 유원이누나 결혼날짜가 잡혔단다. 2월 27일루... 집안이 온통 들썩거리구.
기둥뿌리가 하나 더 뽑힐지두... 휴!(엄마, 아버지 한숨소리)

진욱에게

친구여!

오늘은 날씨가 몹시 짙짙해서,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었다. 터벅터벅 걸어서 학
생회관으로 들어오다가 무심코 우편함에 들렀다. 내가 보내준 학보를 발견한 순간
얼마나 기뻐했는지! 한번 네게 이런 식의 편지를 하려 했었는데, 마침 (오늘 새벽 맞
네!) 오늘 결심한 일을 네게 처음으로 고백한다.

난 지금껏 피비우스의 띠를 따라 들고 들어왔다. 아무 것도 이해 못한 채... 절망.
인생은 절망의 뒤편길에서 시작된단다. 좀 더 깊은 학문, 진실한 연극, 뜨거운 친구
들이 내 앞에 다가온다. 3가지를 얻기 위해, 나의 문란했던 私生活을 과감히 포기
한다.

너 혹시 자을, 가난, 정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지?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알
고보니 심오하더라. 담에 한번 얘기해 보자. 여하튼, 이 역사적인 나의 변화를 위
해 오늘도 한잔. 축배를 들어야겠다. 히히...

진욱아! 보고 싶어. 안녕.

1984. 3. 23

잘 있었니? 날씨가 차가워지는데 진욱이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궁금하고, 걱정
스러워진다.

어제 은 눈으로 뒷산의 나무들이 하얀색으로 겨울옷을 입었구나. 평소에 매마른
정서의 소유자라고 생각했던 나도 어제는 웬일인지 가슴이 찡해지고, 눈물마저 솟구
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웃기는 일이지? 이제 일년을 보내면서 아직 못한 일을 마
무리 지어야겠다.

이제 며칠 더 있으면 일년동안 자기 수련을 더 한 친구들이 시험을 보겠구나. 날 써나 줘서 좋아하겠는데. 그럼, 올 겨울도 톡톡히 지낼 것을 약속하면서 펜을 놓는다.

11월 17일 澈이가.

신문의 효용이 받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데 있다면, 학보보다는 볼 것이 많은 이 신문이 좋을 것 같았다. 공부하느라 바쁘지? 난 공연준비를 하느라 바쁘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바쁜 생활속에 연극을 접할 기회가 없는 학교 주위의 주민들에게 대학문화를 보여주고 싶다. 미국엔 대학촌(University town)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학교에 담이 없다고 한다. 대학의 가장 위대한 임무인 '대학문화창달'을 달성하는 방법 두가지(학과공부, 학과의 활동) 중에, 나는 두번째 방법을 택했다. 지면이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다. 만나서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고 싶다. 공짜표 보낸다. 개량 와! 이왕이면 정선이두 데리구 셋이서 오면 더 좋지. -유철

연찬에게

사랑하는 연찬에게

죽지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피차 매일 거는 전화로 확인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요즘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음 산문인지 수필인지 신지... 아등든 다음의 글에 담아놓았으니, 연찬이가 쉽게 알 수 있으리라 믿는다.

네가 걸어온 어두운 거리들은 굳게 빗장을 잠갔다.

허겁지겁 따라가 문을 두드리지 마라

불켜진 창문 사이로 엿보아라.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두드리면 어쩌면 열어 주겠지

그땐 확인할 것이다.

문을 열어준 것은 다름 아닌 바람이라는 것을...

곧 중간고사가 다가오겠지. 연찬이가 뿌린만큼 좋은 성과 거두길 바란다. 날씨가 쌀쌀해진다.

1984. 9. 29

P. S : 네가 놓고 간 만년필로 편지를 쓴다. 웬지 기쁘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 우린 헤어질 수 없다. 만년필이 나를 사랑하는 걸 ...

정영에게

정영에게

처음인 것 같다. 莢에게 펜을 든게. 잘 지내고 있니? 28일날 너희 학교에 찾아 갔었드랬다. 班室에 신입생 환영공연 연출신청 들어와 있는 작품들을 보구 또한번 한숨을 내쉬며 나와야 했다. Chalie Brown, Bird Bath. ...결국 우리나라 작품은 안나오는구나 ... 사실, 이제 연극반도, 서강대학생도 아닌데 관여할 필요는 없겠지. 얼마전 '잉어집'에서 술 한잔 걸칠 때의 정영의 눈빛이 마음에 걸린다. 정말 미안했다. 근데 너무 미워하지마 ~. 히-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얼마전 최 모선배가 나한테 한 말이 있다.

“야! 너같이 끼있는 새끼가 왜 아버지 있는 학교에 왔냐? 너 바루 들어온 거냐” 고등학교 친구 놈이 또 다른 친구 놈에게 하는 말 “야, 유철이 새끼야, 노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거 있냐?”

결린다. 마음에. 허나, 사실이다. 유철이는 공부 암만 안해두, 성적 안좋아두, 결석 많이 해두, 찢리진 않거든. 李根三교수의 아들이니까. 이걸 나두 알구 있어. × 같이.

얼마전 누가 “나두 연극하는데 美는 꼭 창조할거야.” 그러길래, 물어봤지. “美가 뭐냐?” “응, 美는 무대 위에서 이름다움을 창조하는 거야.” “병신, 지랄마!” 웃고 말더라. 莢아! 연극에 있어서의 美란 眞實 아니냐? 이름답고 추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한세상 태어나서 죽어가는 인간으로서 인생의 진실을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술이며, 연극 아니겠니?

연극을 사랑하는 莢! 아울러 生을 사랑하는 莢!

바란다. 유철이가 어째서 서강연극회의 제 3자가 되어야만 했는지, 또 연극회의 직을 지우면서 연극반원들과의 대화, 충고를 계속하려 했는지를 이해해 주길. 유철이의 서강대에서의 인생은 오로지 연극밖에 없었다. 허나 아무리 연극을 공부하구 고민해두 한계점이 있더라(유철이 만의). 앞에서도 얘기했 듯이 아무리 공부 안해두 난 안찢린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이다. 연극은 인간, 生의 진실을 표현하는 것인데, 내 어찌 이런 상황에서 지내갈 수 있겠니?

「태멘」에서 「민중」에서 「현대」에서 아는 사람들이 전화한다. 연극 같이 하자구. ‘거절한다! 난 아직 인간이 덜 되었거든. 연극은 진정한 인간이 진정한 겸손의 마음가짐으로 절실히 해야 한다. 씨클임을 부정하구 연극을 추구하는 이들, 씨클만을 주장하며 연극만을 하는 이들, 연극과 씨클은 필요충분조건임을 깨달아야 한다. 유철이는 너무 곱게 자라왔고, 지회를 만나면서, 타락했었던 내 모습을 보았다. 연극은

인간을論해야 하는 예술이기에 명예고 돈이고 떠나서, 자신있게 연극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겠다.

瑛아./ 4학년 되는구나. 취직 되었으면 좋겠다. 人間이라고 자부할 정도의 고민을 하였는가? 4년 동안?瑛이두 서울大 가구 싶었지? 아니라면 거짓말이구./ 이 시대의 65만 입시생들이 모두 한풀 꺾이구 있다. 서울大 못간 젊은이들 말야.

아몽든 전부 개소리구. 5주 동안 수고했다. 애리, 용훈, 인섭, 정항 등 모든 동기들에게 인사전하구 싶다. 第三者로써 연극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질문 혹은 건의사항을 잘 받아들이는 서강연극회였으면 한다. 왜? 적어두 연극에 관여한다면 人間(나까지 포함)을 사랑하구, 존엄하게 여겨야 하니까.

瑛./ 한번 보자./ 프로포즈(?) 받아주라. 오전중에 전화 기다릴께.

1985. 11. 29

瑛아./ 학기말고사 前이구 後구 만나구 싶다./

정영에게.

가끔은 정말로 가끔은 콩장을 먹고 소화불량으로 죽어버린 개구리를 생각하자. 또 가끔은 총알에 맞아 타박상으로 죽어버린 원숭이도 걱정해주자.

사람은 한세상 살면서 의식의 자유 또는 衣食住의 자유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생명체라고 규정짓는다. 한평생 못하면 한순간 만이라도, 아니면 가끔씩이라도, 그 래야만 자유스럽게 떠다니는 공기를 호흡할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는 언젠가부터 편함과 안정, 그리고 말미잘만 추구하는 조그만 목각인형이 되어버렸다. 또한 긍정적 사고방식과 확일적인 대가리를 최상의 가치로 치는 버릇이 배어버렸다. 아침이면 일어나서 세수하구 밥먹구, 똥누구, 꾸역꾸역 학교로 몰려들어, 와글와글 교실로 들어가, 매일매일 지배당하게끔 조작된 프로그램에 의해 똑같은 대가리들이 되어선, 쫄르르 줄서서 밥을 먹구, 또 다시... 이것이 최상의 행복? 거지와 정신병자와 재수생들이 겪지 못하는 지적경험? 천만에./ 대학생은 국화빵일 뿐이라네.

비는 날 적셔줄 수 있어서 좋다. 세상에 무엇 하나도 나의 육체를 완전히 뒤덮어 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가 오면 슬픈 것이다. 무척이나 자유를 회구하기 때문에, 무척이나 보금자리를 필요로 하는 유철의 모순의 극한. 연극은 왜 해? 연극 뭐야? 질문하면 그저 말없이 눈물흘리는 사람과 연극하구 싶다. 지성인을 증오한다. 그래서 지회가 좋다. 근데 영아두 좋다. 그리고 정영아두 사랑한다.

이젠 밥을 먹구 똥누지 않는 법을 익혀야 된다. 죽음... 자유의 한계를 한발씩 넘어서는 날, 눈물 흘리며 만나길... 좋은 충고를 준 정영에게 감사한다.

1983年 12月 17日 출 · 어머니 생신

日記

유절이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은 83년 가을부터로 그가 남긴 일기책은 두권이다. 특별한 일이나 감정에 충실한 면에서부터 간단한 메모까지 해두는 세심한 일면까지 엿볼 수 있었다.

어머니 생신일이었다. 벌써 51세가 되었다. 이제 머느리 볼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빨리빨리 색시 구해서 부모님 기쁘게 해 드릴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나에겐 있다는 걸 새삼스레 생각해보니 어깨가 무겁다.

오전 10시에 Y가 전화를 하기로 했는데 12시가 돼서야 걸려왔다. 한바탕 야단을 치려다가 그만뒀다. 어쩔수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 가령 오빠가 집에 늦게까지 있으셨다던가…….

아/ Y가 집으로 떠났다. 2시 10분 강남터미널발 동부고속버스로 언제나 볼수 있을지.

3시에 용훈, 석찬, 애리, 정영, 경순과 만나 단합대회를 갖고 演劇班의 미래에 대해 토론했다. ‘人生은 演劇이다’ 고로 오늘 우리는 人生에 관해 토론을 했던것이다. 結論은 열심히 공부하자? 즉 윤시내를 상기하자였다. 점점 인재들이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연극공부는 대단히 중요하다. 방학동안 책을 열심히 읽어야겠다.

6시 반에 찬규, 강원, 연환, 상우를 만나 음악에 관해 토론을 또 열고, 몇 곡 뽑다 왔다. 아/ 피곤해.

며칠째 찬이로부터 연락이 없다. 이녀석이 내가 농담한 것 때문에 화가 났나? 설마/ 그렇게 좁은 녀석은 아닌데, 내일은 日요일이니 연락을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집에 좀 일찍 들어와야지…

事件 : 소련 극동 군사력 증강.

1983年 12月 24日 토 는

아침부터 눈이 내려 내 마음에 파동을 일으켰다. 오늘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날이라는 Christmas Eve란다. 유명한 사람은 생일 전날도 기쁜날인가 보다. 연찬에게 전화가 왔다. 둘 다 애인이 없어 외

로우니 만나기로 했다. 유리누나가 왔다. 반가웠다.

연찬이와 오후 늦게 명륜동에 갔다. 인수형을 만나 잔소리를 들었다. 근데 내가 오늘 한가지 중요시 할 일은 돈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친구사이일수록 더욱 그렇다.

밤에 진옥, 대일, 강원, 상우가 왔다. 물론 내가 불렀다. 모두 외로운 사람끼리 모였으니 참 가축적인 분위기가 넘쳤다. 소주를 마시던 우리에게 크나 크, 산타의 선물과도 같은 맥주가 주어졌다. 그것도 한 20병은 된다. 산타클로스는 바로 李根三씨, 바로 우리 아버님이셨다. 우리는 산타와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끼리도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두 신나게 놀고 상우와 강원이는 3시쯤 집에 가고 진옥, 대일과 함께 잠을 잤다.

1983年 12月 29日 木

오늘도 역시 늦게 일어났다. 점심을 식구들과 다 같이 할 수 있었다. 진옥이와 민중극장의 「Guys & Dolls」를 같이 관람했다. 재미있고 화려한 연극(musical)이었다. 연출도 완벽했다. 우리도 그런 걸 한번 해야되는데...

유정이가 또 숙제를 안해서 야단을 치고 엄청난분량의 숙제를 냈다. 내일도 안해놓으면 더 과감하게 패주고 숙제도 더 많이 내줄 셈이다.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원주에 갈테다. 우선 터미널에서 전화를 걸어서 알아본 뒤에..... 좀 껌뻌한 듯한 표정이면 그만 두고...화끈하게 행동하라! /

1984年 6月 21日 木 흐리다·비오다

하루종일 잤다.

사실 깨어있어봤자 찌뿌둥한 날씨 때문에 아무 것

도 잡히지 않았을 것이다. 저녁 때, 용훈이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녀석, 내 생각을 끔찍히 해준다. 고마운 녀석이다. 밥먹구 인섭이 집에 가서 공부를 했다.

인섭은 외로울 때의 내겐 참으로 좋은 상대이다. 그의 순수성이 참 좋다. 마치 Classic 음악을 들으며 말하는 커피냄새같은..

밤늦게 비가 내렸다. 지금도 내리고 있다. 빗속을 혼자 걷고 싶다. 어디론가 멀리, 끝없이...

1984年 6月 24日 맑았다 흐렸다 난리났다

그저 그렇게 지나버린 평범한 하루였다. 그래서인지 맘이 편했다. 요즘 몇 주일 동안 오늘같이 편하게 지낸 날은 없었던 것 같다. 평범한 날이어서 맘이 편한 걸 보니 나도 별수없는 보통사람인가보다.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지만 역시 그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舊官이 名官」이란 우리나라의 속담도 그래서 생긴 것일까? 결국 세상에는 나만이 외롭게 남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속에 새기면서 오늘을 보낸다. 창밖엔 비가 내릴 것 같은 우중충한 날씨이다.....

1984年 11月 9日 金 맑았다

요즘 '변화'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다. 살아가면서 힘을 써서 변화시키려 하거나, 변화하지 않으려 해도 그것이 쓰잘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는 적이 많이 있다. 고로 실생활에서는 이 '변화' 라는 concept 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얼마전 낱아빠진 연습장 속에서 작년엔 쓴 '회고록(?)' 을 발견했다. 여자친구의 손을 처음 잡았던 날 쓴 것이었다. 두근거리던 내 심정이 그대로 쓰여져 있었다. 내참... 하..:

근데 현재는..?

아뭏든 좋다. 쓰레기라도 좋다. 불탈 수 있는 쓰레기가 되어야 한다. 연극반이 엉망이다. 불타지 않을 쓰레기들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한번 석유를 뿌려서 불질러 볼테다.

1985年 2月 15日 金 흐렸다

일찍 귀가했다. 말로 표현은 안하셨지만 두 분 다 만족하신 표정이었다. 난 이집의 주인, 맏아들임에는 분명했다. 학교에서 경순이와 약간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경순이와 나의 인간에 대한 개념설정은 정반대였다. (물론 그녀는 기독교인이니까) 인간은 결국 오만하고 위선적인 동물일 수 밖에 없다는 나의 생각을 표명하자 경순이는 몸서리를 치며 아니라고 했으나 결국 나의 주도면밀한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더러. 난 입이 너무 가볍다. 우선 행동하고 입을 열기로 했다. 쓸 말이 많았었는데, 중요한 건 모두 나 열한 것 같다.

1985年 11月 26日 火 맑음

종선이를 만났다.

드디어 내 머리보다 짧게한 그의 모습을 보고 야 / 소리를 질러주었다. 말은 안했지만 녀석은 분명히 피로워하며 두려워하고 있었다. ‘軍’. 짧은이기가 한번씩 겪는 것(?) 그는 내일 훈련소에 간다. 나는 안간다. 모든 인간은 결국 평등하진 못한 것이다.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니까. 어머니가 싸주신 인절미를 싸주고 우린 철길 옆에서 평소와 같이 헤어질수밖에 없었다. ‘안녕’. ‘잘가’.

오후엔 cafe에서 지희를 만났다. 지희에게서 받은 레코드를 들고 나는 안개 자욱한 거리를 걸어왔다.

내일은 방의 구조를 바꿔야겠다. 웬지 답답하다.

이모의 시어머니가 세상을 뜨셨다..

난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 아직 5년정도 앞을 겨우 내다볼 능력뿐. 지희는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자신도 기쁘다며 나를 격려해준다.

학력고사를 다시 치러야겠다.

내년에는 카페를 하나 경영하고 싶다. 머리가 복잡하다. 내가 세상을 조금만 몰랐어도 행복했을텐데. 지희가 날 세번째 만났을 때 하던 말이 생각난다.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게 세상을 살려니까 그렇게 어지럽고 복잡한 거예요. 유철씨두요, 저처럼 바보같이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대구요”

이번 겨울엔 여행도 다니구, 책도 많이보고 싶다.

1986年 5月 6日 火 말았다흐릴

드디어 탈출에 성공했다.

인섭이와 유정이가 짐 나르느라 수고해주었다. 용훈이가 첫 손님으로 와주고..

끝까지 살아남아 큰소리로 외쳐야 한다. 태어나서 고민하다가 죽어가는게 인간이라고..

창밖에서 사람들이 격투를 벌이고 있다. 아직도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수 있다. 기계적인, 프로그램화된 사회라면 싸움같은 건 없을테니까. 모르지 또, 정교하게 프로그래밍 되어서 싸움도 계획적으로 벌일지.

의식은 자유로와야 한다. 영원히.

자유로운 의식을 갖게끔 키워주신 부모님께 이바지...진심으로 감사드린다.

FEBRUARY 1987

THURSDAY

민속의날

연말
 아침이 $\sqrt{}$ 돌 돌 할일이
 푸른색 전하 못다고 쓴
 주위에서 쓰이는
 성호는 주근
 오르기만 구사하는
 결의하는 의의 쓴것은.
 주위의 고요의 지위를
 가라져 같이 읽사
 하고 돌아 간.

Lunch

Evening

FRIDAY

새이 상주미갈이
 가서. Can and 계획.
 연습함,
 밤 9시에 자침에게가서
 차한만 하곤 오다.
 '출속의 남'은 지면에서
 별려하다.

Lunch

Evening

SATURDAY

아침의 풍요로부턴이까지
 영혼으로 반신근 2000 의
 연습.
 밤이 영혼의 영혼을 주위.
 흔임으로 이리 주위.
 주위 반으로 새워워서
 내사부터 생사까지 사학.
 회비한 1,500 원은

SUNDAY

새이 일어난다.
 상주에서 반주 함께
 제정식학.
 (양주영이 한달은 전일)
 주위 모두 갈이까지
 데려가 줄.

Evening

유철이의 최근 일기장.
 연극연습에 쫓겨 간단한
 메모로 대신하고 있다.

January	1	February	2	March	3								
Su	mo	Tu	We	Th	Fr	Sa	Su	mo	Tu	We	Th	Fr	Sa
.	1	2	3	4	5	6	7	8	9
4	5	6	7	8	9	10	11	12	13	14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5	16	17	18	19	20	21
18	19	20	21	22	23	24	22	23	24	25	26	27	28
25	26	27	28	29	30	31

항방불확정 or 항방불안정, 미확인항방

나는 살아 있으며, 살고 있고, 살아야 하며, 살아 왔고, 살고 싶고, 살아 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살아 있으며, 살고 있고, 살아야 하며, 살아 왔고 살고 싶고 살아 갈 것인가?

내가 내가 아니고, 네가 네가 아닌 한줌 안개와 같은 망연한 골목길을 우린 삶이란 거적을 쓴채 기어갈 것이다. 또는 기어갈 것인가?

지배계급論

미친듯이 뛰어가는 강아지에겐 돌을 던지자. 삶에 변화를 시도하려는 강아지는, 미친개라 이름 붙였기 때문. 때론 짓지 않는 강아지를 짓밟아주자. 짓지않는 강아지는 밟혀도 물지 않으니까. 보신탕을 주로 먹는 강아지는 살해해버리자. 언제 나를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연극知性論

가끔 연극한다구, 예술한다구, 연극은 예술이라구, 인생은 연극이라구 애절하게 울부짖는 사람들을 볼때 난 몹시도 씩씩한 快笑를 짓곤한다. 울음 반 웃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연극을 왜 하나구 질문한다. 그들은 이번엔 몹시도 심각한 표정을 짓고 또 한 옥타브 내려간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연극은 곧 인생이니까 ... 아니면 연극을 사랑하니까 ... 안타깝게도 열이면 아홉은 이렇듯 잘 녹음된 테이프와도 같이 똑같은 음질로 대답하는 것이다.

이렇듯 똑같은 프로그램이 담겨진 머리들로 '자칭' 연극이라는 것을 생산해낼 때 그것 또한 제목이 다른 표절곡과도 같이 엇비슷한(그런데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엇비슷하면 그건 좀 낫겠지만) '자칭' 예술의 형태로서 표현될 것이다. 86. 5. 19

지성인의 이성적 패배

벚꽃 그림자가 내 발을 밟는다.

난 땅바닥에 널부러지지만

그 바닥은 콜라병 조각이

깔려있었다.

피 ... 피는 분명 빨간색인데,

내 이성의 파편 쪼가리들은

어찌 점점 투명해지는가?

授業

..... 의식적 무관심.....

非知性

행위의 무비판적 수용은 결과적으로

폐쇄적 자아의 동결을 유인하는

냉엄한 지성인의 판단 오류일 것임을

지성인들은 주장하는데 ...

나는 행위가 뭔지도 알지 못하므로

뒷단어들은 한마디도 듣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글에는 옮겨쓸 수 있다는

지적 판단 오류를

과감히 범해 버렸다.

외면

깜박, 깜박, 깜박. 눈꺼풀이 열리고 닫힌다.

어떤 땐 닫히고 열린다.

의식은 이미 모랫속으로

눈꺼풀들은 먼지하구

쌀·보리 놀이를 한다.

그때마다 스며나는

눈물 한 모금,

눈물 두 모금 ...

배짱으로 삼시다

作詞 이유철

싫을 댜 싫다고 말해.
마음에 없는 소리하질랑 말고
미안해할 것없어. 내가 중요하니까.

체면차릴 것도 없지.
체면은 가난한 역사의 소산이니까.
자신이 한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면 되지.

작은 허물은 덮어둘 필요가 없지.
한마디 거짓말이 열마디를 하게해.
결국 심리적 부담만 쌓이고 말지.

사람이 실수안하고 살수있나
발명왕 에다슨도 실패 끝에 성공한거니까.
틀렸다고 생각되면 가치없이 버려야지.
체면이나 자존심은 따질 것이 못돼.
배짱으로 삼시다. 배짱으로 삼시다.
멋지게 살아갈 수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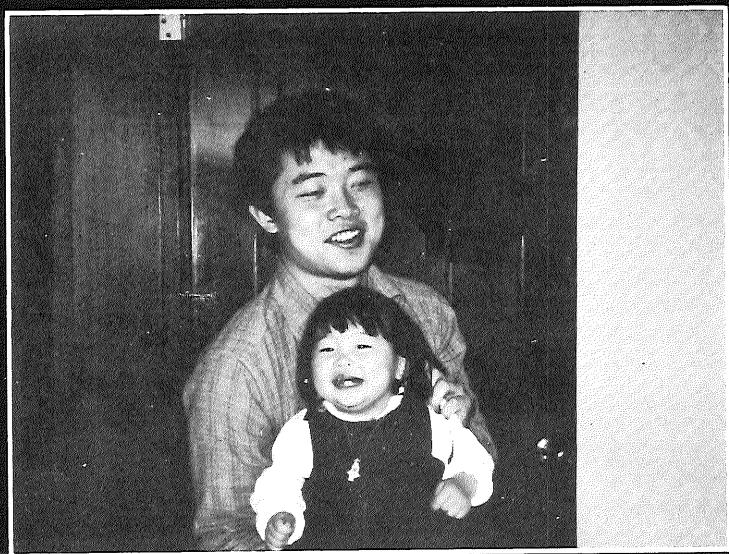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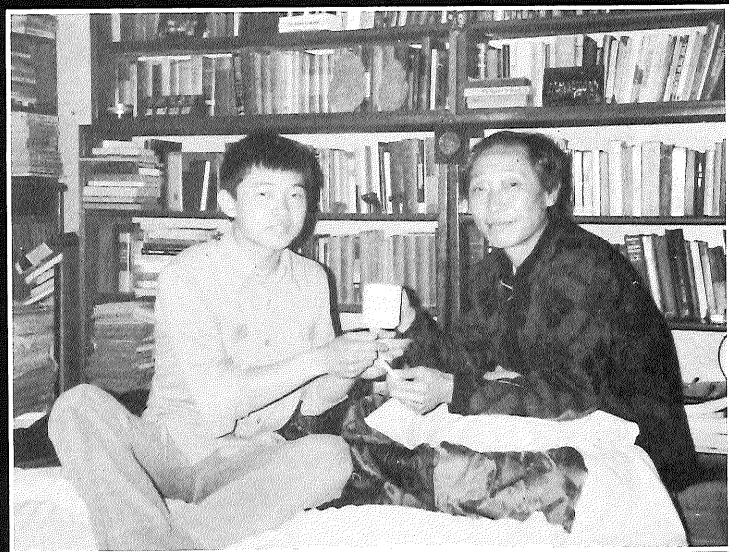
괜히 상관에게 굶신거리지 말기.
잘못한 일 없으면 떳떳히 대해 나갑시다.
할일 다했으면 퇴근해 버려요

인타를 못쳤다고 비판하지 말아요.
농구는 잘할테니까.
사람이 어떻게 모든걸 잘할 수 있어?
필방미인은 성공할 수 없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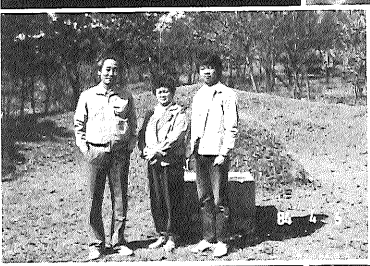
다방에서 합석을 하면 얘기를 겁시다.
상대방도 얘기하길 바라고 있어요.
말걸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유철의 스물두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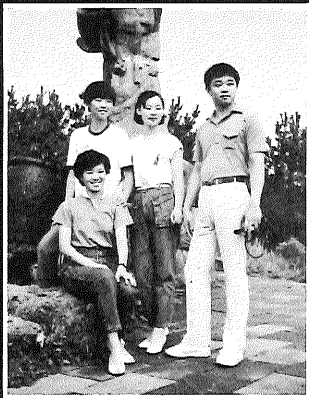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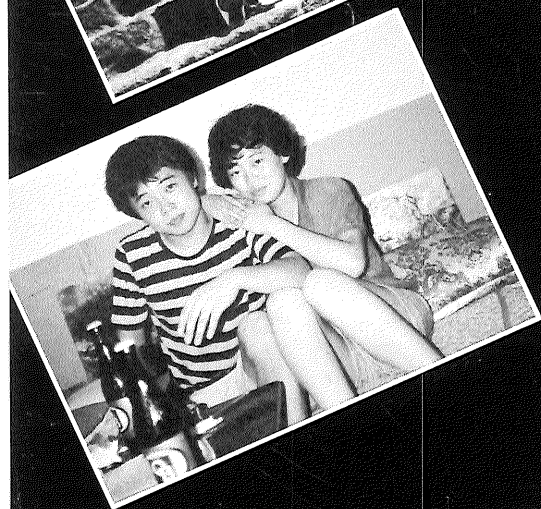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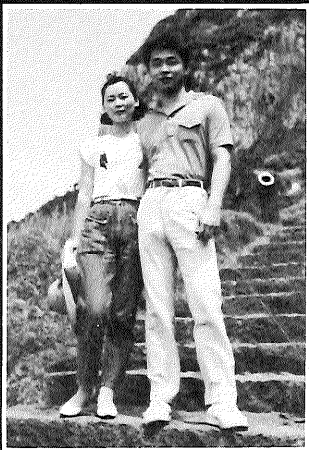
아버지 이근삼교수에
게는 아들 유철이가
자신의 희곡처럼, 자
신의 거울처럼 생각
되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어느새 동등
한 인격체로서 성장
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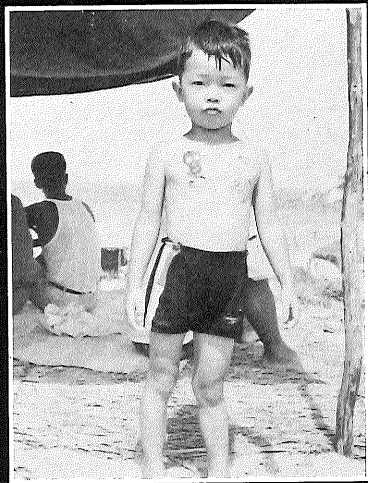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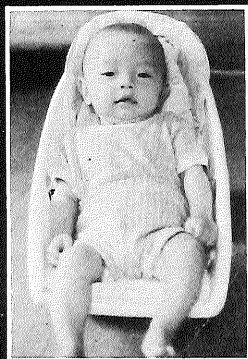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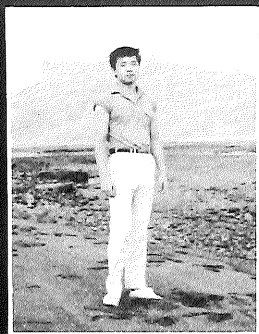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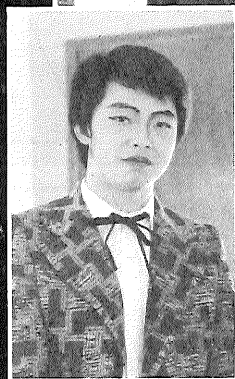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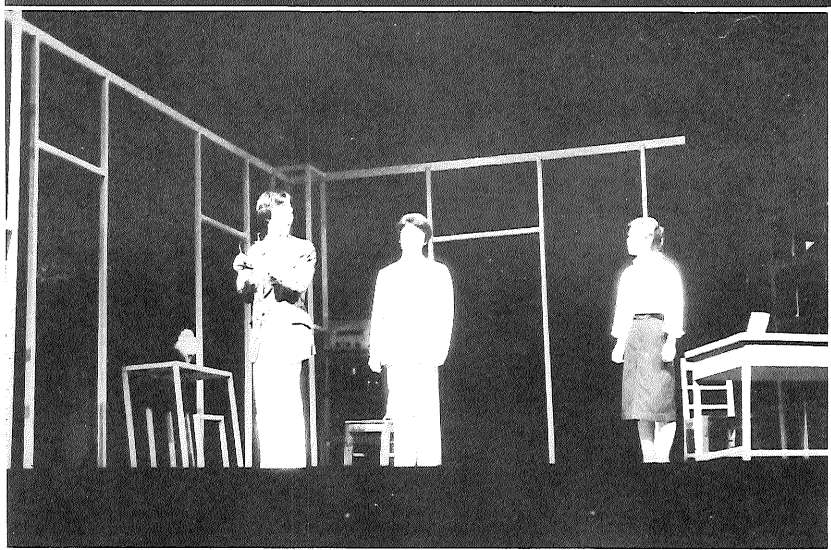
유철은 유리 유원 두 누나와 유정이라는 여동생, 이렇게 4남매였다. 그들 동기간은 유달리 형제애가 두터웠으며, 그 형제애는 어렸을 적보다 성장해 갈수록 더 깊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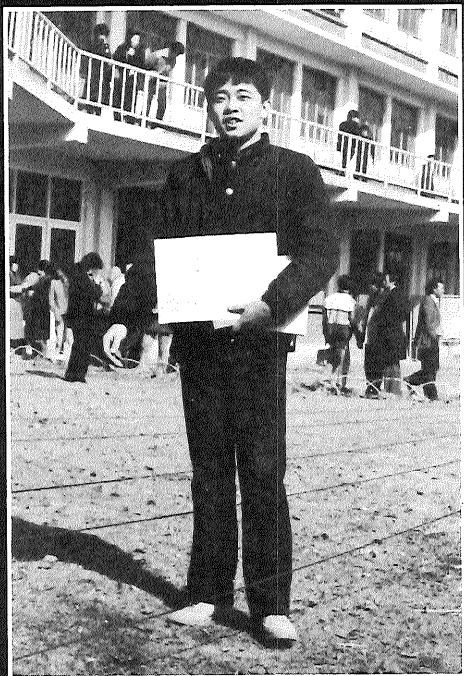
유철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희곡을 썼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아예 연극에 매달렸다. 그리고 「작은신화」라는 극단을 만들어 막 일을 벌이려던 참이었다.





유철은 대학생활의 대부분을 연극연습에 바쳤고 친구들도 연극반원들이 전부였다. 유철은 음악광으로 재즈와 로큰롤에 큰 관심을 기졌으며 특히 레드 제플린의 음악을 좋아했다. 유철이는 검은 작업복을 즐겨 입어 연극반원들은 그를 '검은 고릴라'라고 불렀다.

중고등학교 시절의 유철



가버린 유철이를 그리워 하며

오빠와 같이 한 스무해

李惟貞

나는 언제나 많은 상상을 한다. 거의 같은 상상속에서 나는 멋진 연설을 하기도 하며, 세계를 구원하는 위대한 여성이 되기도 한다. 또, 나이가 들면 한편의 책을 발간하되, 그 내용으로 우리가족의 생활과 오빠와의 새벽까지 이어진 수많은 얘기를 솔직하게 쓸 것이라고 생각해보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만 스물의 나이에 쓰게될 것은 그 많은 상상속에 조급의 자리도 차지하고 있지 않았다. 그저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우며, 이러한 상황을 있게한 오빠가 알미울 뿐이다. 지금은 언제나 처럼 오빠의 장난에 걸려든 느낌이다.

3년1남의 막내인 나는, 11살 7살차이인 언니들 보다는 오빠와 더 가까이 지냈고, 오빠와는 2살이라는 터울마저 없는양 매일을 붙어다녔었다. 물론, 오빠는 하나뿐인 동생을 잘 보살펴주었지만 집안사람들이 보기에 ‘유정이 골병 들겠다’ 싶을 정도로 나를 못살게 괴롭히기도 했다. 6~7살의 겨울에 아버지, 어머니, 오빠와 인천에 간적이 있다. 어느 식당에 들어갔었는데 오빠와 식당 뒤쪽으로 빠져 나와 바닷가를 구경 하기로 했었다. 뒤쪽은 질퍽질퍽한 갯펄로 문을 나서서 곧 저편으로 뛰어가는 오빠를 따라갈 엄두가 나지않았다. 어떻게 가야하느냐고 소리쳐 물어보니, 오빠는 얼마전까지도 빙판길을 걸을때 써먹던 미끄러지지않고 걷는법, 빠지지않고 걷는법을 큰소리로 말해주었다. 바로 ‘한쪽 발을 닫고, 그발이 빠지

기 전에 다른 한쪽 발로 딛어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흙 속에 묻힌 발을 더 빨리 움직이려고 애쓰다가 나는 그만 갯펄에 깊숙히 빠져버리고 말았었다.

아마 다섯살때로 기억되는 나의 가을은 역시 오빠탓이었다. 어머니가 오빠와 내게 똑같이 나누어준 사탕을 다 먹어버린 오빠는 내게 남은 사탕을 달라고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고 반항을 하던 나는 언제나처럼 많이 먹고, 사탕을 빼앗긴채 집을 나와 거리를 울면서 헤매다녔다. 결국 나는 어느 경찰서에서 밤늦게까지 엄마, 아버지를 찾으며 울고있었던 것이다.

오빠와 많이 싸우고 많이 울면서도, 같은 국민학교에 들어간 오빠와 나는 늘상 붙어다녔었다. 오빠의 국민학교 꿈은 시이튼과 같은 동물학자가 되는 것이었다. 집에서 언제나 개와 고양이를 길렀고 가끔은 열대어, 잉꼬, 십자매를 기르기도 하였다. 그외에 비오는 날 주위는 하얀 쥐, 학교앞에서 사은 병아리들, 길 잃은 강아지들을 수없이 길렀었고, 옥상에 풀어놓고 길렀던 4~5마리의 토끼는 시장의 닭집에서 사온 것이었다. 이런 형편이었으니 오빠는 유치원에 가서 하라는 공부는 않고 사육장에만 붙어있다가 5일만에 쫓겨(?)날 수 밖에 없었다. 유치원에서 별 배울 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오빠의 중학교 생활은 보이 스카우트로서 무주구천동에서 열렸던 세계잼버리 대회에 참가했고, 국토순례를 다녀온 것등이 주활동으로 기억된다. 공부도 착실히 하고, 장난도 좋아하고 그러나, 심장때문인지 무척 말라있었다. 이런점에서 오빠의 국토순례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일주일간 남해안을 걸어서만 다닌 오빠는 모두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었다.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4살때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던 오빠는 수술을 하지 않은채 19년을 건강하게 살아갔다.

보성고등학교에 입학한 오빠는 조금씩 운동을 하기 시작해서 체격이 아주 당당해졌다. 오빠는 항상 많은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기타도 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오빠의 친구들은 가끔 집에서 마주치던 나에게 오빠와 똑같이 생겼으며 '판박이' 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학교에서의 오빠 별명이 '고릴라' 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 기분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길에서 처음 보는 남자가 '혹시 유철이 동생이 아닌가?' 를 물어볼 정도여서 오빠와 닮은 것을 시인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오빠가 고1때 썼던 <심청전>이라는 희곡을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내가 학급에서의 송년회때 공연을 하여 호평(?)을 받았던 사실이다.

오빠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오빠는 술을 자주 마시기 시작했고 얼

마 지나지 않아 술 예찬론자가 되어있었다. 후에야 들었지만, 대학교 1학년 때의 오빠 취미생활은 술마시고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것이라고 하였다.

서강연극회에 입회한 후로 오빠의 생활은 크게 바뀌어졌다. 극회에 강한 애착을 가지며 늘상 극회 친구들을 자랑하였었다. 오빠가 출연한 <우리는 뉴 헤이븐을 폭격했다.>와 <파르튀프>의 공연을 보러가면 오빠는 연극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나를 끼워주었고 2 차로 돌아서만 소주잔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연극에 발을 붙이기 시작한 오빠의 경제학 공부는 특이했다. 사무엘슨의 경제이론을 배울때면 안티-사무엘슨 이론의 서적을 읽는등 거의 반대의 이론들을 더 열심히 공부했었다. 그래서 당연히 성적은 좋지않았다.

오빠와의 대화는 주로 새벽의 포장마차집에서 하곤했다. 꼴뚜기 안주에 소주를 마시며-물론 술은 모두 오빠차지였지만...-함께 본 공연이나, 연극평론등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심장질환으로 군대에 못가게 된 오빠는 신검을 받았던 그하기에 많은 고민을 하며 조용하게 지냈다. 그리고 그 후에 연극을 업으로 삼기로 작정하고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오빠는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많은 연극인들을 만나고 있었고, 관객을 위한 사회의식이 반영된 연극의 실행을 주장하였다. 그러는 동안 오빠는 서강연극회에서 나와 곧 자신의 확고한 생각을 실행하기 위한 공연단체의 조직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오빠는 86년 5월, 학교앞에 방을 얻어 근 6개월동안 집에서 나가 산적이 있었다. 물사정도 별로 안좋은 데도 5층 건물 옥상의 방에서, 오빠는 나름대로 만족한 생활을 하였던 것 같다.

그 여름의 어느날 오빠가 나를 불러내었다. 가끔 오빠방에 가서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오기도 했던 나로서는 뜻밖의 호출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극회의 구성을 위한 모임에 동생을 참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낮익은 오빠의 연극반 친구들과 앉아서 극회조직을 얘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인원내 대해 꽤 오랜시간을 얘기했었다. 그후에 오빠방에 가면, 혹은 오빠를 찾아 근처 술집을 기웃거리면, 처음보는 많은 사람들과 연극얘기를 열띠게하고 있는 오빠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작은신화」라는 이름도 정해지고, 어느정도 극회가 제 면모를 갖추게 되자 오빠는 집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입주(?) 하겠다고 하였다. 그 사무실은 「T·B·S」라는 청년연합방송국에 속해있던 내가 보증금 없이 빌려 사용하고 있던 낡은 이층집이었다. 오빠는 그집의 한 방을 거주지로 삼았고, 오빠와 나는 한 사무실에 출근(?)하게 되었다.

가끔 힘든 일이 있을때 오빠의 사무실을 두들겨 당장 오빠에게 위로받기도 하고,

함께 집에 오기도 하고, 오빠의 극회 사람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기도 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오빠는, 별로 자랑할 것 없는 동생을 언제나 오빠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었고, 그것이 이제와서는 내게 큰 힘이 되어준다.

오빠는 극회의 첫번째 카페 순회공연을 성공리에 마치고 두번째 작품의 연출로 연습을 하던 중 오빠의 ‘작은신화’도 못다 만들고……가버렸다.

2월 3일은 나의 스무번째 생일이었다. 언제나 처럼 오빠와 나는 사무실에 있었고 나는 생일파티를, 오빠는 극회원들과 연습을 하고 있었다.

오빠와 밤 9시경에 크게 싸웠다. 자주 말다툼을 하였지만, 그날처럼 울면서 싸운일은 참으로 오랫동안이었다. 오빠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다시는 오빠 얼굴 보지도 않을거야’였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가 되어버렸다.

2월 4일 새벽 5시쯤 언니가 나를 깨웠다. 부들부들 떨며 경찰서에서 연락은 것을 얘기해 주었다. ‘사망’이라는 소식을.

아버지, 어머니와 마포경찰서로 나갔고 곧 고려병원 영안실에 도착하였다. 오빠의 죽음은 확인되었지만, 믿을 수 없었다. 그때까지도 오빠의 몸은 따뜻했던 것이다. 웃음이 어린 얼굴로 누워있는 오빠는 곧 일어나 그 특유의 웃음을 지어보일 것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상주도 없는 빈소에 왔다갔다. 나는 무엇을 해야될지는 몰랐지만 그저 오빠를 지켜야된다는 생각으로 그곳에 앉아있었다. 오빠 친구들의 도움으로 영결식, 화장등이 수월하게 끝났다. 나로서는 수월한 절차가 아니었지만, 오빠의 영정은 어머니가 다니시던 암자에 모셔졌다. 모든 종교를 비판하였지만 불교만은 한번도 불신하지 않았던 오빠였기에 그곳에 모셔두는 것이 마음이 편하였다.

오빠의 마지막 가는 길이 쓸쓸하지 않도록 함께 자리를 지켜준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20년을 오빠와 함께 즐겁게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하늘에 진실로 감사를 드린다. 아마도 오빠는 이렇게 일찍 가려고 나에게 많은 추억을 남겨주었나 보다.

이제는, 든든한 오빠가 없으니 비오는 새벽에 거리를 활보할 수도 없고, 포장마차의 소주는 맛보기 힘들테고, 늦은밤에 함께 마시던 커피도 즐길 수 없으리라. 그러나, 매일 대본과 씨름하며 밤을 새우던 오빠가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다면 그 런일로 투정을 부리지는 않겠다.

오빠야, 이 동생이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지켜봐줘. 오빠는 안 믿으려 하겠지만 난, 자신 있어, 약속해. 괜히 그곳에서도 연극한다고 바쁘게 돌아다니지 말고 편히 쉬라구. 그럼 오늘밤도 잘자.

안녕, 오빠야

너의 영혼 가는 그 길따라

朴正瑛

서강연극회 동기. 극회 작은신화 창회동기

1987년 2월4일. 엇그제 내린 폭설의 잔해가 여기저기 거리의 빈 곳을 메우고 있었다. 처음으로 전화를 통해 들어본 『고려병원 영안실』 그곳에 헤어지진 10시간도 채 안된 유철이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은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둔 만남도, 목청 높여 연극연습을 하기 위한 만남도 아니었다. 생과 死의 운명이 이미 돌아 앉은 후에 이루어진 만남이었다.

사진도 채 놓여있지 않은 상침에는 향로와 촛불 두 개만이 텅빈 빈소를 지키고 있었다. 밖은 이제 막 삶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이곳은 온통 절망 뿐이었다.

11시에 사진이 놓이게 되고, 순진무구하게 똑바로 눈을 쳐뜬 유철이의 모습에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려 버렸다. 그 어디에도 죽음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는 환한 웃음이기에 ….

사망시간은 새벽 3시. 자신이 직접 운전한 검은색 대우 로얄살롱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등과 경비초소를 들이박으면서 생긴 사고였다. 사망원인은 좌우폐파열. 마포경찰서에서 집으로 연락을 취한 것은 새벽 5시가 넘은 시간. 부모님과 동생 유정이가 병원으로 달려가 시신을 확인하였다. 연락을 받고 찾아온 큰매형, 큰누님, 그리고 작은누님이 오시고 큰아버님 큰어머님, 사촌형, 이모님들이 오셨다. “내가 가야지, 짧은 네가 왜 가느냐”며 당신보다 먼저 간 아들의 불효를 원망하시는 아버님의 눈물이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대학 친구와 고교 친구, 극회

「작은신화」의 회원들, 「서강연극회」의 동기 및 선후배 등 그렇게도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던 유철이가 알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몰려 왔다. 모두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믿기지 않은 듯 멍해 있었고 굳게 빗장을 잠그고 돌아선 운명의 비정함에 어쩔 수 없어 안타까워했다. 밤에는 뒤늦게 알고 많은 연극계 선배들이 찾아 오셨다. 대학선배이자 「민중」극단 연출인 정진수씨와 민중극단 단원들, 「민예」극단, 극단「가고」, 극단「자유」, 「실험」극단, 윤문식씨, 윤주상씨, 권성덕씨, 박정자씨, 박봉서씨, 김진택씨, 도윤주씨, 김시라씨, 많은 연극인들과 평소 그렇게 참여하고 인정받고 싶어했던 연극계의 많은 인사들, 연극협회 이사장 김의경씨, 펜클럽 회장 전숙희씨, 동아언론연구소, 한국연극지 주간 김재형씨 그리고 서강대학교 총장 서인석박사를 비롯한 서강대학교 교수님들, 서강대학원생들도 오셨다. 그 많은 조문객과 그들이 보낸 화환을 보면서 생각했다. ‘유철이는 성미도 급하구나, 일일이 찾아가 만나도 몇 년이 걸릴 사람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불러 모을 수 있으니’ 하고 말이다.

환풍기의 돌아가는 소리만이 을씨년스러운 빈소에서 유철이가 없는 하루를 보냈다. 큰매형, 작은매형, 유정, 고교 친구, 대학 친구와 「작은신화」 회원 그리고 서강대 신방과 대학원생들이 남아 밤샘을 했다. 기발한 장난과 낙천적 웃음으로 회중을 끌어모으는 힘을 가졌던 그인지라 그 밤의 친구들의 모임은 어딘가 맥이 풀려 있었다. 이제는 그 어느 모임에도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으리라는 생각에 눈을 감아버렸다.

입관일. 화장(火葬)을 결정하고 그 혼백을 평소 어머니를 따라 몇 번 갔던 적이 있는 수유리의 삼성암에 모시기로 했다. 강물에 흘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것보다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산이 차라리 낫겠다 싶다는 생각이 들자 작은 한숨이 나왔다. 옆 상가에서 흘러나오는 목탁소리가 빈 마음을 울리면서 들리자 생전에 신(神)과 종교를 가지고 열을 올리며 토론하던 것이 생각이 난다. 지독히도 인간적이었던 유철. 자기 자신만을 믿는다는 무신론을 주장하던 그. 혹시 그곳에서도 높으신 신들께 도전장을 청하지는 않을까?

분주히 장의사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관이 옮겨 왔다. 아! 드디어 입관이구나. 삼베옷에 꽃분홍 꽃신을 곱게 신고 있는 모습의 마지막 얼굴을 보았다. 굳게 다문 입술, 편한 듯 깊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감히 가서 흔들어 깨울 수 없는 경건함마저 들었다. “유철아, 이 불쌍한 것아! 일어나봐” 억지로 냉정을 찾던 큰누님이 유철의 얼굴을 감싸고 오열을 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부정하고 싶었다. 자고있는 것 같았다. 아주 깊이 단잠을 자고 얼마후에 꼭 일어나 환하게 웃을 것 같았다. 그러나 죽음의 문은 닫히고 쿡은 못은 박혀졌다. 그래 편하게 자라 누구도 널 깨울 수 없게

지켜줄테니, 며칠째 따뜻한 기운이 돌던 날씨도 갑자기 얼어붙어 강풍이 불었다. 마지막 유철과의 밤. 친구들은 모두 그 마지막을 놓치지 않으려 찾아 들었고 밤이 깊어 가는 줄 모르고 그의 이야기를 했다. 유철도 친구와 친척들의 목소리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큰 귀를 쫓긋 세워 들었겠지.

꿈을 꾸었다. 커다란 가죽 가방을 들고 웃으면서 성큼 성큼 돌아서 가는 유철에게 무슨 말을 마구 했었다. 그렇게 갔겠지, 웃으면서. 새벽의 미명이 아직 깨지 않은 병원 뒷마당을 말끔히 쓸었다. 영결식의 순서를 다시 의논하고 이것 저것 사놓고, 상을 준비하고 초를 준비하고, “유철아, 우리가 서둘러 성대하지는 못하더라도 성의껏 너를 보내줄게.” 한아름 국화꽃이 오는 것을 끝으로 준비가 마쳐졌다. 오전 9시. 친구들에 의해 관이 옮겨지고 유정이가 유철의 영정을 들고 앞섰다. 고교 친구 김진욱군에 의해 약력이 소개되고 대학 친구 최용훈군이 고별사를 낭독했다. 채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유철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모인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마당 끝까지 퍼져 갔다. 그가 평소 즐겨 부르던 「작은신화」의 첫번째 공연 〈결혼〉의 주제가가 불러지고 이어 그의 관위에 한송이한송이 꽃이 놓여졌다. 그렇게 작고 조출하게 영결식을 마치고 차에 오른 시간은 10시. 차는 유철이가 다니던 노고산으로 달렸다.

그가 다녔던 캠퍼스, 강의실, 써클실, 그리고 그가 공연을 가졌던 대학극장을 돌았다. “유철아, 이곳을 잊지마라.” 한 곳 한 곳 그를 추억하면서 차는 서서히 벽제로 향했다.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던가? 그러나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기에 너무나 애통하고 아까운 人生. 버려진 개구리의 시체가 가엾다고 큰 눈을 껌뻑이던 유철. 그는 이제 이 곳 어디에도 없다. 그 한 몸 소유할 땅 한 치도 가지지 못한 채 공기속으로 날아가 버렸다. 작은 나무상자에 담겨 나온 유철이를 보는 순간 울음을 참았던 용훈과 유정이 엉엉 울어버렸다. 그 큰 몸이 담겨지기에 너무나 작은 상자이기에.

“산을 오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가. 올라갔다 내려올 것을 왜 힘들게 오르지?” 하면서 유난히 산에 오르기 싫어하던 유철을 산으로 옮겼다. 얼음이 쫑쫑 언 화계사 계곡에 유별스럽게 바람이 불었다. 삼성암이 마주 보이는 비탈 언덕에 어머니 누나 매형, 동생 유정 그리고 대일, 용훈을 비롯한 친구들이 유철이를 뿌렸다. 흰 눈에 곱게 뿌렸다. 체온과도 같은 은기가 전해지면서 유철이의 체취가 느껴졌다. 그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 왜 이런 일을 만나야 할까, 유철이는 정말 이렇게 손에 담겨있는 이 재가 되었다는 것인가? “유철아! 유철아!” 아들의 뼈가루를 뿌리시며 통곡을 하시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온 산을 메아리쳤다. 이제 정말 갔구나. 분자처럼, 저 헛

빛의 입자처럼 작고 아름다운 몸이 되어 정말 가벼웠구나. 잘 가거라 유철아!

3시 넘게 불당에서 의식이 거행되고 산을 내려올 때는 모두가 지쳐있었다. 유철이를 두고 내려오는 발길이 자꾸 휘청거렸다. “그곳이 어디였던가, 저 나무를 지나 있었지. 이 길은 이쪽으로 났고 ….” 유철이의 새 집이 된 그 곳을 머리속에 집어넣기 위해 자꾸만 산을 뒤돌아 보았다. 산새와 나무들과 여름이 되면 활짝 필 꽃들이 유철의 새로운 친구가 되어 주겠지. 매일 티격태격했던 우리보다야 훨씬 좋은 친구가 될거야. 유철아, 너를 잊지 않오마. 영원히 너의 영혼 남아 다시 우리가 만날 때까지. 그때 우리 마음놓고 술 한 잔 하자구나.

— 씨씨에게주 —

이 세상의 삶이 빨리 오기를

두근거리듯 가슴으로 기원한다.

지구가 두동강이 나

안쪽속을 떠도는 한낱 돌조각이 되길

밤 얼리는 마음으로 기원한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의문적없는

그런날 그런곳

그때 그곳이 이승이던 저승이던

안쪽속이던 밖은곳이던

저희와 눈이 맞는 영혼의 세계가 오면

(수사) 손때이며 눈 기다린다.

澈

캠퍼스의 두 어릿광대

崔容勳

서강연극회 동기. 극회 작은신화 참회동기.
서강대 철학과 재학중

주위의 모든 감정에 충실할 수 있다는 지금의 나에게 일종의 당혹감이 느껴진다. 이럴수 있는 것일까? 하지만 하루에도 여러번씩 찾아드는 허전함 속에는 여전히 그의 영상이 스미고 있음을 나는 느낀다.

이 유철.

나는 영원히 그를 잊지 못할 것이다. 아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83년 봄, 서강대학교에 갓 입학하여 「서강연극회」에 입회했을 때였다. 우리는 처음부터 너무도 많은 공통점을 지녔었다. 스텝으로 연극회 활동을 시작한 것부터 그랬다. 당시 「서강연극회」의 41회 정기공연인 〈젊음이란 계절은...〉에는 많은 배우가 필요했기 때문에 1학년들도 대거 캐스팅이 될 수 있었다. 1학년 동기들 중에서 캐스팅이 안된 것은 우리 뿐이었다. 그때 부터 한 학기, 우리는 스텝으로서 눈부신(?) 활약을 보였고, 급격히 친해져 갔다. 빵사 오기, 담배 심부름, 망치질, 톱질, 포스터 붙이기, 티켓 돌리기등등... 힘들고 표시도 안나는 일들이었지만, 우리는 연극에의 정열로서 그 모든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매일같이 연습을 지켜보았음은 물론이다. 술 마시기, 돼지처럼 많이 먹기, 농담하기, 장난치기, 선배 골리기등등...; 우리가 가진 공통점은 그밖에도 수없이 많았지만, 우리를 가장 가깝게 만들어준 것은 바로 '연극에 대한 순수한 정열'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이었다.

83년 가을 「서강연극회」 42회 정기공연인 〈우리는 뉴헤븐을 폭격했다〉로 우리는 동시에 배우로 데뷔하게 된다. 유철이는 ‘베일리 상병’이란 조금은 비중있는 조역을 맡았고, 나는 ‘수렵가’란 단역을 맡게 되었다. 여름방학 내내 계속된 연습에 유난히 더위를 잘타던 우리는 곤욕을 치렀지만 배우라는 매력에 끌려 힘든 것도 잊어 버리고는 연습에 열중하였다. 드디어 막은 올라가고…: 우리는 이 공연을 통해 어느 정도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유철이의 희극적 재능과 함께 나의 연기력도 어느날 공연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당시 연출겸 배우였던 이규태 형이 유철이와의 대사를 왕창 까먹고 넘어간 적이 있었다. 공연이 끝난 후 규태 형이 유철이에게 미안하다며 씩 웃어보이자, 유철이가 한참 눈을 껌뻑거리다가 하는 말이 걸작이었다. “형, 대사 까먹었었어?” 유철이는 정말 몰랐던 것이다.

84년초에 나는 〈밭줄〉이라는 작품으로 대구 지방공연을 내려가게 되었다. 유철이는 그 공연에 참여하지 못했었고, 그바람에 한달 정도 유철이를 만나지 못했었다. 그후 우리는 84년 신입생 환영공연인 〈결혼소동〉에서 다시 배우로서 같이 공연하게 된다. 그때 유철이는 ‘카차레프’라는 주연급을 맡았었고, 나는 ‘세바킨’이라는 조연급을 맡았었다. 희극인 그 공연에서 우리는 다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었다.

84년 봄은 우리가 〈서강연극회〉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인 때였다. 43회 정기공연인 〈겨울사람들〉에서 유철이는 기획과 배우로, 나는 주연배우로 발탁되었던 것이다. 그때 우리는 지겨우리만치 같이 붙어 다녔다. 하루의 절반정도는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었을 정도였으니, 또한 들이서 가장 술을 많이 마셨던 것도. 우리는 술 집으로 직행했다. 1차, 2차, 3차…; 이렇게해서 보통 새벽 2~3시를 넘기기 일쑤였다. 유철이에게는 나에게 없는 점이 있었고 나에게 유철이에게 모자라는 점이 있었다. 이것이 또한 우리를 함께 묶어놓는 튼튼한 연결쇠였던 것이다.

85년 봄, 한학기 동안 보컬 활동을 한다며 연극회를 떠나 있던 유철이가(따르뽀프)의 타이틀 롤을 맡게 되었다. 그때 유철이의 기뻐하던 모습과 연습에 열중하던 모습이 눈에 떠 오른다. 유철이의 상대역을 맡게된 것은 바로 나였고 그밖의 주요 캐스트들은 대부분이 동기였기 때문에 배우들간의 호흡이 아주 잘 맞아떨어졌었다. 특히 유철이와 나는 말할 것도 없었다. 작품, 전체의 흐름은 난잡했지만 배우들의 연기와 앙상블은 훌륭히 이루어진 공연이었다. 특히 유철이는 천성에 어울리는(?) 적역이라는 평이었다.

85년 봄의 〈외터란트 백작〉. 그 공연이 「서강연극회」에서 유철이와 같이 공연한 마지막 작품이었다. 그후 유철이는 스스로의 연극관을 고집하면서 연극회와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의 연극관에 대해 많은 논쟁을 벌였다. 유철

이는 무대위에서의 다양하고 참신한 볼거리의 제공과 어두운 현실을 웃음으로 풀어가는 동적인 이미지를 제시하였고 나는 좀 더 내면적인 언어적 표현과 사회의 압당한 현실상황에 대한 직접적 인식과 제시를 주장하였다. 유철이가 행동과 웃음을 주장하면 난 언어와 절제를 내세웠던 것이다.

86년 봄, 내가 〈사계절의 사나이〉를 연출할 때의 일이다. 당시 「서강연극회」의 배우사정은 극히 악화되어 있었다. 어느정도 연습기간이 흘러 캐스팅을 하루 앞둔 어느날 연습시간에 유철이가 나타났다. 지금의 배우상황으로는 도저히 공연을 잘 올릴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이 배우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고마웠다. 그러나 나는 거절할 수 밖에 없었다. 유철이와 나와서 차이점이 잘드러나는 사건이었다. 물론 유철이가 참여하면 훨씬 나아질 상황이었지만, 모자라기는해도 그때까지의 팀워크를 깰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전체적 앙상블을 위해서였다. 유철이는 내 생각을 충분히 이해해 주었고 나도 유철이의 생각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만큼 우리는 서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천방지축, 자유롭게 퍼지는 유철의 성격과 외곬수로 깊이 파고드는 나의 성격은 잦은 충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극단으로부터 끌어내 주었다. 우리는 서로 이해하면서도 비난하였고, 흠모하면서도 견제하였다.

이 유철

무대에서도, 술집에서도, 나의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다. 하지만 난 그 빈자리에서 오히려 그를 느낀다.

나는 영원히 그를 잊지 못할 것이다. 아니 잊을 수 없는 것이다.

목련꽃 피는 교정에서

조창남

유철의 보성고교 은사. 고교 1학년때의 담임

1980년 3월 2일, 8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학(私學)의 명문 보성고에 교복을 단정히 입은 까까머리 학생들이 입학식을 올렸다.

그 당시 나도 교직생활 15년에 즐곤 운동부만 맡다가 처음으로 담임 배정을 1학년 11반으로 받았다. 여기서부터 고 이유철군과 나의 인연은 시작된다. 우리반은 간송 전형필 선생 동상 뒤쪽이고, 봄이면 맨먼저 눈이 시리도록, 보성의 교화인 목련이 핀다. 그리고 얼마있다가 목련꽃잎은 눈송이처럼 봄바람에 날려 1-11 교실 창문에 떨어지곤 했다. 유철이는 그 옆 창가에 앉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도 그 교실에 가면 그때 제자들이 앉았던 자리들을 거의 기억할 수 있다.

유철군은 항상 공부벌레들과 장난꾸러기들의 중간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 당시 보성고의 자칭 독보적 존재(?) 최강원, 공부만 하고 착실한 김진욱, 환쟁이(미술) 상을 독차지한 전대일, 핸드볼 시험 때 겁쟁이(명 수문장) 등등.... 여러 학생들과 난 3월부터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일명「싸 데기」와 「돌」들의 행진이 시작된 것이다.

유철이는 키가 중(中) 정도였고, 조용한 성격이었다. 학업성적도 상위에 속하였고 처음엔 별 말이 없었다.

우리반은 전체에서 1등도 몇번 했고, 명랑·쾌활했고 모범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1학년을 끝내면서 유일하게 우리반만 강원이, 유철이, 덕표 등이 중심이 되어 교실

에서 밴드 파티를 열어 학생들의 부러움을 산 일도 있었다. 그후 구르는 돌들은 2학년에 진급하면서 전부 헤어졌다.

나는 유철이가 3학년이 되었을 때 유철이를 체육시간에 또 가르쳤다. 그는 1학년 때와는 많이 달라졌었고, 명랑·쾌활한 성격으로 변했으며 체격도 좋아졌고, 별명도 '고릴라'로 통했다. 3학년의 문제아들도 유철의 말이라면 잘 호응해 주는 것 같았다.

그후 그는 대학에 진학했고, 「연극」을 한답시고 초대권을 보내오곤 했다. 그는 동창들과 우리집에 자주 왔다가 인생론을 펼치고 언젠가 필름 한통을 다 찍은 영터리 사진사가 되어 혼란 일도 있다. 나 자신도 제자들의 성장이 눈에 보여 대견스러웠다. 또한 유철이는 후배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 후배들이 유철이의 끈질긴 면(?)에 감탄을 하곤 했다.

지난 신정에 유철이와 친구들이 우리집에 모여 소주를 제법 마시고 또 찾아뵙겠다고 하면서 겨울바람이 이는 모퉁이를 돌아들 갔다. 그것이 나와 유철이의 마지막이 될 줄이야. 먼 훗날 내가 죽으면 자기가 와서 소주잔을 올리겠다고던 유철이는 부모 형제를 두고, 친구 두고 왜 먼저 가는가? 유철아, 이 구르는 돌아! 싸데기의 제자야.

영원의 세계에서 편안히 쉬거라.

우리는 언제나 모일 때마다 너를 기억할 것이다.

너의 사진을 보면 울컥 치미는 나의 마음을 넌 아느냐?

어느날의 우리일기

윤주상

연극배우. 민중극단 소속.

어느해 겨울이라고 생각된다.

늘 그랬던 것처럼 공연이 끝나고 술자리(예술인주막)가 벌어져 늦게 귀가하게 되었다. 나는 선생님택과 같은 방향이어서 택시를 잡아드린다고는 아니면서 모셔다 드린다는 명분으로 항상 같이 자리를 일어서게 되는데 그날도 예외없이 장위동택까지 가서는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돌아서서 집으로 오려고 했다. 비교적 어느 술좌석 이긴 일찍 자리잡고 늦게 일어나는 버릇이 있는지라 아직 남아서 술을 마시고 있을 그곳 분위기가 궁금하기도하고 아직 취하기엔 좀 먼 것도 같아서 아쉬운 판국인데 설마 그냥 보내시지야 않겠지 한잔 더 하자고 하시겠지 하고 속으로 기대하면서 돌아서는 척 하는데 예외없이 반가운 말씀이 등 뒤에서 들려온다. “야야 너 오디가니?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갈까? 야 들어오라우”

이렇게 늘 정식코스처럼 되어서 마지막 술좌석은 선생님택에서 시작되고 끝나게 마련이다. 늦은 시간을 이랑곳 하지 않으시고 안으로 들어서시면서 유철이 방문을 여시고 “야 노 좋아하는 주상이 와서, 윤주상이 왔다우!” 하시며 크게 외치신다. 그러면 가뜩이나 늦은시간이라서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몰라 찢찢매다시피 발끝으로 기다란 키에 소리를 죽여가며 어울리지 않는 품으로 선생님뒤를 졸졸따라가다 “아이쿠” 산통 다 깨시는구나 하고 빨간얼굴이 더 빨개지면서 아예 포기하고 뻔뻔스럽게 태연한척 하면 선생님께서는 은집안식구 다 깨우시고 “야 윤주상이

왔다우 뭐좀 가져와.”

그때부터 막차술이 시작되면 응접실이나 유철이의방에서 동이틀무렵까지이야기로 꽃을 피우게 된다. 이러한 사이에 어느덧 유철이와는 또다른 대화의 세계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얼마간의 해가 바뀌면서 이젠 본격적으로 연극에 몰두하고 그를 만들고 작품을 발표하며 유철이는 창조적인 활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날도 선생님께서는 조니워카를 한병가지고 유철이의 방으로 오셔서 셋이서 연극에 대한 이야기, 극단에 여러가지 문제들 그리고 유철이에 대한 얘기가 화제가 되어 날새는 줄 모르고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선생님께서는 “야야 나 원고 한장만 더 쓰고”하시면서 잠시 자리를 떠셨다 다시오시고 그렇게 거듭 몇번을 하시더니 유철이의 방을 휘 둘러보시면서 “야야 윤주상이,이게 경제학하는 학생 방인가? 이게 다 뭐인가? 응 이게말야.”벽에는 빈틈이 없을 만큼 온통 연극포스터로 도배가 되어있고 책상위에는 경제학에 관한 서적보다는 연극에 관계된 책이 더 많이 쌓여있고 점차 책장안을 연극서적이 메워감을 볼수 있었다. 언젠가 몇가지 불만찬 책이라고 생각된 책 목록을 일러준 적이 있는데 그날 책상위엔 그책들이 펼쳐져 있어서 지적(知的) 훈련에 도움이 될상싶은 책 몇권을 더 소개해준 일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야야 윤주상이가 유철이 다 버려왔다우. 나 너 개보구 무슨책 읽으라구 일러줬어? 너 책 읽지라우”하시면서 즐거움반 걱정반 섞인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날은 갑자기 자고가라는 말씀대신 술병마개를 찾아 막으시더니 병을 번쩍들어 가슴에 안겨주시면서 “느들 둘이다 나가라우. 이거 가지고 어데 장소 좋은데 가서 마시라우”하시면서 쫓다시피 밖으로 내 모시고는 선생님은 방으로 들어가셨다. 우리는 갑자기 영겁결에 술병을 안고 대문밖으로 나오긴 했는데 막상 새벽 4시에 어디문을 연술집이 있을까 싶어 막연하기도 하구 어물쩍하게 잠시 서 있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서 있을 수도 없고 해서 그때부터 문을 연술집 찾는 수색작업이 벌어지고 유철이가 이내 “저기 한집 있습니다”해서 보니까 조니워카를 마실만한 분위기는 못되는것 같고하여 더 먼곳까지 뒤지기 시작했다. 현대 그 문을 연집 찾는 고시간을 못참아서 골목길을 다니면서 잔없이 주거나 받거나 한모금 한모금 마시다 술병을 보니까 반병도 채 못남게 되었고 들이는 어떤 골목길에 쭈그리고 앉아서 연극이 어땡고 작품이 어땡고 떠들다가 창문길에 면한 어느집 방에서 “여보 잡시다. 자! 잠잠자자구”하고 팩 소리를 치는통에 “저소리가 더큰데”하며 빙그레 웃고는“저기 한집 있는데요” 하고 유철이가 먼저 뛰어갔다. 관공에만 불이켜져있는 오비베어 집을 두들겨서 깨워가지고는 조니워카를 신문지로 잘 싸서 스탠드바 탁자위에 잘 모셔놓고 분위기와 시간이 그렇기도(?)하고해서 주종을 바꿔 마시자고 하고 6시가 넘어서까지 생맥주를 마셨다. 유철이는 신주단지 모시듯 잘 모셔놓은 「조니는

슬리퍼 신고 골목길 다니면서 마시느니 보다는 「워키」신고 긴 도보여행을 하면서 마시자고 하며 언제 야외에 같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슬은 그럴듯한 분위기를 살려서 그럼 그때 같이 마시자 하고는 아마도 6시가 넘어서야 그집을 나와서 헤어진 것이다.

86년이 거의 다 저문 어느날 계절에 걸맞지않게 비가 내렸고 질척거리는 명륜동 시장통에서 자정이 넘는 시간에 유철이 사단과 마주쳐 열기에 찬 대화를 하던중 그 신주단지 같은 「조니」는 아직도 잘 있는가 하며 그때 그시간을 이야기 하곤 일동이 함께 웃곤 했는데 그술병은 임자를 잃고 아직도 먼지를 뒤집어쓴채 테이블 한구석에 자리를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86년이 꽤나 의미있는 해가되어 영광스런 일도 여러번 생기고 총각을 면할 계획이 차근 차근 진행되던중 결혼식 4일전에 정진수선생님으로부터 비보를 듣고 망연하게 테이블위 유철이가 가져다준 꽃장식한 소주병과 조니워카병을 보며 소매를 적셨다.

나는 그간 참으로 수도 없는 얼굴들을 만났고 수도 없는 얼굴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현대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여러모습들의 만남이 결코 다 기억되어질 수 없는데, 결코 긴 시간의 만남이 아니지만 내가슴에 깊게 그모습이 새겨져 있음은 어쩔일인지, 오늘도 우리들(연극인) 대화속에 늘 살아있는 유철은 옆에 없지만 그의 참다운 총명한 뜻이 늘 나태하기 쉬운 내 앞에 각성의 거울로 나타나곤한다.

새록새록 대화가 가능하리만큼 그가 내 주위를 떠나지 않음에 나도 그가 결코 멀리 떠나갔다고 생각지 않는다.

결국 식당에서도 그가 생전에 나에게 약속했던 그들 또래의 축가가 불려지지 않았지만 노래를 들은 것만큼이나 정다운 얼굴들의 따뜻한 대화가 노래되어 긴 여운을 남겼다. 어제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오늘 늦은출발을 하는 나의 결혼식장에 주례로 단상에 서신 이 선생님께서도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초인적 위대함을 발견하고 그 엄청난 힘에 더불어 어떠한 시련이라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커다란 희망을 우리 두사람에게 심어 주셨다. 우리를 자식처럼 사랑하시는 자상한 선생님께 엎드려 감사의 절을 올린다.

전혀 길들여진 적이 없는 고삐없는 망아지가 행여 선생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우나 범하지 않는지 조심스러워지고 대단한 표현을 했다고 칭찬들은 날만이 선생님의 마음이 편안하시고 유철이에게도 나의 진정한 뜻을 전하여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훌륭한 연극이 되게끔 대본과 싸우며 늘 만나던날(공연첫날)그를 틀림없이 만나리라 믿으면서 기다린다.

유철아 안녕. 편안히 그날까지 안녕.

유철, 보게나

김용호

대학선배. 서강대 신방과 박사과정.

유철이, 그 쪽 세계에서 그간 잘 있었나? 큰 눈 온지 얼마 안된 후의 황천행이라 꽤 추웠으리라 생각하네. 하지만 육체를 놔두고 간 길이라 여기 남아있는 사람만큼 춥지는 않았겠지.

그날도 역시 새벽전화였네. 불길하다는 새벽전화 말일세, 얼마전 택시사고로 돌아가신 매형의 부음도 새벽전화를 받고 알았지. 먼동 트는 새벽은 생과 죽음의 교차길인지도 모르네.

매형 부음 소식을 접한 순간과 꼭 마찬가지로 내 목소리는 경련했고- 일종의 비명처럼 말일세- 순간 몸은 후들거렸지.

우리들의 첫번째 관심은 부모님의 심정이 어떨까하는 것일쎤. 상가에서 부모님의 얼굴을 뵙는순간, 어떤 위로의 말도 목구멍을 넘어오진 못하두만 자네도 지켜봤으니깐 알겠지만 거기오는 조문객들 모두가 말을 못하셨네. 아마도 죽음처럼 사람을 침묵시키는 건 없는지도 모르네. 아니 어쩌면 침묵보다 죽음에 대해 더 경건한 자세는 없는지도 모르지. 사실 여기 글로나마 말을 해야된다는게 불경인지도 모르네.

자네야 연극쟁이니까 그 후부터 장례까지의 모든 행사가 연극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만약 그게 연극이라면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자네의 죽음을 놓고 상상 속에서 연극을 펼쳐나가지.

‘아, 유철이가 만약 한 시간만 일찍 나왔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텐데.’ ‘아예 술을 먹고 취해버려 왔으면 어땠을까?’ ‘왜 차를 몰고 나갔지?’ ‘유정이가 그 날 자네 차의 키를 뺏어서 도망가 나쁜 동생이 됐으면 오히려 좋았을걸’……. 사실 차 얘기만 나오면 나는 절끔하네. 왜냐하면 그 차를 사는데 거간꾼 노릇을 한 게 나 아닌가.

괜히 자네 죽음에 대해 쓸데없는 책임감을 운위하는 거만은 버리라구? 자존심 강한 자네야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자네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건 또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자유 아닌가. 아니 살아있을 때의 자네, 자네의 삶에 우리가 모두 책임으로 얽혀 있듯이, 또 자네가 내 삶의 한 부분을 형성하듯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린 책임으로 얽혀 있는지도 모르네. 어쨌든 나도 자네의 죽음에 한가닥의 因緣을 형성한 셈일세, 또 자네 빈소에 오신 모든 분들도 자네의 삶과 죽음에 대해 조금씩이라도 인연을 형성하고 있던 분들 아니겠나. 우리 매형이 두 어린 딸과 차를 남겨놓고 가셨을 때도 난 왜 그렇게 자책감이 드는지 모르겠더라구. 그러고 나니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새로와지듯만

어때, 그 세계에선 새 친구를 많이 사귀었나? 어려운 사람에 대한 연민이 남달리 강했던 자네로서야 거기서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사리라 생각하네. 자네가 죽기 이틀전, 아버님과 함께 했던 술자리 기억나나? 한 일년쯤부터 아버님과 술 자리에 자네가 끼는 걸 보고, 아버님께서 정식 후계자로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걸 눈치챘네. 그 전에만 해도 맨날 애비얼굴에 먹칠하는 경솔한 짓 하지 말라고 꾸짖던 그 어른 아니시던가.

자네 그 술자리에서 한국인의 인간관계를 얘기했었지. 특히 한국여자가 얼마나 강한가 말이야. 동네시장에서 한 이줌마와 아저씨가 싸우는 걸 봤다며? 남자는 ‘이 걸, 이 걸’ 하면서 변죽만 울리고, 여자는 마구 욕해대기도 하고, 주위에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그 남자가 얼마나 나쁜가를 일일이 설파하면서 응원권을 삼으려 했다며? 체면이 두려운 남자는 슬슬 썩무니를 빼고 여자는 득의양양했다며?

자네의 의욕넘치고 활발했던 생명력에 대해선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이 모든 기억이 자네 죽음이 되돌려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연유한 것이겠지. 자네가 요즘 젊은이들 중에 뛰어난 천재성을 지녔다거나, 예술적 자질이 돋보였다거나 하는 얘기들이 지금와서 무슨 소용있겠나? 우리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이겠지. 설사 자네가 세계적인 인물이었다 해도 이미 이 세상의 윤리적 기준과는 다른 세계에 있을 자네에겐 아무 소용도 없네.

설사 자네가 천재였으면 뭘하나? 요절의 댓가로 부모님께 불효를 저질렀으니 말일세. 자네 불효라고 했다고 기분나빠하진 말게. 물론 죽음의 사자가 와서 자꾸 가

자고 팔을 잡아당기니, 진짜 ‘한국적인’ 자네가 뿌리치긴 곤란했겠지. 하지만 이걸 생각해 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수억 겁의 시간이 있었네. 아메바부터 시작하든지, 원숭이부터 시작하든지 간에 우리 조상은 세세대대로 이어져 왔지. 동굴에서 부딪들로 불을 지피든, 단추 하나로 석유불을 켜든 그 삶의 잉태는 달랐지만 삶의 유전이라는 기나긴 사슬이 있네. 그 중 윗고리가 아랫고리가 떨어져나가는 걸 눈으로 지켜봐야 하는 것은 전 사슬의 아픔일세. 그걸 가지고 문자 그대로 살을 찢는다는 거지.

자네와 가족으로 얽혀있지 않은 우리도 마찬가지로질세. 자네는 많은 적든 우리 몸과 마음의 일부였던 거지. 그 일부가 떨어져 나가니까 아픈 것일세. 자네를 연민해서가 아니라 내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니까 아픈 것 아니겠나 우리 모두가 몸의 일부가 떨어져나간 아픔을 겪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네 식구와 부모님만큼은 못하지. 그 분들은 생명의 상당몫을 잃으셨으니 말일세. 비록 자네가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살지만 가끔 내려와서 부모님을 잘 위로해 드리게.

하지만 자넨 완전히 저 세계로 간건 아닐세. 자네 표정이나 말 한마디, 몸동작이 우리 몸의 일부로 이미 화해 버렸으니까 말이야. 그건 우리의 평생동안 보이지 않게 우리를 구성하며 작용할 걸세.

자네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이 두 가지 있네. 하나는 젊음과 죽음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는 것. 우린 젊음이 생명의 절정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상 절정은 끝맺음의 시발 아닌가.

다른 하나는 삶과 죽음이 다른 세계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죽음을 안고 생명을 얻어 태어나네. 죽음은 단지 우리 속에 웅크리고 있던 생명의 裏面이 그 봉오리를 활짝 피운 것. 단지 생명의 다른 꽃이 피는 시간과 장소가 다를 뿐. 우리 모두가 자네의 죽음에 대해서 경건해 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때와 장소는 달리하지만 언젠가 자네가 먼저 간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 때문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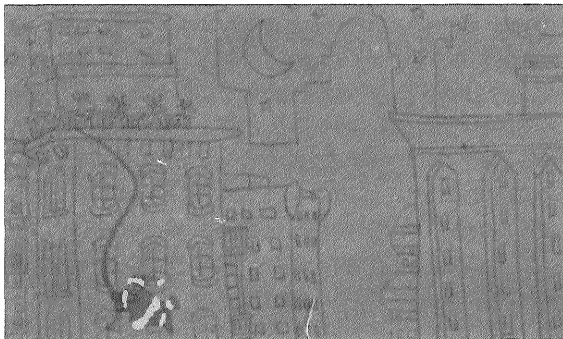
이젠 어떤 사람의 병이나 사고가 죽음과 직결될 수 있다는 불경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되네. 이미 그건 불경한 영역을 넘어 버렸지.

도가 튼 사람들, 심령의 세계를 잘 아는 사람들은 자네가 있는 그 세계를 무시로 오락가락한다고 하두만 어쩌면 그 세계는 우리가 사는 삼차원의 육체에 얽힌 세계의 바탕인지도 모르지. 그래서 ‘돌아간다’고 하지 않는가.

보다 값지게 성실히 사는 것은 우리 속에 ‘자네의 그 세계’가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사는 것이라고 자넨 내게 암시했네. 고맙네. 여러모로 자넨 우리속에 많은 걸 남겨줬네. 자넨 죽었으되 죽은게 아니지.

솔직히 말하면, 난 이선생님을 통해 자넨 알았지만, 아버님에 관계없이 자네에 대한 호감이 많았네. 자네의 혈기가 좀 가라앉는 나이가 되면 같이 술자리를 하면서 서로 의지가 되는 말을 주고 받으리라 생각했었지. 호감가는 인물을 놓치고 싶지 않은 내 욕심의 장기적 포석일세.

헌데 먼저 가버렸으니 그 꿈은 깨졌구만 하지만 영원히 깨진 건 아닐세.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날- 길게 보면 그날은 멀지 않았지-, 그 세계의 술을 놓고 한번 권코자코 해 보자구. 자, 난 내 일을 바로 시작해야 겠네. 자네도 나름대로 일이 있겠지. 열심히 하세. 서로 부끄럽지 않기 위해.



요즈음은 내 평생동안 잊지 못할 기쁜 나날들이다.
지희와 함께 함으로.

말씀과 사랑을 우리들이 나눌수 있게 해준
하늘에 감사하고 싶다.

새해여수 우리들에게 특히 지희에게
따뜻한 행복이 나리기를 마음속깊이 바란다.
고마워. 지희

Merry Christmas

지희

바보의 초상

전대일

보성고교 동창. 주계예대 서양화와 재학중.

올해도 온 남쪽의 즐거운 꽃소식과 향기로운 봄바람에 도취되어야 할 내 가슴이 자꾸 떨림과 회한의 눈물에 젖어,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는 이유는 무슨 까닭일까? 언제부터가 내 주변에서 보고 느껴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짧은 '생'을 긴줄만 알고 착각하며 사는것 같다.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는이, 죽음과 맞서 투쟁하는 자, 또한 자기의 '삶'을 우습게 알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버리는이,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는이, 어쨌든 인간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죽으며, 먼저간 이들을 그리워하고 슬퍼하다 자기역시 짧은 '삶'을 살아있는 자들에게 의탁하고 떠나가고 만다. 이러한 '삶'의 흐름은 인간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은 언제나 계속 이어졌고 이어지고 있는, 마를래야 마를 수 없는 통곡의 '샘'인것 같다. 이런 연유를 알면서도 쓰고 싶지않은 이 글을 써야함은 그를 화려하게 추모하기보다는 나와 그를 연결시켜준 폐광의 먼지와 같은 무수히 많은 기억을 헤아려보며 잊어 버렸던 망각의 눈에 빠뜨렸던 그와의 추억을 건져올림으로써 더이상 나의 '욕'을 듣지 못하는 그에게 나의 못다한 푸념을 하며, 다시한번 만나기 위해서이다.

7년전 보성고등학교에 입학해서다. 당시 나는 신병으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자주 쓰러졌었다. 그래서 항상 내주변에는 급우들이 접근을 꺼려했었다. 그러므

로, 나는 창가에 앉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쬐이며, 스케치북을 꺼내 끄적거리거나, 혼자서 책을 읽으며 웃고 울고 하든지, 간혹 무슨 생각이거나 화단 주변을 맴돌면서 나만이 아는 말로 중얼거리곤 했었다. 또한 가장 피로웠던, 체육수업시간에는 즐겁게 뛰노는 급우들을 교정의 푸르른 나뭇잎과 함께 벤치에 앉아 지켜볼 뿐이었다. 항상 어지럽고 몽롱했던 이시절, 처음 나에게 다가와 스스럼없이 나를 불러준 친구가 바로 그였다. “야, 네가 그림을 좀 그리냐.” 하며 그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웃었다. 당시 나에게는 말을 걸어오는 친구도 없었고, 친구를 사귄만한 여유조차 없었던 때 그의 접근은 ‘짜증스러움’이 아닌 신선한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 후 그와 나사이에 보다 친숙해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의 빈 옆자리로 옮겨가면서 부터이다. 항상 우울하고 피곤했던 나는 그의 쾌활함과 건강한 웃음으로 나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됐으며, 지겨웠던 학교생활에 차츰 재미를 갖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당시 비실대던 나를 가까이했던 그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직 같은 모르겠다. 하지만 그가 나에게 말을 걸어 왔을때, 아니 우리가 서로를 보았을때, 그 이전부터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어떤 이끌림으로 친밀해질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와 나는 등교 때부터 하교 때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라는 뜻깊은 급훈과 다행히 마음이 넓은 담임 선생님 밑에서, 착하고 순진 했다가 보다는, 뭘 모르고 멍청했던 1학년년을 마치면서, 종강파티를 즐겁게 즐겼고, 또한 반 전체 급우들의 글로 만들어진 조그만 ‘책’ 즉 반지를 만들었다. 지금도 그 반지를 보면 그때의 기억들이 새롭게 떠오르면서, 그가 쓴 현대판 <심청전>이란 독특한 희곡 작품이 눈에 띈다. 어린 나이에 쓴 작품같지 않게, 사회와 인간심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며 또한 반짝이는 재치는 지금 읽어보아도 미소를 짓게한다.

예술가는 그의 일상적인 생활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작품의 경향과 성질에 많은 영향을 받고, 또한 그 작품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듯이, 그의 타고난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활달함이, 어련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웃음이 있는 좋은 작품을 만들어 놓았던 것 같다. 그후 2학년에 올라가면서 그와 나는 서로 다른 반으로 헤어졌었다. 대부분의 그나이 아이들이 학년이 바뀌면서 친구를 잃어버리는 반면, 우리는 보다 더 가까와져 수업이 먼저 끝나는 쪽이 서로의 반에 와서 기다렸다. 함께 집으로 오곤 했었다.

언제나 찾아가도 반가이 맞아주시는 어머니님과 친절한 누나들과 동생, 그리고 집안 전체에서 느껴오는 안정되고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인지, 나는 자주 그의 집을 갔

었고, 그 또한 학교에서 가까운 나의집에 자주들러, 내방에 있는 많은 석고상과 그림만 그림들을 보곤 했었다.

유난히 더웠던 그해 늦여름, 개학을 3일 앞에 두고, 오늘까지 친밀하게 지내온 친구K와 더불어 셋이 아무생각없이 배낭을 짊어메고, 1박2일의 여행을 떠났었다. 당초 행선지를 정해놓지 않은 출발이었기에 터미널에 가서 적당한 근교인 강화도로 갔었다. 여러 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다 지친 우리는, 저녁 늦게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섬, 가운데 보문사라는 사찰이 있는 곳에 여장을 풀었다. 서로를 안지 처음 떠난 여행이라 약간 서먹스런 기분을 느꼈지만, 그날밤 텐트에서의 우리들은 밤이새도록 가장 순수하게 그동안의 어린시절과 친구로서 느끼는 서로의 감정을 흐르는 시냇물소리와 함께 끝없이 이야기하였다. 1박2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그날이후 몇년이 지난 지금까지 함께 갔던 친구K와 더불어, 이날의 순수했던 추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서로를 찾아갈 수 있는 격의 없는 친구가 되었던 것 같다.

그해 가을 나는 학교 축제전시회에 전시할 그림중의 하나로 그의 첫 초상화를 그려주었다. 최근 얼마전까지 그의 방에 걸려있던 불펜화로, 그 자신이 '바보의초상'이라고 했던 초상화를 그려 주면서 나는 그에게 Life지에서 본사진, 즉. 한 소녀의 아버지가 소녀가 어렸을때부터 성장하여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될때까지 똑같은 옷차림으로 함께 찍은 사진과 같이 몇년씩 간격을 두고 계속 그려서 서로가 백발을 휘날릴때 쯤, 화가 친구가 본 한친구의 '삶'의 흐름을 그려 보겠다고 약속했던 생각이난다.

그해도 즐거운 겨울방학과 크리스마스밤을 그와 함께 보냈고, 봄방학을 이용해, 단둘이 또 한차례의 3박4일 예정의 늦은 겨울여행을 떠나게 됐다. 백제의 고도인 부여와 공주, 그리고 계룡산 일대를 둘러보기로 했다. 당시 우리는 서로가 너무 나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로서의 강인한 극기심을 기르기 위해 어떤일이 있더라도 계획했던 전 지역을 도보로 다니기로 했었다. 그러나 몇십년만에 처음으로 내렸다는 많은 '눈'과 똑 떨어진 기온때문에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지역에 반도 채 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함께 다니면서 본 풍물에 대해 그가 말한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생각난다.

옛성터와 반쯤 얼어버린 백마강, 옆 좌암절벽위에 있는 '고관사'라는 암자에서 일이다. 이절에는 유명한 약수가 나와 옛임금들이 즐겨 마셨다고 하며, 또한 마실 때마다 자기의 수명에 1년씩 더살수 있다는 안내판이 있었다. 그판을 읽어본 그는 자기는 건강하니까 안마셔도 능히 '장수' 할 수 있지만, 좋은세상 더 즐기기 위해, 좀 마셔야겠다고하며, 말리는 나를 밀치고 그 찬물을 무작정 들이키면서, "깨끗한

물을 마시면 자기자신 역시, 깨끗해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평소에도 느꼈지만 그는 자주 심한 갈증을 호소하며 많은양의 물을 들이키곤 했었다.)

낙화암과 여러 유적지를 둘러본 후 잘 기억은 안나지만, 어느 ‘왕’의 석실무덤에 갔었다. 좀 늦은 시간인데다 겨울여행인지라, 관람객은 그와 나뿐이었다. 을씨년스러운 밖의 날씨와는 달리 고분안에는 바람 한점 들어오지 않았고, 천정에는 몇개의 백열등만이 희미하게, 옛왕이 누워있는 석실을 비추고 있었다. 좀 무서운 느낌이 든 나는 빨리 나가자고 했다. 그러나 그는 잠깐만 더 보자고 하며, 석실안이 좀 어둡지만 참 아늑하다고 말하면서 옛 임금들은 몸이 상당히 컸나 보다고 하면서, 큰 관을 가리켰었다. 추위와 피곤함에 많이 떨었지만 단돌만의 자유로움을 만끽한 겨울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우리는 고3, 입시생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아껴 주면서, 가능한 한 모든 만남을 학교에서만 갖기로 하였다. 지루하고 길게만 느껴졌던 그해도 가고, 졸업과 더불어, 입시에 떨어진 나는 개운치 못한 그의 첫출발이지만 친구 K와함께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후 나의 짧은 군생활과 계속되는 입시에 좌절함으로써, 활기찬 대학생활을 영유하고있는 그와 만나기를 꺼려했었지만, 그는 자주 나를 찾아와 나를 격려해 주었고,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아, 나에게 조언을 바란다면, 외로웠던 나의 3년여 세월동안을 계속적인 친구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K와함께 유일한 친구였다.

그가 대학에 입학한지 얼마안돼 저녁 늦게 나를 찾아와 들뜬 목소리로 자기는 연극을 시작 하려고 한다고 내게 말했다. 당시 나는 ‘연극’이라는 것을 영화 포스터 옆이나 빈벽에 붙어있는 광고물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그전까지 재미있고 특이한 것에 자주 관심을 가져온 그에게 조금하다 싫증을 내고 실망하는 자신이 되지 말고 좀더 깊이 생각하고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후 몇달뒤, 그는 내 손에 한장의 초대권을 쥐어주면서, 자기가 첫 출연하는 연극이니 꼭 와서 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뉴 헤이븐을 폭격했다.)라는 이색적인 제목과 함께 그를 보러갔다. 첫무대에 올라선 그에게 꽤나 많은 대사를 할애할 수 있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떨림없이 태연하게 ‘연기’ 하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었다.

그뒤 그를 만날때 마다, 금맥을 찾는 지질학자와 함께 같은 신중함과 열정을 나에게 보여주면서, 무언가 자세히 느껴지지는 않지만, 무겁고 큰 느낌의 덩어리를 키워 나가는 것 같았다.

간혹, 그가 나를 찾아와 소리껏 자기의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나를 웃겨 주었지만, 당시 나는 입시의 좌절감에 허덕이던 때라, 나를 위로하려는 그를 “비논리를 논리화”시키려 한다고 반박하곤 했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나는 너무 대조적으로 실패의 실과같이 잘 풀려나가지만

하는 그를 숨은 의식속에서 시기하며 거부하려고 한 노력이 그를 반박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는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나의 비난을 자주 웃으면서 듣던 그는 언젠가 서로 한참 취해가고 있을때 나에게 이런말을 했었다. ‘형’이 없는 자기에게있어 내가 가끔 친구가 아닌 형과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는말에 모순이있으면 언제든지 충고를 바란다고 했었다. 앞으로 향해 뛰고 있는 그와는 대비적으로 과거의 좁은 껍질 속에서 계속 헤메이고 있던 재작년 8월쯤인가. 그가문득 나의 형에 관하여 물어보았다. 의대를 졸업하고 보건의로 무의촌에 가있는 나의 형과 그의 작은누나와의 맞선을 주선하는 제의였다. 그의 집을 처음 갔을때부터 그의누님을 쪽 보아왔고, 그 이전부터 서로가 생각했던 바라 지극히 자연스럽게 맞남을 주선했다. 중신아비로서의 빈번한 만남과 그해가을 그가 기획, 연출했다는〈겨울 사람들〉를 함께 관람하곤 하였다. 관람후, 그는 그간 그가 공부해온 것과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연극에 있어 무대미술의 필요성을 시사했던 기억이난다. 그후 그와의 예상대로 형과 형수님의 만남은 순조로왔고, 드디어 가까운 시일안에 친구로서 지낸사이에서 사돈으로 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더 이상 친밀해질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웠던 이때, 바쁜 그는 나의 약속을 자주 어겼었다. 그 이전에도 나의 약속을 자주 어겼지만, 그러는 그를 나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었다. 그러나 그를 이해하려는 가운데서 언제부턴가 나의 이기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의 배신감으로 느껴왔었다. 그러던중 그와 나사이에 몇년전부터 계획했던 약속을 어느날 그가 나에게 일방적으로 어겼을때, 그러는 그를 처음에는 어떤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나에게서 크게 자라온 이기심이 나를 가만히 두지 못하고 그의 이유는 한마디도 듣지않고 그와의 관계를 모두 청산 해버리고 싶다는 결별을 선언했다. 형님의 결혼을 무사히 마치고 나의 대학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최근 얼마전까지 무려 7개월동안 그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다. 그러던 나는 언제부턴가 그가 없는 허전함과, 나의 한번의 투정으로 어려웠을때 내게 무한한 힘을 주었던 그를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기 시작하면서 그를 다시 찾고 싶어졌으나, 그와의 작별을 선언했던 나로서는 다시 먼저 그에게 화해를 하자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 혹시 그가 나를 찾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몇개월이 또 지나갔다. 그러던 나는 오후늦게부터 내리고 있는 늦가을비를 맞으며 그를 찾아갔다. 뜻밖의 나의 부름으로 뛰어나온 그는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내가 특유의 말투로 웃으면서 “한잔하자”고 했을때, 그는 처음 나에게 말을 걸었을때와 같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후 예전같은 기분으로 대하기는 좀 힘들었지만, 그와 나의 새로운 만남은 천천히 다시 친숙해질 수 있었으며, 언젠가 그가 나에게 시사했던 ‘연극’을 알리고 여러 서적을 보면서부터 그를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

었다.

조카의 출생이 있는 작년 12월 중순경 그와함께, 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밤늦도록 여러 술집을 전전하다 새벽녘 자주가던 포장마차에서 내게 말했던 이야기들이 새롭게 생각난다. 그는 기성 연극체제의 모순된 점과 대학 연극의 부진함과 연극의 '연' 자도 모르고 연출의 '연' 자도 모르는 쓰레기 같은 자들이 관객과 무대의 약속을 운운하면서 사기치는 것을 더이상 볼수 없다고 하면서, 적어도 자기가 조직한 극단은 항상 관객들에게 신선한 만남을 약속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후 몇차례의 만남에서 그는 개성이다른 많은 사람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극단대표로서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혼자서 마음대로 해나가는 나의 작업의 편안한 일면을 부러워하면서도 그간 해온 '일'에 대한 끝없는 애정을 얘기하였다. 그후 불과 며칠뒤 새벽녘에 엄청난 그의 소식을 접한 뒤, 지금에서야 그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의미이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가를 무작정 흘러 내리는 나의 눈물로 알게 되었다.

오늘, 짧다 짧은 생을 강렬하게 살다간 철이를 돌이켜보매, 그의 사람됨은 현실의 좁은 테두리 안에서 안일 하거나 과거의 껍질 속에서 만족한 인간이 아니었고 누구의 비평을 두려워 하거나, 찬사에 자만하지도 않고 그 특유의 해맑은 웃음으로 그의 생각을 쾌활히 펼쳤었던, 본바탕이 큰, 큰그릇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는 끊어오르는 자기 가슴 가운데서 끄집어낸 연극과 '삶'에 대한 강한 신념을 그대로 행하면서 자유스럽게 살다간 젊은 '자유지의의 혼'이었던 것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매순간 한 찰나도 멈추지 않는 변화속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또한 살아간다는 것은 보다 더 아름답고 완성되 보이는 형태로 변화하기 위해 있는 것이요, 그준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생과 사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다.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어느 모로선 죽음을 향해 천천히 향해 하는 '배' 인것 같다.

봄은 왔건만 아직 바람끝이 차기만 하다. 낮게 기울어져 비치는 석양의 햇살과 산비탈에 서있는 나뭇가지에 흔들림을 보고, 그를 뿌린 자리에서 지나간 시간을 정리해 보면서, 오늘 무심히 떠나버린 유철이를 다시금 생각하매 그는 영원토록 유일한 내친구요, 또한 내영혼을 포장시켜준 나의 스승이었음을 다시한번 고백한다. 모든 허위·허식을 버리고 우리만은 진실되게 살자고 한 그의 말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에게 다시금 다짐해 본다. 보다 진실되게 살자고...

유쾌한 웃음으로 기억되는 그에게

김진욱

보성고교 동창. 서울의대 본과 3년 재학중.

Y를 알았던 지난 몇 년 동안 저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을 되새겨 보면서 그의 학창시절을 유달리 아름답다거나 극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그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에 대한 몇몇 단편적 기억들과 그의 말, 행동, 표정에서 느낄수 있었던 분위기의 인상을 이야기할 수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과연 어느정도까지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사라져버린 지금, 새삼스러이 그의 실체를 정의해보려는 부질없는 노력이 더욱 혼란을 일으킵니다.

고교시절의 우정이 아직 主義와 신념들도 굳지 않은 천진한 영혼들의 만남이었다면 대학시절의 그것은 이들이 비록 같은 길을 걷지는 않아도 각자가 자신의 내·외적 필연에 의해 99개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하나의 선택을 내리는 과정에서 서로의 결정을 진지하게 생각해주고, 진심으로 그의 안정과 발전을 기원하는데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를 만나면 그의 결정이 너무 충동적이라 불평했고, 그는 그대로 저의 좁은 소견을 일깨워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협을 보지 못한채 모두 끝났으니 좀더 이해심을 가지고 그를 보지못한 것이 안타까울뿐입니다.

그를 처음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때 내가 그의 앞자리에 앉게 되고부터였습니다. 그는 매우 근사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큰체구에 어울리지않게 섬

세한 감정을 지냈는데, 저는 그것이 그가 여자 형제들 틈에서 외아들로 자랐기 때문이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한번은(내가 그를 안지 얼마되지 않았을때) 학교에서 그의 책을 보다 반 페이지정도 찢은 일이 있었습니다. 별생각없이 ‘책장이 좀 찢어졌구나’ 한뒤, 마침 점심시간이라 도시락을 먹다가 아무래도 기미가 심상찮아 뒤돌아보니 조금전 그대로의 자세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왜그러느냐 물으니 “난 내물건 망가뜨리는거 굉장히 불쾌해” 하더군요. 녀석 소심하긴 전 정중히 사과를 했고, 그도 지나쳤다고 생각했는지 금방 씩 웃었습니다. 묘한 계기로 그와 친구가 된 후 생활에 제약이 많은 고등학생으로서는 꽤 여러군데를 같이 돌아다녔지만 가슴아프게도 지금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유쾌했던 추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히 그와 난생 처음으로 ‘연극’이라는 것을 보았때가 생각납니다. 셰익스피어의 「As you like it」으로 기억하는데, 저뿐 아니라 그도 상당히 흥분된 투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처음 알게 됐을때부터 그는 이미 현실을 제멋대로 戲化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취미는 단지 그의 주위생활을 자신의 상상력으로 우스꽝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그러한 무대에서의 배우역을 하곤 했는데 그것도 아주 진지한 태도로 했기에 우리는 모두 그것이 바로 Y자신이며 그는 그의 행동이 나름대로 타당하고 현실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사실일런지도 모르죠.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졸업을 하였습니다.

좁고 안전하던 세계에서 갑자기 넓고 이해하기 힘든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는 모두 다른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꿈과 목표를 찾기 위해서. Y의 출발은 그리 순조롭지는 못했고, 그자신도 꽤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뿐이었고 그는 자신의 생활이 어떠한 것일수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일체의 구속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대학을 들어와 1년쯤 지난뒤 그와 만났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대학 생활을 마땅히 즐겨야 한다고 그것은 단순히 한때의 기분이기보단 그의 철학인 것처럼 말했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본디 즉흥적이고 낭만적인 기질을 지닌 그가 연극을 시작한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귀결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연극에 심취했고 자신은 그것을 ‘대학 문화창달’이라고 큰소리치곤 했지요. 허나 정말로 Y는 연극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가 일생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싫증내지 않고 계속한 일이 또 있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묘한 것은 연극이 단지 그에게 낭만적인 도피처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진지한 생활이 되어버린 사실입니다.

실지로 Y는 최근 몇년동안 갑자기 변했습니다. 자유분방한 그의 사고방식에 나

름대로의 현실 감각이 부여되었다고나 할까요.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신이 넘쳐보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그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너무도 빠른 종말 이기에 우리는 슬퍼할 수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련과 회한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의 기억을 반추하며 Y를 다시 그려보려는 시도가 너무나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Y가 연극을 사랑한 사람이기보다, 이해되기를 바라는 한 인간이기보다 다정 다감한 우리의 친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모두 자신을 이루고 있는 세계의 큰 부분을 잃었습니다. 채우기 힘든 공백이 남을 뿐입니다.

며칠전 꿈에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복을 입고 평소 Y 특유의 쾌활한 웃음과는 다른 잔잔한 미소를 띄며 서있더군요. 하지만 역시 그는 유쾌하게 웃는 모습으로 기억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가을에

이유철

가을은

모든 날개달린 것들을 떠나보낸다.

낙엽들은 날개 달린 새되어

하늘에 별이 되어 박힌다.

가을은

모든 날개 달린 것들을 떠나보낸다.

새들은 빨강계 물든 낙엽되어

땅속에 묻혀버린다.

가을은 …

1984. 9. 24

그가 남긴 것들

金時羅

극단「가가」 대표.

1987년 1일 마지막 주일이던가, 시간은 오후 6~7 시경, 겨울인데도 이날따라 영
킨 긴 머리칼같은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며 비에 젖은 짧
은 머리칼을 털면서 커다란 검은 눈에 웃음이 가득 담긴 유철군이 인삿말 대신 고
개를 끄덕이며 들어섰다. 그날따라 유난히 머리칼이 짧게 보였다. 그를 잘 아는 사
람은 그의 짧게 깎은 머리를 보면 그가 무슨일을 시작했구나 함을 짐작할 수 있었
다.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면 반드시 머리를 짧게 깎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
다. 잡념을 없애고 몰두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신춘문예를 목표로 썼다는 세
계종말을 다룬 〈끝〉이라는 희곡 원고지를 가슴에 품고 한 번 보자는 나의 제의를
완성된 후 보여주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도 겸손해 하는 자세와 해맑은 얼굴이 오
늘따라 너무나 생생히 다가와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유철아! 유철아! 유철아!

이날따라 연극계의 영세성 탈피문제, 서구 이론에 입각한 연극만이 연극이라 우
기는 모순된 연극풍토, 프로 극단의 운영 방법 등 평소에 별로 말이 없던 그가 의
외의 넓고 깊은 식견으로 논리정연하게 사자후를 토하여 나를 놀라게 했다. 어느
덧 비가 개이고 을씨년스런 바람이 스쳐지나는 창 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처럼 “김선
생님, 비록 우리가 아직 어리고 부족하지만 의욕적이고 재능있는 대학생들이 모여
「작은 신화」라는 극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 젊은이

스스로가 뛰고 땀흘려서 새로운 연극계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기 위해 대표로서 사명을 다할까 합니다. 머지않아 각 대학의 연극반끼리 모임도 가질까 합니다." 그말에 나도 거들며 "그래 가능할지는 몰라도 대학연극제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나의 말에 그는 "연극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부친(이근삼교수)의 음덕이 아닌 이유철 자신이 떳떳이 서 보겠습니다." 그는 무슨 성명서라도 발표하는양 처음엔 독백인듯이 시작한 말이 나중에는 우렁찬 웅변으로 나를 어리둥절하게했다.

유철아! 유철아! 유철아!

이유철! 정말 아까운 젊은이였다. 누가 그의 인생을 시샘했을까. 그가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듯이 유작으로 「작은 신화」라는 극단을 만들어 놓은 그의 이 훌륭한 씨앗이 그의 동료나 후배에 의해 이나라 연극계의 '작은 신화'가 아닌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는 굵직한 열매로 열릴 것을 기원한다. 비록 23세라는 짧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지만 그는 그의 유고집으로, 그의 극단으로 우리곁에 영원히 함께 남을 것이다. 1987년 2월 4일 새벽. 대학극 무대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영재 한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선 날이다. 천국은 환희의 종소리로 즐거웠겠지만 지상에선 그의 천재성, 그의 순수한 야망, 온화한 인품, 보기도문 인간성의 한 유능한 젊은이를 빼앗김으로써 슬픔과 눈물로 얼룩진 날이다. 비록 그는 천국으로 훌쩍히 떠나갔지만 그가 평소에 염원했던 ①대학극의 향상을 위한 각 대학 극단의 모임(협회) ②대학 연극제 ③대학생이 꾸민 회곡집 ④ 연극계의 영세성 탈피문제 등의 그의 평소의 염원이 「작은 신화」를 통해서 아니면 함께 연극을 했던 동료와 선후배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해 본다.

이유철! 보기도문 멋진 젊은이였다. 같은 연극 선배인 박정재씨와 나 이렇게 셋이 모이면 그저 즐거워서 서로 때리고 웃으며 아버지 못지않은(?) 해박한 식견으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모순된 연극계를 질타했던 그의 멋진 웅변술이나 항상 웃음이 가득 담긴 그의 자신에 찬 얼굴도 다시는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다니 우리 모두 슬프고 쓸쓸하기 그지 없으나 그와 함께 연극을 했던 선후배나 동료 그리고 「작은 신화」 단원들, 동생 이유정 이들이 그의 유지와 유덕을 기리며 이어간다면 그는 영원히 우리곁에 살아 우리와 즐거이 함께 하리라 믿는다.

유철아!

유철아, 잘있니?

임애리

서강연극회 동기. 극회 작은신화 창회동기.
서강대 불문과 석사과정.

유철아.

우리, 너무 오랫동안 편지두 안쓰구, 전화두 안했지?

이제야 무언가를 쓸 마음이 생겼어. 너를 뿌리러 산에 가던 날의 하늘이 생각나는구나. 눈이라도 올양, 흐릿한 날이었지. 아니면 제대로 하늘도 못보고 그냥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구. 화해 할 시간을 갖지 못했구나. 인색하게도 마음 한 구석에 네 말과 네 마음이 담길 자리를 일찌감치 버렸었거든, 너무 많이 싸웠었어. 아마도 삶과 연극에 대해 유별나게 애착을 가진 아이들이어서 그랬나봐.

연극은 관객을 위해 있어야 하고 관객이 즐겁고 재미있다면 그것으로 된거지 또 무엇이 필요하느냐는 네 말에, 친구들은 관객이 보고 웃고 즐기는 것에서만 연극이 끝나서는 안되며 즐길 생각하도록 요구해야만 한다고 반박했었어, 그렇지만 연극이 상류층이나 여대생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학생, 노동자, 농민, 낙도의 어민들에게도 공유되어야 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연극을 만들어 보리라던건 우리 모두의 젊은 꿈이었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연극-우리의 꿈은 그렇게 크고 밝은데,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것은 너무 작고 답답한 틀이라고 느끼곤 했었어. 그걸 깨보려고 무던히도 목청 돋워 악을 썼지 서로 지지않으려구 핏대 올리며 싸우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이면,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이 떠올라 이쉽기도 하고, 지기 싫어서 고집을 부렸지만 역시 그건 네 말이 옳다고 고

개를 끄덕여 보기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서 입맛이 쓸쓸해지기도 했었어.

지기 싫어서 싸우고 화해하고 또 싸우던 만큼, 우리는 사는 것과 연극하는 것을 사랑했나봐, 그렇게 사랑하는 것들 모두 뒤에 두고 연습도 없이 어떻게 갔니? 뭐, 오래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가슴 속에 두고 사랑해주길 바래서 그랬다구? 욕심쟁이.

유철아,

오늘은 빛 밝고 하늘 맑은 그런 겨울 날이야.

아주 오래 전에 어느 날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국민학교 다닐 때, 키우던 토끼가 사냥개에게 잡혀 먹어서 영영 울었다는 이야기 말이야. 오늘 같이 별 좋은 날 같은 이야기지? 참 오랫동안 우리 모두 그 얘기를 잊고 있었어, 네가 너무 강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기 때문이야, 너는 친구들 보다 더 연극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훨씬 더 어른이라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의논하지 않고, 힘들다는 말도 없이 혼자서만 궁리하고 혼자서만 어려운 일을 하려고 했었어. 그래서 우리들은 네가 마음이 여리다는 걸 그렇게 오래 잊어 버리고는, “이 일은 힘드니까 같이 하자.” 라는 말을 하지 않는 너를 안타까와 하기도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지 말고, 그냥 약하고 여린, 그렇지만 크고 밝은 꿈을 가진 우리들의 친구임이 부끄러웠니?

목은 일기장을 들춰 보면서 우리들이 했던 이야기를 찾았어. 참 많은 질문을 했더구나. 연극은 무엇일까, 인간은 왜 연극을 할까. 왜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있고 서로를 사랑하는 걸까. 왜 인간은 혼자 못 살까.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예술이란 무엇일까. 왜 인간은 예술적인 행위를 해야만 산다고 느낄까... 우리들은 주위에 있는 모든 일상적인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 없이 행동하던 일들이 신기하고 궁금했어. 그런데 대답은 없었어. 왜냐하면 찾는 중이었거든. 살다보면 알 수 있을거야, 살다보면 찾아질거야, 하고.

너와 함께 만든 것은 아무 것도 없어, 우정도, 연극도, 인생도, 그리고「작은 신화」도, 단지 만들고 있는 중이었을 뿐이지, 함께 만들어 나가던 것, 아마 우리들은 만들어 갈거야. 넌 남긴 게 없어. 네가 묻힌 한 치의 땅도 이 세상에는 없어, 그렇지만 함께 했던 우리의 꿈, 미래, 희망, 또 연극이, 완성되지 못한 채 남아있어 그것들을 하나 하나 만들어 나가고, 함께 했던 질문들에 대답을 달아 가면서 우리들은 더 많이 널 느끼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거야.

넌 투명해, 온 공기 속에 네 몸이 섞였잖니? 넌 우리 공기의 분자가 됐어, 어디에도 이제 넌 없어, 그렇지만 이제 어디에나 네가 있어, 우린 늘 네 생각을 하

고, 널 느낄거야, 우리 꿈, 미래와 함께 있는 너의 꿈, 미래가 이루어져도 혼자 멀리 있음을 슬퍼 하겠니? 넌 이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텐데 뭐.

참 이젠 자유로와졌는지-. 늘 자유롭기를 바랬잖니? 자신을 묶고 있는 모든 현실로부터 벗어나 어서 어른이 되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고생도 하면서 튼튼한 나무, 커다란 밀동이 되기를 바랬었지. 아마도 네가 성격이 급해서 그랬나봐. 무슨 일든 빨리 빨리 해치우고 어서 그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다 지치면 투정도 부리고 속상해 하기도 했었어. 그렇게 성큼 성큼 뛰어다니면서 살았던 네 모습이 문득 보고싶어.

너를 보내던 마지막 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평평 울었던 건 잘못일까? 이젠 네가 모든 것으로 부터 자유로와졌는데 말이야. 널 농치기 싫어 하는 우리들의 이기심 때문에 네가 편하지 않거나, 슬프거나 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뿐이야.

아무 것도 남기지 못한 아이야, 아니 너무 많이, 구석 구석 남아 버린 아이야, 그래서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는 아이야, 그래서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는 아이야, 네가 다 이루지 못한 것들이 친구들의 머리와 손과 가슴에 남아 하나 하나 이루어 지는 것을 지켜봐주겠니?

욕심꾸러기고, 성미 급하고, 강한 척 하면서도 정말은 너무 여리고, 비 오면 술 마시고, 여자친구랑 싸우면 깊은 밤에 전화하고, 연극과 음악과 돈 버는 얘기만 나오면 침 튀기며 이야기하고, 대답 없는 질문에 밤을 새우면서, 기쁘고 즐겁게 삶을 살았던 우리 좋은 친구야. 하늘에도 땅에도 어서 어서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내내 안녕

더하기

이유철

닭과 더운 물은 삼계탕
녹두와 후라이팬은 빈대떡
배추와 고추가루는 김치
피와 땀과 눈물은 민중
부정과 부패는 위정자
민중과 자유는 대한민국
사랑과 포용은 통일
뼈와 살과 피와 물은 인간...

기억남는 얘기들

金哲理

서강연극회 산배. 연출가.

등장인물

이근삼: 서강대학교 교수.

이유철: 그의 아들. 대학생.

박준용: 서강대학교를 어렵게 어렵게 졸업한 남자. TV PD

정한용: 같은 학교를 정말 오래 걸려서 졸업한 그의 후배. TV 탈렌트.

김철리: 역시 같은 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의 후배. 연극 연출가.

1장

서강대학교 연극반실.

되게 지저분하고 비좁다. 여기저기 교련복, 체육복, 가방이 널려있다. 연극대본 비슷한 건 거의 눈에 띄지도 않는다.

담배연기가 짙 차있다.

무슨 경찰서 취조실같은 살벌한 분위기이다.

실은 신입연극반원 면접을 진행중인데, 그 목적은 우선은 새로 들어오는 애들을 겁주는데 있기 때문이다. 소위 고참 세 명이 앉아있다. 한 명은 열심히 손뚱을 깨물고 앉아있다. 이치가 박준용이다. 또 한치는 얼굴은 시커멓고 피둥피둥하

게 살이 찼는데 그가 뺀 말은 주로 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한용이다. 또 한 애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벗겨진 이마에, 마치 온세상의 고민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듯 인상을 쓰면서 담배만 열심히 빨아대고 있다. 애가 김철리이다.

박준용 자, 다음 너./ 니 입으로 니 소개해봐.

김철리 길지 않게. 짧게.

이유철 이름은 이유철이구요. 이번에 경제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김철리 이름은 어차피 한참 지나야 외어질테니가 들어나마나구, 경제학과 들어온 놈이 장사하는 방법이나 열심히 배우지 연극은 뭐하러 하겠단거야? 장학금 면제 확실하게 받고 싶으나?

정한용 짜이식, 허우대는 멀쩡하게 쌍관뎀기가 꼭 기집애처럼 생겼는데? 눈은 또 땡그란게. 난 이런 애들 보면 재수가 없어.

박준용 암마./ 그거야 니가 한심하게 생겼으니까 콤플렉스 땀에 그러는거지. 좌우시간 너 연극은 왜 할 생각이 들었냐?

이유철 그냥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박준용 (살벌하게) 뭐가 어떻게 좋을 것 같은데?

이유철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김철리 한마디로 말해봐.

이유철 ..연극이라는게 재미도 있을 것 같고, 희곡을 통해서 인생의 단면을..

정한용 인생 좋아하네./ 야 너 뭐 고상하게 얘기할거 없어.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후시 무대에서 폼나는 주인공 한번 해볼까해서 기웃거리 본거라고 솔직히 고백해, 응?

김철리 그래. 우리가 그런거 한두번 봤냐?

이유철

박준용 너 희곡에서 인생을 어찌구 하는데 희곡 읽어본 거 있어?

이유철 많이는 못 읽어봤고 조금 읽어봤습니다.

김철리 못 읽어봤냐? 안 읽어봤지.

정한용 짜샤./ 연극하겠다면 조선말부터 똑바로 해.

박준용 그래. 니가 읽은 거중에 기억나는게 뭐 있냐?

이유철저 이근삼씨 작품들요.

박준용 너 내말 뜻을 잘 못알아들은 모양인데, 「기억난다」라는 말에는 「감명을, 감동을 받았다」란 뜻이 포함돼있어.

정한용 니말이 준용이 형말대로 그렇다는 뜻이야, 임마?

이유철 뭐 꼭 그렇단 뜻은 아니지만..

김철리 (일단 친절할 것처럼 얘기를 시작한다.) 희곡작가중에는 셰익스피어란 사람부터 이름을 얘기해 봤자 니가 알지도 못할 사람들이 썩어 썩어. 그런 거 읽 고난 담에 희곡 어찌구 그래./ 알았어?

박준용 도서관에 가면 이갈릴 정도로 연극에 관한책이 많아. 맘대로 빼볼 수도 있구.

김철리 거기 가는 습관부터 들이는게 좋다구. 연극하려면 먼저 도서관 이용법부터 배워야돼.

박준용 그게 소위 개가식이란 거다.

정한용 그리고 연극반 예산이 일년에 5만원 밖에 안되니까 지든 꼬나박으면서 술사주고 연습해야 되는 것도 까먹지말고 짜샤./ 그동안 우리도 수십억 뽑았어./ 암전

2장

서강대학교 근처 싸구려 술집.

등장인물은 1장과 똑같다.

정한용 뭐? 이 새끼 이거 죽이는데? 하, 그동안 내용뎀거 좀 봐. 너 그거 정말 이야, 아...?

김철리 유철.

정한용 그래. 너, 이유철./ 그게 정말이야? 구라 아니지?

이유철 ...에...

정한용 하 이거 이자식 뻔질뻔질하게 생겼다 했더니 진짜 얼굴값 하네 이거?

김철리 그러면서도 개기는 표정으로 지 아버지작품이 괜찮다는 수작을 떠걸 보 니까 배우소질은 있나본데?

박준용 너 니 아버지한테 그날 그얘기 그대로 하진 않았겠지? 대학생 답지 않게?

이유철 (실실 웃으며)제가 어린애가요? 그런 소릴 하게?

정한용 하 이거 이 새끼한테 완전히 한방 먹었는데...

김철리 그동안 골빈애들 집합장같던 연극반 좀 나아지겠다. 좀 뻔뻔스런 애들이 모여야 뭐가 되도 된다구.

박준용 이유철 이거 생긴건 뻔뻔한데 뱃속은 뻔뻔한 놈이네.

정한용 좌우지간 입조심해야될 일 하나 늘었는데. 나 연극반에서 아예 발똥던가 해야되겠다. 주둥아리까지 조심해야 되니 이거 피곤해서.

이유철 (뻔뻔하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김철리 도리어 우리가 부탁드려야 되겠다, 임마!

암전

3장

비닐하우스 안에 차려는 식당.

벽제 화장터 아래.

이근삼교수에게 스포트 들어간다.

이근삼 (담담하게) 영결식장에서 그녀석 친구들이 조사를 읽는데 이런 말이 나오더우만 “나이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걸 알고 있었다”고 말이야 (잠시 사이) 자 한잔씩을 들지. 바벨텐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를 했는데. 자 어서들 들어. (이근삼교수쪽 스포트 사라지고, 3명의 선배들 쪽 조명 들어온다.)

정한용 그 개새끼 왜 죽고 지랄이야! (눈물을 닦는다.) 지 아버지가 어떨지 알아? 쪼다같은 새끼!

박준용 (수건을 꺼내 코를 풀며) 야! 야! 술이나 먹자. 미치겠다!

김철리 ×팔! 그래 그말이 맞는대구. 산사람이 더 견디기 힘들고 고통을 받는 거라는 얘기가 말야. 그 자식은 그래도 고통없이 편하게 떠났잖아.

박준용 그놈 욕심이 많았던 모양이야. 우리가 학교 떠나고 난뒤라 곁에서 자세 히 보진 못했지만, 작품도 쓰고, 연기도 하고, 연출도 하고...

김철리 아직 뭘 제대로 해내진 못했지만 하고 싶은건 다 해보다 갔으니까 그래도 행복한 거겠지.

정한용 쌍놈의 새끼! 그 새끼 그거 나쁜 새끼야! (술을 먹는다.) 저는 그럴 지 몰라도 남아있는 식구들은 어찌란거야? 내 ×팔 꺾어봐서 안다구. 작년에 우리 애새끼뻘에 나도 여기 왔었잖아. 똥도 안돼서 말야.

박준용 야! 야! 정발정! 술먹어! 술 먹으라구.

김철리 (약간 술이 들어갔다.) 그래. 씨×, 인생 ×같은 거야. 그냥 살아있는 동안 ×나게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는거야!

박준용 발정야! 너 녹화하러 가야된다구 그러지 않았냐?

정한용 ×팔 시간은 다돼 가는데 이거 뭐 기분이 나이지.

박준용 그래도 가야지. 나도 회사에 들어가야돼.

김철리 나도 연습장에 가봐야돼.

(“에이 ×팔” “×갈에” 등등의 쌍소리들을 한마디씩 하며 모두들 남은 술잔을 훌쩍 마신다.)

암 전

실은 졸업후 대학교 후배인 이유철군과는 계속적인 만남이 없었다. 그러나 앞에 쓴 얘기들은 그후배와 나 사이에서 가장 명확하게 머리속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기억들이다. 더군다나 박준용선배, 친구인 정한용 또 은사이신 이근삼교수님과 자리를 함께 했던 시간들로서. 물론 그 당시마다 주고받았던 얘기들은 실은 내가 지금와서 써는 그대로가 아닐지도 모른다. 허나 선배들의 쌍소리 부분들은 거의 정확할 것 같다.

강의실

이유철

-이 시를 모든 낙제생에게 바칩니다.

회색빛 젖어든 작은 공간에서
영원히 따라잡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또 다시 연필의 한숨을 들어킨다.

하얀색 글씨와 까만색 글씨는
영원히 매듭지어지지 않으리라는 헛갈림 속에
무엇인가를 주고받으려는 땀방울이 영롱하다.

침해받지 않는 조그만 세계를
부딪쳐 아롱지는 키랑한 목소리로 가득 채우려는
이십년의 피와 땀이 반짝인다.

이쉬움, 긴장, 환희의 엇갈림 속에
또 다른 만남을 헤어짐 속에 물어버린 뒤
그들은 산뜻한 발걸음으로 공간을 가로 지른다.
비록 무의미한 시간이었을지라도

1984. 9. 25

처음이며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

유상우

보성고교 동창. 음악단체 「미르」의 멤버.

유철아./

대답할 수 없는 멀고 먼 곳에 가버린 너를 소리쳐 불러본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우리들은 항상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싸웠어도 그래도 너와 함께 인생의 한 모퉁이를 더불어 숨쉬고 싶었는데 ... 너는 그것을 외면해 버리고 말았구나.

네가 즐겨 부르던 노래가 아직도 내 귓가에 생생하다. 그리도 노래부르기를 좋아했던 너./ 너는 짧은 생애를 아끼며 굶고 보람있게 살아 네 삶의 자취를 남은 이들의 가슴 깊이 심어 놓고 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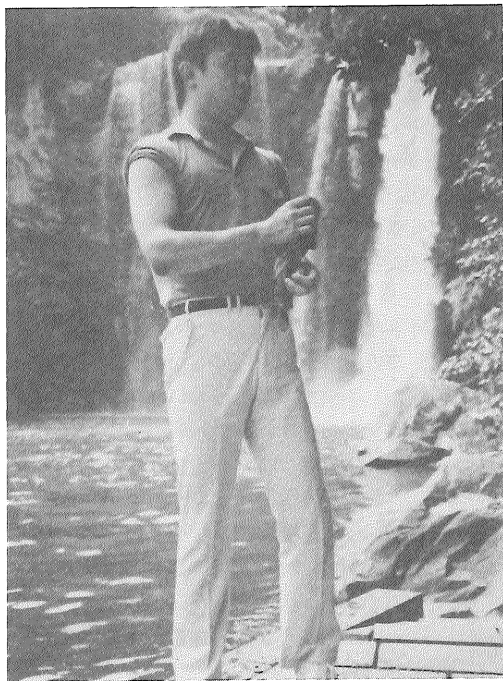
유철아./

그처럼 부르고 싶어하던 노래를 채 부르지 못하고 훌쩍 떠난 너, 아무려면 네 갈 길이 그렇게 바빴더라 말이나? 이월의 열네번째 날 우리 함께 콘서트를 갖기로 했었지. 이를 열흘 앞둔 이월 나흘째 되던 날, 첫 연습을 위해 모임을 약속해 놓고선, 그 날 새벽에 너는 다신 올 수 없는 길로 가버렸다. 너는 터질 듯한 Band의 반주아래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열창할 것을 몹시도 자랑스러워 하며 기대했었지. 홀로 부르던 너의 노래는 지금도 허공을 맴돌고 있는 것 같다. 네가 기획했고 네가 도안했던 600매의 초대장은 이 땅에 남겨놓은 마지막 네 숨씨가 되었다. 초대장에 담겨진 네 이름 석자는 이 눈을 시리게 했고 그 아픔과 허무를 달랠길 없어 네게 '처음이며 마지막인 편지'를 쓴다.

유철아!

너는 가끔 상상으로 영화를 한 편씩 만들곤 했지. 그 줄거리가 너무 웃겨서 그때마다 배꼽을 잡고 웃곤 했었다. 그 재치와 장난기 어린 총기마저 모두 갖고 떠나가 버린 지금, 어디에서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비가 오는 날이면 술잔을 기울이던, 함께 노래하며 이야기하던 그 자리는 이제 비어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못다한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그때까지 네 영혼의 평안을 빈다.



그 푸르름을 아쉬워하며

엄정국

서강연극회 지도교수. 서강대 전산학과 교수.

새해가 되고나서 우리는 왜 이리도 많은 젊은 죽음을 맞이하여야 하는가..., 피어오르다 만 불꽃처럼, 긴긴 앞으로의 시간을 쬐어 보지도 못하고 그 푸르름을 미처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스러져간 젊음들이 항상 우리 주위에 있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고 안스럽게 해왔지만 요즈음은 유난히도 많이 이품을 경험하게 되어 세상의 때가 두껍게 덕지앉아 무디어진 가슴을 무언가 알 수 없는 분노와 비애로 물들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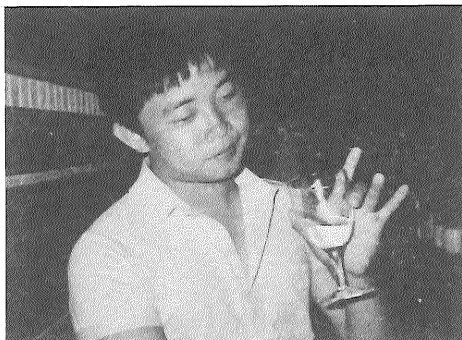
그러나..., 이 유철 - 그가 우리를 떠나갔다는 사실은 더 다른 크기와 무게로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느낀다. 어떤 사회적인 분노도 정치적인 비애도 섞이지 않은, 짧은 시간으로 생애를 끝낸 유철이의 젊음이 안타까움과 우리의 친구를, 동지를 잃었다는 순수한 슬픔이랄까... 정말 우리는 아까운 연극인 하나를 잃은 것이다.

유철이는 타고난 연극인이었다. 부친이 널리 알려진 연극인이시고 또한 형제들 모두가 연극에 종사하고 있는 연극집안의 토양에 뿌리를 박고 자라난 젊은이답게, 굿은 일 도맡아 하는 back staff 일로부터 기획과 배우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면에 재능을 나타냈고 항상 무대 주위에서 떠나지 않는 열성을 보였다. 경제과에 적을 두고 있는 경제학도가 연극이라는 결코 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일에 탐닉해 있다는 사실의 아이러니가 우리를 놀라고 즐겁게 했고 그가 코메디에서 보인 재능 또한 우리를 경이롭게 했었다.

빠지지 않고 대학기의 학교공연에서 정열을 쏟았고 고틀리나 몰리에르와 같은 고전극에서부터 현대의 번역극과 창작극까지 섭렵하고도 극예술에 대한 갈증을 채우지 못해 - 아니 아마도 그 목마름은 더욱더 심해졌으리라 - 그는 대학연극에의 많은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좀 더 본격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극회 「작은신화」를 조직하여 더 깊고 넓은 경험을 쌓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그의 재능이 숨겨진 보석처럼 갈고 닦음이라는 과정을 거쳐 반짝이는 광채를 발하려고 하는 순간,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리고 여러 사람의 가슴에 두고두고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기는 못을 박고서 유철이는 홀로 가 버렸다. 멀고 먼 곳, 우리들과 떠돌고 즐거워 하고 고뇌하며 같이 연습할 수 없는 곳으로. 그곳에는 비극도 희극도 없겠지. 무대와 조명이 있을까? 그가 그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태연히 연기하며 웃길 관객이 있을까? 우리는 언제 다시 그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까... 아니, 유철이는 이제 그만 그런 것들에게서 떠나야 한다. 뜨거운 조명 아래에서 연기해야 할 일도, 성공적인 연극이 될까를 걱정해야 하는 연출이나, 공연의 성공을 염려해야 하는 기획일의 시름도, 관객의 반응에 신경을 써야 하는 모든 짐들을 이곳에 남은 선배와 친구, 후배들에게 남겨놓고 영원히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결국 연극은 완성이 아니라 하나의 도전이고 과정이라면 우리는 언젠가 유철이와 똑같은 상태로 몸만 더 늙어서 만나리라.

유철아, 너의 연극을 향한 그 뜨거운 정열과 미련, 그리고 젊음의 고뇌와 갈등 모두를 이 곳 땅 위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접어서 넘겨주고, 너를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영혼 가득히 채우고 이제, 이제는 편히 쉬거라... 유철아!



청지회곡

심청전

이유철

이 회곡은 유철이가
보성고 1학년 때
습작한 것이다.

나오는 사람들

심청-17세. 장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이름난 효녀.

심학규-40대. 심청의 아버지.

뽕덕어미-40대. 건너 마을에 사는 심술궂고 간사한 여자.

박민호-20대. 미국 뉴욕의 종합병원의 안과담당의사.

어릴때 미국으로 건너간 재미교포 청이와 결혼한다.

<무대> 1장

막이 열리면 무대 가운데 집이 한 채 있고 그 앞에서 심청이가 쪼그리고 앉아있다.

심봉사 (방안에서 문을 활짝 열며) 애! 청아- 이 애비를 굶겨 죽일 셈이나? 아침 건너뛰고 점심 생략했으면 저녁이라도 줘야 할 것 아냐?

심청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아버님.

심봉사 왜 그래!

심청 저- 쌀이 떨어졌는데요-. 한끼만 더 굶으실 수 없겠사옵요? ...

심봉사 뭣이! (방에서 뛰쳐나와) 아니, 이것야 쌀이 없다니, 쌀이 떨어졌다니.

(신발을 찾는다. 마당 구석에 떨어져 있는 구두를 주워 신으며) 아니, 이것야.

이 애비 눈이 안보이는 걸 알고 구두를 감춰놨구나. 네가 날 병신 애비라고 천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 못써요 못써!!

뽕덕어미 (두툼한 보자기를 가지고 등장) 아니, 집이 왜 이리 소란해. (심봉사에게 달려가) 아유- 영감, 왜 또 이러

우?

(청이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오라, 네가 우리 서방님을 또 굶겼구나.

이 분은 내 서방이자, 너의 아버님 아니시냐? 네가 그럴 수가 있니 양??!

심청 그렇게 아니라.

뽕덕어미 (소리를 버럭 지르며) 아니긴 뭐가 아냐, 응? 네 아버지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알기나 아니?

심청 (고개를 푹 숙이고) 알아요. ...

뽕덕어미 알아도 또 한번 들어! 너의 아버지께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저, 한길 육교 위에 오르셔서 보잘 것 없는 솜씨로 기타치며, 노래를 하시어 행인들이 던져주는 돈으로 우유를 사서 널 먹여 키우시지 않으셨나? 그런데 넌 하루 종일 아버지를 굶길 수가 있느냐?

심봉사 (박수를 치며) 웬소!!

심청 (눈물을 흘리며) 그런데, 아버님이 쌀사라고 주신 돈은 뽕덕어미가 다...

뽕덕어미 시끄러워! 어디서 말대담이야? (심봉사의 손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며) 아유- 영감, 내가 가게에서

빵이랑 우유를 사왔으니 그거래두 접수 시우.

심봉사 역시 날 위해주는 사람은 빵덕 어멈 하나구만. (방으로 들어간다)

심침이 눈물을 흘리며 서있는 가운데 (앞 전)

(무대) 2장

한적한 산길. 무대 저쪽은 개천. 막이 열리며, 심봉사 막대기를 두드리며 개울쪽으로 걸어온다.

심봉사 (천천히 걸어가면서) 하!! 오늘은 날씨도 좋네. 오늘은 빵덕어멈하고 같이 영화구경이나 갈까? (잠시 짐묵) 췌... 극장에 가면 뭘해 뭐가 보여야 가지. (걸어간다)

계속 걸던 심봉사 발을 헛디어 개천으로 빠진다. 이때 교회의 목사 등장. 심봉사의 S.O.S구조를 듣고 개천으로 달려가 심봉사를 구출한다.

심봉사 (기침을 하며) 아이고, 물에 빠져 죽을뻔한 이 봉사를 살려주신 은인이 대체 누구시오?

목사 (헛기침을 하며) 저로 말씀드리자면 산꼭대기 교회에서 살며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김기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심봉사 (목사의 손을 잡고) 아이고, 그럼 목사님이시군요. 아유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여하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 (심봉사의 웃웃을 벗기며) 어서, 이 옷부터 벗으시오. 어서요!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감기 걸립니다. (잠시 앞전) 심봉사 속옷만 입고 앉았었고 그 옆에 목사가 앉았었다.

목사 그러나, 저러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 개천엔 몇년 전에 창경원에서 탈출한 악어가 살고 있다고 하던데요.

심봉사 (놀란듯) 그래요? 이게 다 목사님 덕분이죠 뭐!

목사 하하하... 고맙다는 말씀은 하느님께 드리셔야 될 겁니다. 어젯밤 꿈에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내일 아무시에 저 아래 아니 아랫마을에 있는 개천에 봉사가 하나 빠질테니 가서 건져주라고 하셔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심봉사. 아니! 목사님도 하느님이 어디 있으? 그런 다 미신이란 말이오.

목사 (벌떡 일어나며) 뭣이라고요? (품속에서 성경을 꺼내 펼쳐 보이며) 여기를 보십시오. 태초에 하느님께서...

심봉사. 아니! 날 놀리는거요? 그 성경책이 안보이는 줄 뻔히 알면서...나더러...

목사 (머리를 긁적이며) 아, 미안하오. 여하튼 태초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는다) 아시겠소?

심봉사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아까조기 (성경책을 손가락질하며) 538P에서 하느님께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데...

목사 그래서요?

심봉사 그럼 내 눈도 뜨게 하실수도 있

겠네요?

목사 그... 그럼요. 그런데 그러려면 자금이 약간 필요해서...

심봉사 돈이라면 얼마든지 내겠으니...

목사 그러면, 큰 걸로 두 장만 갖고 오십시오. 내가 하느님께 빌어 볼테니

심봉사 (말을 더듬으며) 그, 그, 그 큰 것 두장이라는게 설마... 설마...

목사 그렇소. 2백만원이요. 다시 말하자면 백만원짜리로 두장 십만원 짜리로 스무장. 천원 짜리로는... 저 (손가락질 한다)

심봉사 (힘없이 일어나서) 알겠소. 구해 보도록 하죠...

목사 아야! 드디어 부자가 됐구나? 그 돈만 있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히히히. (퇴장한다. 암전)

〈무대〉 3장

무대 밝아오면 심청은 집 마당에서 왔다 갔다 거리며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다.

심청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한다지? 아버지가 가지신 돈은 땀덕어미가 다 긁어가고 이젠 밥까지 굶을 참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계라도 조직할 것을, 화장품 살 돈을 저축이라도 해놓을 걸. (한숨을 쉬다가 고개를 들고) 할수 없지, 뭐. 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심청이 밖으로 나간다) (암전)

심청 (돈 보따리를 들고) 휴-. 동네 북부인들한테 사흘후에 준다고 하고 한 사람 앞에 십만원씩 꿴서 이백만원 만들

긴 했는데... (눈물을 닦으며) 이 돈을 어떻게 잡지?

심봉사 (방에서 나오며) 얘, 청아 개 있느냐?

심청 (쫓르르 달려가서) 네. 아버님.

심봉사 그래, 돈은 구했느냐?

심청 예. 겨우 겨우.....

심봉사 그래! (돈 보따리를 뺏으며) 그럼 어서 내놔라. 이 길로 황하니 달려가서 눈을 뜨고 와야겠다. 그럼 갔다 오마. (달려 나간다)

심청 (심봉사의 구두를 쫓어들고) 아니- 아버님! 신이나 신고 가세요. (쫓아 나간다) (암전)

〈무대〉 4장

때는 심봉사가 교회에 갔다온지 사흘 후이다. 심청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다. (빨래판, 방망이 준비)

심청 (빨래를 두드리며) 아버님, 눈 뜨셨어요. 어서 일어나 식사... 아니지 밥이 없지! 물이나 한대접 잡주세요.

(이때 때문에 동네 북부인 십여명이 나 타난다)

심청 (깜짝 놀라며) 어머, 웬일들이세요?

북부인A 뭐? 무슨일. 너 나한테만 십만원 짜잔 줄 알았더니, 이 분들한테 전부 십만원씩 꿴 거잖아. 어서 갚아라 응?

심청 물론, 갚아야죠. 하지만 며칠 더 기다려 주실순 없으시겠어요?

복부인B 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러니? 오늘 저 강남에 아파트단지에 투기하는데 보태 쓸 돈이란 말이다. 어서 내놔!

(복부인들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손을 내민다.)

심청 죄송해요, 며칠만 더...

복부인들 안돼! 당장 내...아니 내놔?

(심청에게 다가간다)

심청 (다급해지자 빨래 방망이를 집어들고) 가까이 오지 말아요! 가까이 오면 이걸로... (방망이를 높이 쳐든다)

복부인들 (물러서며) 아니, 저, 저...

심청 무슨 여자들이 그렇게 인정이 없어요. 장님 아버지 눈을 뜨게 해 드리려고 돈 좀 꾸서 제날에 못 갚는다고 이렇게 집안까지 쳐들어 와서 소란을 피울수가 있어요?

복부인들 (일제히) 그럼! (또 다가온다)

심청 (빨래판을 집어들고) 에이! 우선 살고나 보자.(밖으로 뛰어간다)

복부인들 잡아라(쫓아간다)

심봉사 (방에서 나와) 얘, 청아... 청아... (조용히 있다가) 얘, 청아!

뽕덕어미 (뛰어 들어오며) 여보- 여보- 영감 (허겁지겁)

심봉사 (방에서 나와) 얘, 청아, 청아... ..

뽕덕어미 헛소리 그만하고 내 말 좀 들어보우. 글썽 청이가...

심봉사 아, 천천히 말해봐. 청이가 뭘 어쨌다는 거야?

뽕덕어미 글썽 청이가 동네 복부인들의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어요.

심봉사 (깜짝 놀라며) 뭐? 그러면, 그러면 그 돈을... 청이가 나를 위해서 그런짓까지... (뽕덕어미를 붙잡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되었소?

뽕덕어미 글썽, 빨래판을 붙들고 바다로 뛰어들어 가더니만, 헤엄을 쳐서 수평선 멀리로 사라져 버렸어요.

심봉사 (눈물을 흘리며) 청아, 흑흑, 네가, 네가... 이럴줄 알았으면... 어릴 때 수영학원이라도 보낼 것을...

(암전)

무대 밝아오면 심봉사 마당에서 있다.

심봉사 청이가 물에 빠진지 일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걸 보니 죽은게 분명하구나... 흑흑...

우체부 등장 여러 곳을 기웃거리다가 우체부 이 동네 심학규씨 댁이 어딘지 아시오? (대문 안으로 들어선다)

심봉사 제가 바로 심학규씨... 뭘니다만, 댁은 뉘시요?

우체부 보면 모르오? 우체부 아니오? 우체부!

심봉사 (머리를 긁적이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장님이 돼나서 그만...

우체부 아, 그렇소? 실례했소. 그건 그렇고 문패 좀 봅시다. 이 집 찾느라고 사람들한테 물으며 다니느라고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소. 아- 그건 그렇고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며) 이 편지 받으시오. 미국에서 온 건데, 심청? 애쭈

영어로 썼어?

심봉사 (깜짝 놀라며) 뭐, 뭐라고요? 그건 내 딸 이름인데... 그렇다면 칭이가 살아 있었구나! 청아, 청아! 아— 그 편지 좀 읽어 주시오

우체부 아, 그러지요. (편지를 꺼내어 읽는다) 아버지 전상서. 하, 글씨 한번 예쁘네! 아버지 그동안 기체후 일양만 강 하십니까? 불효역시 칭이는 1년전 빨래판을 끼고 표류를 하던 중 향해 중인 미국 상선을 만나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표류를 하느라 나빠진 건강을 뉴욕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재미교포인 안과의사와 눈이 맞아 (읽다 말고) 눈이 맞았어? 좋구나—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 아버지 얘기를 드리니 그분은 아버님의 눈을 수술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편지 봉투 안에 비행기표와 여권을 보내니 이달 모일 모시까지 김포공항에 나가셔서 비행기를 타시되 대한항공의 비행기는 연발이 되기 일쑤이고 사고가 날 위험성이 크다 하니, 다른 비행기를 타고 뉴욕까지 오시면 제가 마중나가겠습니다. 불효자식 심청 올림. 하— 당신 좋으시겠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심봉사 어유, 감사합니다. 심청아, 고맙다, 고마워... (암전)

<무대> 5장

장소는 뉴욕의 공항 잘 차려입은 칭이와 박민호가 서있다.

(스피커에서 안내원의 말이 들려온다)

—모 항공 소속 ××번기가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심청 민호씨, 아버님이 오셨나 봐요!
박민호 오, 그런가 보군.

심청 저기 오시네요, 아버님!! (손을 흔들며) 아버님 여기예요.

심봉사 (심청의 앞으로 걸어온다) 칭— 칭이가 어디있느냐? 청아...:

심청 (눈물을 흘리며) 아버님 저 여기 있어요... 아버님. (껴안는다) (잠시후 포옹을 풀고) 아버지, 여기 이 분이 제 낭군이신 박민호씨예요. 직업은 안과의 사세요.

심봉사 (박민호의 얼굴을 보며) 허— 그 사람 얼굴 한번 시원하게 잘 생겼다.

박민호 안녕하십니까? 장인 어...아니, 저 얼굴이 보이세요?

심봉사 하하하, 아닐세. 칭이같은 질 색미녀가 반할 사람이면 틀림없이 미남 아니겠나? 하하하...(일동 웃음)

심청 아버님, 가세요, 오늘 당장 수술을 시작해요, 네?

(세 명이 퇴장하면 다시 암전)

병원 안의 침실이다. 침대에는 눈에 붓대를 감은 심봉사 누워있고, 그 옆에는 박민호와 심청이가 서 있다.

박민호 장인어른. (심봉사의 손을 잡으며) 이제 붓대를 풀겠습니다.

심봉사 그래! 어서 풀어봐. 어서.

박민호 네. (붕대를 푼다. 붓대가 너무 많이 감겨있어 푸는데 시간이 걸린다)

심청 아버님... 기분이 어떠세요?

심봉사 말 시키지 마라. 지금 긴장되는 순간이야. (하품)

(이윽고 붕대가 풀린다)

박민호 아, 아버님 눈을 떠보세요. (짐 삼키는 소리)

심청 아버지! 눈을 떠 보세요, 아버지!
! (긴장)

심봉사 그래. 알았어, 알았다고 (천천히 눈을 뜬다)

심봉사 오!! ...

심청 (심봉사 옆으로 달려가며) 아버님, 보이세요?

심봉사 오!!

박민호 (심봉사 옆으로 달려가며) 아버님 보이십니까?

심봉사 (머리를 돌려 심청이를 쳐다본다) 아니? 아가씨는 누군데 여길...

박민호 아버님, 이 사람이 바로 청이가 아닙니까? 심, 청, 이요

심봉사 (박민호를 쳐다보며) 아니, 당신은 또 누구요?

심청 아버지, 이 분은 제 낭군이세요

심봉사 (고개를 저으며) 아냐! 내가 봤던 심청이는 조그만 아이였어. 귀엽고, 똑똑하고 ...

심청 그건 옛날 얘기예요. 벌써 10년 하고 8개월전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12월에 내린 첫눈을 맞으며 거리를 걷고 계실때 개구장이 꼬마 녀석이 던진 그, 그... 연탄조각을 넣은 눈덩이에 맞아서 눈이 머시기 전에 본 청이었다고요. 이제 전 결혼까지 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10년 동안 제가 조금도 자라지 않았을 줄 아셨어요

박민호 (박수를 치며) 웬소!!

심봉사 (심청이의 얼굴을 보며) 그럼, 네가 바로, 바로... 내 딸 청이란 말이나?

박민호 제 부인이기도 하고요!

심봉사 (심청이를 껴안으며) 청아!!

심청 아버님!! (암전)

무대 밝아오며 심봉사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심청 (심봉사의 손을 잡으며) 아버님, 글썸 여기서 사시자니까요

심봉사 (손을 뿌리치며) 짜라. 이 타국 땅의 물질문명이 그렇게 좋더라 말이나.

심청 아버님, 그게 아니고...

심봉사 우린 한국사람들 아니냐? 그러나 편하건 불편하건 우린 우리의 조국땅에서 살아야 할 것 아니냐?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어나가며) 그럼, (돌아서서) 빠이, 빠이! (다시 나가려 한다)

박민호 아버님, 잠깐

심봉사 (다시 돌아서며) 아차! (가방을 놓고 박민호 앞으로 걸어온다) 자세하고 악수하는 걸 잊었군! (악수를 한다) 내 딸 잘 부탁하네! 나는 내 조국으로 돌아가서 새 대통령을 모시고 새 나라를 건설하는데 앞장 서겠네! 그럼.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심청, 박민호 서로의 얼굴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함께 문밖으로 뛰어나간다.

심청 아버님 같이 가요! 저도 한국으
로 돌아가겠어요
박민호 저도요!

-막-

〈제십팔공화국〉의 연출론

이유철

공연시기 86. 11월 12~15일 동덕여대 국문학과 연극반 장반공연

제목부터 「제십팔공화국」은 욕으로 시작되는 체제풍자적 작품으로서, 국내에서는 얼마전 중앙대 연극영화학과에서 「第18世界」라는 제명으로 공연된 이후 두번째로 무대화되는 것으로 안다.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세가지 때문이다.

첫째, 난 그 사회와 체제를 의면한 채,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아무런 의식없이 올려지는 연극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멸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둘째, 여자대학교 여자들만 출연해야 될 작품이기에, 뚜렷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즉 등장인물이 단지 실험인으로서 등장하는 서사극류를 택해야 했고(난, 여자들이 수염을 붙이고 남자로서 몰입하는 걸 도저히 바라봐줄 수가 없다. 어차피 변소에선 앉아서 일을 보므로),

셋째, 국어국문학과에서의 공연이므로 국산작품을 골라야 했다.

「제십팔공화국」은 1965년에 탈고된 작품이다. 5.16쿠데타를 전후하여 펼쳐진 한심한 정치적 작태들을 비꼬면서 진행되는 이 작품을 들여다보면서 놀란 것은, 희곡이 쓰여진지 20여년이 흐른 현재에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었다.

모든 인간들의 의식세계는 그 시대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의해 조작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상황이 압박과 모순, 부조리로서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자명한 일이다. 결코 인륜과 천륜을 저버린 폭도들에게 억압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 글은 공연 팸플릿에 썼던 것으로
〈제18공화국〉은 유철의 부친의 희곡임.

창작희곡

송의원의 죽음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유철

서강대 교지가 모집한 「서강학술문예대상」에
응모, 희곡부문에서 당선됨. 1986년 12월 1 일에
발간한 「서강」 통권16호에 게재되었음.

나오는 사람들

수원택(40대 중반)	선술집 주인
응 수(20대)	구두닦이, 병어리
박 씨(50대 초반)	청소원
조 씨(40대 초반)	방법대원
현 양(20대)	찻집 종업원
송기호(50대 중반)	국회의원
최기자(30대)	신문사 사진기자

변두리의 한 선술집 내부. 무대 왼쪽에 허름한 조리대와 선반등이 있고, 오른쪽엔 썩기담이로 된 출입구가 있다. 무대 중심에 드럼통 또는 나무로 만든 테이블 몇 개가 놓여져 있으며, 무대 왼쪽 상단엔 이집 주인인 수원택이 기거하는 방의 문이 보인다.

대체적으로 허름한 분위기의 술집 내부를 나타내기만 하면 된다.

멀리 새벽닭 우는 소리와 함께 무대 서서히 밝아오면, 찬거리를 준비하는 수원택과 테이블을 행주로 닦고 있는 응수의 모습이 보인다.

수원택 (도미질을 멈추고)아, 이것야! 그렇게 닦아내다간 그놈의 술상 금새 닳아 없어지잖아. 이제 됐으니 좀 그만해.

응수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며)아우오에 아이 아우아.

수원택 (응수쪽으로 다가 나오며) 이제 됐으니까 좀 그만 해 두라니까! 그놈의 팔백원짜리 국밥 한 그릇 값쯤 진즉에

다 한거란 말이다. (응수에게서 행주를 뺏는다.) 이것야! 어른 성의는 그냥 성의로 받아 들여야지, 꼭 그 값을 할려구 드냐?

응수 (도리질을 하며)아오아, 아오아, 수원택 뭐가 아니야, 아니긴 아침부터 냄새나는 그 구두짝을 닦으려면 진이 다 빠져 버릴텐데 잠이나 즐기치게 잘 것이지, 꼭두새벽부터 웬 행주질이야? (의자에 털썩 주저 앉으며) 까짓 국밥 한그릇 얻어 먹은걸 가지구... 말을 못하면 심성이라두 독히 먹어야 돈을 벌 것 아니야.

(등배 한대를 피워올 때 청소원 박씨가 들어온다)

수원택 (일어서며) 아이구, 어서 오시구려. 이제 일 끝내셨우?

박씨 (의자에 앉으며) 그렇지 뭐. 그 돼지비계하구 쪼주나 한병 주슈. (응수를 보고) 아니 앤 요 앞에서 구두닦는 응수 아니요?

수원택 아니면 누구겠어요?

박씨 아니 이놈이 새벽부터 여긴 웬일이요?

수원택 며칠전에 그놈 자리잡은 회사가 노는 바람에 밥값을 못 벌어서 굶고 있는게 하두 딱해서 불러들여 국밥 한그릇 말아 먹었더니 그 값을 한다구 저 지랄이지 뭐유.

박씨 그럴만두 하지. 저놈은 말은 못해 두 심성 하나는 고이 백힌 놈이잖어. 아니 근데 그 자리가 권리금이 얼마인데, 하루 못 벌었다구 밥을 굶는데?

수원택 아, 몰라서 그래요? 저놈이 저 지금통엔 몇 백을 꼽아 농구두 일전 한푼 안꺼내 쓰는 놈이란걸?

박씨 허허허, 하긴 그렇지.

수원택 그건 그렇구, 복날두 가까운데 어떤 집에서 피둥피둥 살찐 강아지 새끼라두 죽어 나오지 않아요?

박씨 왜 아니야? 그저께두 기름이 잘 잘 흐르는 놈 갖다가 동네사람이 한입씩 나눠 먹었는데. 근데 그 개 키우는 사람들은 하루에 개밥값으루다 몇천원씩 들인다면서 저저 좀 죽을라는 기색이라두 보이면 쟤꺼덕 쓰레기통에 처박는다니까. 물론 덕분에 우리같은 사람들 기름기 좀 채우지만, 도시 이해할 수가 없다니깐.

수원택 아, 개새끼들 운명이 그런걸 어떻게 해요?

박씨 나라면 그동안 개밥값으로 나갔던 돈 아까워서라두 그걸루 개장국 끓여 먹겠는데.

수원택 그런 사람들이 징그러워서 개를 먹겠어요?

박씨 아, 지렁이까지 쳐먹는 것들이 징그러긴 뭐가 징그러?

(이때 방범대원 조씨가 들어온다.)

수원택 아이구, 이게 누구셔. 우리 조형사님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로 행차셔?

조씨 (박씨의 옆 테이블에 앉으며) 그놈의 형사 소린 좀 집어칠 수 없어?

수원택 아, 형사가 별건가, 도둑 잡으면 다 형사지.

조씨 (벌컥 화를 내며) 아, 글썸 그만 두라던 그만뒤!

수원택 (깜짝 놀란다. 박씨 역시.) 아니 왜 새벽부터 소리는 지르고 그러셔. 뭐 못먹을 거라두 드셨나?

조씨 (한숨을 내쉬며) 술이나 한잔 취. 국밥두 좀 말아주고.

수원택 네, 알겠어요.

박씨 이보게. 자네 뭘 일이라두 생겼는가?

조씨 에이 씨팔! 드러워서.

박씨 무슨 일이 있으니까 자네같은 모범공무원이 목을 축이러 온거지. 그렇지 않나?

조씨 그놈의 공무원, 때려 치웁니다.

박씨 이사람, 그게 무슨 소린가? 오늘 밤에 뭐 배알 풀리는 일이라두 생긴거야?

조씨 거 술이나 한잔 좀 주세요.

박씨 아 그러지. (소주 한잔을 뺀 하니 비우고는 조씨에게 권한다.)

웬일이야? 안하던 술을 다하구.

조씨 (역시 소주를 한모금에 비우고 박씨

에게 권하며 빌어먹을 것들!

(이때 수원택이 소주와 국밥을 들고와 조씨 옆 의자에 앉아, 그것들을 테이블 위에 빌려놓는다.)

조씨 두어시간 전쯤에 어떤 새끼를 하나 잡았었어요.

수원택 아니 그놈이 뭘 짓을 했는데요?

조씨 자동차 유리창을 부셨어요. 벽돌장으로 산산조각이 났죠. 차고가 없어서 집 앞에 세워놓은 찬데, 그 짧은 놈이 술 쳐먹구 꼬장 부린답시구 부셨더라구요. 마침 그 구역 순찰을 들고 있어서 금새 잡긴 했죠. (술잔을 비우자 수원택이 재빨리 채워준다.)

수원택 거 국몰이라두 좀 떠 마시구려. 웬 술만 그렇게 퍼 넣어요?

조씨 알았으니까. 내 얘길 마저 들어보라구. 아, 그래서 그 놈을 끌고와서는 차주인을 불러러 보낸 틈에 말을 좀 붙였었지. 많이 취했냐구 말이야. 아 그랬더니 그놈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건방지게 자기가 누군줄 알고 감히 끌고 왔느냐 이거라. 내참 기가 막혀서. 그랬더니 이번엔 파출소장 불러오라는 거 아니겠어.

박씨, 수원택 (동시에) 아니, 그래서!

조씨 내 성질 알잖수. 엄마 쫓이나 빨놈이 당기냐고, 몇 대 쥐어 박았지. 그랬더니 이놈이 나한테 덤벼들잖어. 옆에 친구들이 말리지 않았으면, 그놈 벌써 어디가 부러져두 단단히 부러졌을거야.

박씨 아니 그놈 나이가 몇 살이나 되길래?

조씨 21살 이랍디다.

수원택 아이고, 새파란 놈이 그게 웬 꼴이래요.

조씨 따져보면 지두 뭐 쌓이는게 있니가 술 좀 마셨겠쥬.

박씨 그럼 점잖게 마셔야 되잖어. 우리나라두 어린애들 한테는 술을 못팔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수원택 어디선가 들으니까 거 선진국에서는 만으로 몇 살인가 밀으론 술을 못 팔게 한다던데요? 이상두 하지, 만 건 다 선진국 따라 하면서 왜 그건 안 따라 하는지 모르겠네.

조씨 난들 아나! 다 뒷사람들 해 먹는 소관인걸.

박씨 그래서, 계속해 봐. 그담엔 어떻게 되었어?

조씨 알구 보니까 그놈 아버지가 뭐 별 두개가 잤아요.

수원택 그게 뭐래요?

조씨 군인 말이야! 아, 장군!

수원택 (끄덕이며) 아~그래서요?

조씨 김순경인가가 서장님 댁에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서장이 금새 파자마 바람으로 달려와서는 그 새파란 걸 붙잡구 아부를 하는거라. 그러더니, 날 야단치기 시작하더니, 그놈을 집까지 데려다 주고, 피해자 보상은 우리가 알아서 하라는 거였지.

박씨 그래서 자넨 다 집어 치우라고 소리 한번 뽕 지르고 나왔겠구.

조씨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우?

수원택 뻔하지 뭐. 조형사님 성질이야

삼척동자인들 모르겠우?

조씨 아유, 나두 모르겠우. 널 당장 목 찢리기 밖에 더 하겠우? 술이나 들시다. (그들이 술잔을 돌리고 있을 때 찻집 증업 원인 현양이 지친 몸을 이끌고 천천히 들어 온다. 용수는 반가운 듯 벌떡 일어나 그녀를 맞는다.)

현양 (용수가 다가오자) 저리비켜./

(용수 무안한 듯 물러선다.)

아줌마, 나 밥 좀 먹게 해 줘요. 아유 피곤해.

수원택 (조리대로 가면서) 이제야 영업 끝난 모양이지?

현양 네. 웬 꼴대가 외박하자구 부득 부득 끄는 거 뿌리치느라구 이렇게 늦었지 뭐예요. 미스김 언니랑 정향이는 남땀빼구 있는 동안 지들끼리 국수 말아먹구 자잖아요. 빨리 줘요. 배고파 죽겠어요.

수원택 그래, 고향엔 별로 없구?

현양 (깊은 한숨을 쉬며) 웬걸요. 이번 달엔 우리 엄마까지 앓아 누우셨데요.

걱정돼 죽겠는데 내려가 보지도 못하구.

수원택 왜? 후딱허니 내려갔다 오지.

현양 장사는 어떡허구요. 이번 달엔 동생들 등록금에다 엄마 약값까지 부쳐야 하는 걸요.

수원택 (밥을 날라온다.) 동생들이 몇이나 된됐지? 셋이랬든가?

현양 네, 고등학교 이학년짜리 남자에랑, 중삼짜리 여자애하구, 국민학교 다니는 기집애예요.

수원택 집에서 농사는 짓구?

현양 웬걸요, 얼마전까진 보리 몇 가마 정도 거들 땅이 있었는데, 그거 팔아서 돼지 몇 마리 샀다가 졸딱 망했어. 그통에 엄마가 울화가 터져서 앓아 누우신 거죠.

수원택 그랬었구면. 쫓쫓...

박씨 근데, 현양은 더 수입 좋은 데루 옮기지 않구 왜 찻집같은 데 있는 거야?

현양 아유, 더 수입 좋은 데래야 써름이나 요정같은 텐데 저같이 자유분방하게 생겨서야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리구, 그동안 정들었던 미스 김언니랑 정향이랑, 어떻게 헤어진대요? 그냥 이렇게 있는게 맘은 편해요.

조씨 현양은 애인두 없어? 그저 누구하나 꺾 물어서 신방이라두 차려버리면 편하잖어.

현양 애인이구 뭐고 다 귀찮어요. 게다가 요즘 사내들은 여자보다 더 여우같아 쳐서 웬만해선 사랑이구 뭐구 쏟질 않는 다구요. 그저 어떡하면 날 데리구 허룻 밤 지내볼까 그 생각 뿐이라니까요. 요즘 사내들은 다 숫여우예요. 숫여우.

조씨 하하하, 그럼 요즘 여자들은 다 암늑대들인가?

(모두 한바탕 웃어찌킨다.) - 사이 -

박씨 (현양의 가까이에서 서서 그녀를 뚫어 쳐라 쳐다보고 서 있는 용수를 발견하고) 용수야./ (용수, 대답이 없다.) 아, 용수야! (손을 휘저어 용수의 주의를 끈다.)

용수 (박씨가 자기를 부른다든 것을 눈치 채고) 아오?

박씨 아, 이놈아, 우리 현양 얼굴 닮겠

어. 뭘 그리 뚫어지게 쳐다보는거야?
(용수 수줍은 듯 수원덕의 방문 쪽으로 달아난다.)

수원덕 호호호, 아유, 예전부터 눈친 채구 있었지만 이제 저놈이 아예 드러 내놓구 연애질을 하네그러.

박씨 글썽 말이야. 하하하. 현양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양 (발끈하여) 뭘 말이에요?

박씨 뭐긴 뭐야. 우리 용수가 현양한테, 그 뭇이냐, 연애걸구 싶어하는 거 말이지.

현양 (갑자기 한 팔로 턱을 괴고서 박씨를 쳐다본다. 그러다가 배시시 웃는 현양. 차츰 크게 웃기 시작하며) 호호호, 깔깔깔. ... (갑자기 웃음을 멈추고) 지금, 제 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박씨 아, 그럼. 왜 뭐 잘못된 거라두 있나?

현양 잘못돼두 크게 잘못됐죠! 아니 지금 누구 인생 조절려구 작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미쳤어요? 저 병신하구 연애를 하게? 이래봐두 재벌 2세한테 청혼두 받아본 몸이라구요! 이 바닥에서 썩고 있으니까 이제 별 소리를 다 들어보겠네! 내참, 새벽에 밥 한술 떠먹는 게 콧구멍으로 쏟아질까 무섭네. (일어나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며) 아줌마 돈 받아오.

박씨 이것봐. 그렇게 내놓구 병신, 병신하는 게 아니야! 저놈은 뭐 병신이 되고 싶어서 된건가? 우리같이 가난하구 불쌍한 사람들, 서로 위로는 못해줄망정

그게 뭘 가슴아픈 소리난 말이야?

그리구. 따지구 본다면 저 용수만한 신랑감이 어디 흔한가? 맘씨 착하고, 꼬박꼬박 저축해 놓은 돈 있겠다. 말 하는 것두 다 알아듣겠다, 생긴거야 좀...그래두 사내놈치구 저 정도면 잘 생긴거지, 자, 보라구 이래두 저녀석을 병신, 병신 할거나 이말이야, 적어두 미스현보다 백배는 난 놈이라... 현양, 생각 다시 해보라구!

현양 (분에 못이겨 거의 뛰다시피 해서 밖으로 나간다.) 아무리 그래두 병신은 병신이지 뭐! (문이 꽁 닫힌다.)

박씨 에이그, ... 병신! /

조씨 놔둬요. 사실 따지구 보면 저 아가씨의 말두 일리는 있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껏 고생만 하고 살아온 아가씨 같은데, 시집이라두 좀 좋은 데루가야 좋지, 저 병어리 녀석 데리고 살려면, 그 답답한거 이루 말할 수 있겠어요?

박씨 그래두 그렇지, 좀 너무하잖어?
수원덕 예휴~ 조씨 말이 맞아요.

(용수에게로 가서 옆에 앉아, 용수의 어깨를 끌어안고 다독거리며) 다 이놈 잘못이지, 남을 탓할게 못돼요. 누가 병신으로 태어나랬나? 녀석아, 쓸데없이 연애질 할 생각 말고 그저 열심히 돈 모아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해. 네가 할수 있는 게 그것밖에 더 있겠나?

(용수, 수원덕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훌쩍 거린다. 수원덕도 슬픔에 겨워 자신의 눈고인 눈물을 행주치마로 연신 닦아낸다.)

수원덕 예구, 불쌍한 것아.

(박씨와 조씨도 측은한 듯 슬잔을 기울인다. 이때 현양의 팔뚝을 잡아끌고 들어서는 국회의원 송기호의 모습이 보인다. 그는 한눈에 조강을 하고 오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반바지와 운동화 그리고 야한 빗팔의 런닝을 입고있다. 그의 얼굴은 세상사에 닳은 탐욕스러운 인상을 발하고 있다. 그의 힘센 손을 현양은 계속 뿌리치려하고 있다. 그들의 뒤에는 카메라를 든 최기자가 따라 들어온다.)

현양 알았으니까 이제 이 손 좀 놓으세요

송기호 어허, 글썄 사진 한장 찍자는데 왜 이리 앙탈인고

(박씨등이 일어서서 예를 표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경연쩍어져 현양의 팔뚝을 놓는다.)

송기호 아, 모두들 안녕들 하십니까? 새벽부터 수고들이 많읍니다. (그는 일일이 그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한다.)

박씨 새벽부터 수고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시간에 일하는 게 저희들 직업인걸요

송기호 어쨌든 간에 ... 잘됐습니다. 저, 기자가 찾아와서 절 취재를 했는데 이제 사진을 좀 박아가고 싶다고 하는군요. 우리 같이 사진을 몇 장 찍어두 되겠죠?

수원택 우리라니요?

송기호 아, 아줌마를 포함해서 이집에 있는 사람 모두 말이예요

수원택 아유, 저희같은게 감히 의원나리하구 어떻게

박씨 맞는 소리구만요

송기호 아, 별소릴 다 듣겠네요. 저로

말씀드리자면 언제나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고락을 느끼고, 함께 가시밭길을 헤쳐나가는 길동무 아닙니까? 말하자면 친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박씨 아이고, 원 별말씀을 ...

송기호 (매우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난 가끔 내가 맡은 직책에 대해 회의를 느낄때가 있어요.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지요. 마치 무슨 스타를 바라보는 것 같은 이 눈초리들, 가까이 가려해도 멀어져 가기만 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전 아무런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 단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일 뿐이리구요.

(송의원의 말을 최기자는 굉장한 감동을 느끼며 수첩에 적어가고 있다.)

최기자 저 송의원님 이제 사진을 찍으실 차례인데요. 자 여러분들도 송의원님과 함께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해주세요. 오늘 저녁신문에 실릴 사진이니까요. (최기자, 사람들을 끌어당겨 송의원과 함께 포즈를 취하게 한다. 같이 간배를 하는 장면, 심각하게 토론하는 장면 등 여러장의 가식적인 장면들이 최기자와 송의원에 의해 연출된다. 박씨, 조씨, 수원택, 그리고 용수는 정신했이 그들이 시키는대로 포즈를 취한다. 이윽고 사진 촬영이 모두 끝나자...)

최기자 네, 됐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송의원 수고했오 (최기자의 손을 이끌고 문쪽으로 간다.) 자, 여기 ... (바지 주머니에서 흰색 봉투지를 꺼내어 최기자의 손에 쥐어주며) 좀 멋진 문କୁ를 다는 것도

부탁하오.

최기자 걱정 마십시오. 이미 문귀도 다 짜여져 있는걸요. '가난한 민중들과 고틱을 함께 하는 송기호의원, 새벽부터 그들과 함께 토론하며, 민의 수렴에 노력하는 모습' 어떻습니까?

송기호 네, 훌륭합니다. 최기자만 믿겠어요. 그리구 아까 조깅중에 잠시 멈춰서서 심각하게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도 촬영은 됐겠죠?

최기자 물론이죠. 그 사진은 '내 한 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치리'란 제목과 함께 실릴 것입니다.

송기호 정말 훌륭합니다. (약수한다.) 앞으로도 간간히 부탁하겠어요.

최기자 언제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기자로서 정확한 정보와 기사를 애독자들에게 보도해야 하는 사명을 띄고 있는니까요.

(들은 약수하며 떠나갈 듯 웃는다.)

최기자 자, 그럼... (인사하고 문을 나서며)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이유, 별 말씀을 - 인녕히 가세요.

송기호 자, 여러분들 수고 하셨으니, 제가 맥주라도 한 잔 사죠. 아줌마, 여기 맥주 좀 가져와요. 그리구, 고기 좀 구워오고.

박씨 아이고, 송의원님 괜찮아요.

조씨 맥주는 무슨...

송기호 괜찮습니다. 여러가지 의미가 담긴 술이니까 함께 드시죠. 선거두 얼마 안남았구...

조씨 예?

송기호 아, 아닙니다. 자, 함께 앉읍시다. 자, 현양도 이리로 앉자.

(그들은 테이블에 앉는다. 송의원은 유난히 현양에게 눈길을 준다.)

수원택 (술을 가져오며) 바쁘실텐데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셔서 뭐라 비할데 없이 영광입니다.

송기호 하하하, 그래요?

박씨 (송의원에게 잔을 권하며) 한잔 올려두 되겠습니까?

송기호 (박씨를 진잔히 바라보다) 당신 일 끝내고 손은 씻소?

박씨 (당황하며) 뭐... 대충...

송기호 으흠... 그렇다면... 현양이 좀 따라 주겠나?

현양 (마지못해 따라준다.)

송기호 (조씨를 보고) 아니, 당신은 방범대원인 모양인데, 새벽부터 술판에 끼어있소?

조씨 아, 예, 근무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에 잠깐 요기나 할러구 들렀읍니다.

수원택 저사람 저래비두 지난 달엔 도둑놈을 다섯놈이나 잡았대구요.

박씨 저, 오늘 우연히 송의원님을 만나봤으니 뭐 한가지 여쭙 말씀이 있는데요.

송기호 뭐죠?

박씨 아, 네, 뭐, 별건 아니고...

송기호 어허, 괜찮아요. 기탄없이 얘기하랴구요. 나랏일을 모두 도맡아 하는 나에겐 어떤집 아이들 변이 잘 안오는 것 까지도 문제가 되니까요.

수원택 뭐데 그래요?

박씨 예, 저, 송의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무허가주택을 허가받아 주신다는 거 하구, 침수지역에 대한 보수공사는 어찌 진전이 없는 거죠?

(박씨가 말하는 동안 송의원은 계속 현양에게 짹짹거리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용수, 몹시 언짢은 표정)

박씨 (송의원의 무관심한 태도를 보고)

저, 송의원님!

송기호 (당황하며) 아 듣고 있어요. 아, 그거야 다 일이 끝난거예요. 국회에서 통과 안되는걸 난들 어떻게 합니까? 특히 내가 협심증이 있어서 너무 흥분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반대의원들과 싸움을 격렬히 하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되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내가 건설부에서 뇌물을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요./

박씨 아니, 그렇지만 송의원님이 선거 공약으로 틀림없이 ...

수원택 (말을 가로 막으며) 됐어요. 이 봐요 박씨, 의원님들 어찌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어요? 약속이라 해두 때에 따라선 못 지키는 법두 있단구요. 그것 외에는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많이 힘을 쓰시고 계시나 이거예요.

송기호 (헛기침)

조씨 뭐, 별루 변한게 없는데 ...

송기호 (화를 버럭) 무슨 소릴하는 거요? 애길 하려면 정면에 대놓고 하란 말이요./

조씨 아니 제가 뭐라고 했는지 들으셨어요?

송기호 듣나 마나 ...

조씨 송의원님 덕분에 이 마을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해서 맞는 말이라고 그런거예요.

송기호 그렇다면 또 몰라두 ...

현양 (견디다 견디다가) 의원님, 이 손 좀 놓으세요. 점잖아야 될 분이 이게 무슨 짓이예요? 그것두 겨우 찻집에서 일하는 저같은 것 손을./

송기호 난 그저, 우리동네 사람들아끼는 마음에서 ...

현양 아끼면 다같이 아껴야지, 왜 유난히 저만 아끼려 드십니까?

송기호 (갑자기 태도틀변) 너, 찻집에서 술을 못파는 법인데 너희집은 술파니 안파니? 법을 어기는 불순한 것이 말이 많아./

현양 그런 의원님은 그런 위법장소에 왜 두번이나 오셨었죠?

송기호 내가 언제?

현양 흥, 그럼 사흘전에 와서 내뭉을 더듬고 간 건 누구죠? 그러구, (치마를 들쳐 허벅지를 보인다.) 여기에 담뱃재 떨어뜨려 상처입힌 사람은 누구구요?

송기호 조용하지 못해./

현양 못해요./ 사람들한테 거짓 공약 퍼뜨려서, 당선되니까 만전 피우고 있어./ 당신, 건설부에서 돈받았다고 우리집 오는 손님한테 얘기 다 들었어./ 자기 동네 사람들 무허가 판자촌을 개발은 못해줄 망정 장사꾼들한테 팔아 먹어?

송기호 (들연 현양의 따귀를 갈긴다) 이

비천한 것이 감히 어디서!

(0때 용수 갑자기 달려들어 송의원을 밀쳐서 쓰러뜨린다)

송기호 아이고! 저놈이 미쳤나!

용수 (현양을 가로 막으며) 아어어어아!
수원택 아니, 이놈이 이게 무슨 짓이야!

송기호 (간신히 일어서며) 이놈들! 날 폭행해! 감히 국회의원을! 옛날 같았으면 노비에 불과한 것들이!

수원택 어서 잘못했다고 그래! (용수를 다그친다)

송기호 이 동네 전체를 불도저로 싹 밀어 버릴거다. 그래서 너희들을 모두 몰아내구 아파를 지어 버릴꺼야!

(0때 흥분하던 송의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헉헉대다 쓰러진다.)

수원택 (달려들어 그를 부축하며) 아니 송의원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협심증인가 뭔가 심장병이 있으시다더니.

(0때 송의원은 숨이 끊어진다.)

수원택 이것들 봐요! 가만히 서 있지들말고 병원차를 부르든지, 좀 어떻게 해봐요! 송의원님! 송의원님! 아이고 이를 어쩐대.

조씨 (송의원에게 다가가 가슴에 귀를 대본다.) 벌써 늦었어.

박씨 무슨 소린가?

조씨 숨이 넘어갔다가!

현양 (놀라며) 갑자기 왜 죽은거죠?

조씨 모르지. 아마두 지병인 협심증때문인 것 같은데, 때에 따라선 피살된 것

일수도 있는거지.

박씨 때에 따라선 피살될 수도 있다니 그게 뭐 말인가?

조씨 이제 신고를 하면 경찰들이 수사를 하게 되겠지. 저 용수놈이 송의원을 밀쳤다는 게 드러나겠구, 그럼 꼬투리 잡아서 피해자 집안에서 재판소에 돈을 좀 뿌리면 영락없이 고의적 살인이 돼버리는 거지. 돈이란 게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거니까.

수원택 (송의원의 시체에서 떨어져 용수의 어깨를 감싸고) 말두 ... 안돼요. 아무리 돈도 돈이지만 이렇게 착한 놈을, 살인이라고.

조씨 그게 다 그런거예요. 게다가 요즘 돈있는 사람치고 감옥가는 사람 봤오? 다 돈 없구, 조그만 죄 지은 놈들이지.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모두들 용수가 감옥에 가는 걸 바라진 않겠죠?

(모두 고덕거리며 동의하는 눈치)

좋아요 내가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요. 우리 모두 이 자리를 뜹시다. 물론 저 송의원의 시체도 함께. 용수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와도, 우리가 옆에 있었다면 모두 용의자 혹은 증인으로 지목되서 몇 날 며칠을 파출소로 법정으로 끌려다닌다 이말입니다. 그러자면 우리같이 하루벌어 입에 풀칠하는 사람들, 또 여기 매달린 새끼들은 어떻게 되냐 이 말씀입니다. 나두 그럭구 특히 현양이나 용수도 그럴거예요. 게다가 이집에 경찰들이 들락거리면 아줌씨도 장사 되겠어요?

박씨 그래서 어찌잔 말인가, 자네는?
조씨 모두들 이 자리에 없었던 걸루 하자 이 말입니다.

박씨 아니 그러면...

조씨 그래요 저 시체는 내가 이 골목 어귀까지 끌어다 놓고, 신고를 하겠어요. 바로 내가, 적어두 파출소에선 신용있는 놈이니까.

수원택 아까 그 기자가 봤잖아요 여기에 모두 모여있는 것을 말이에요.

조씨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 기자가 나간뒤에 모두 하나, 둘 자리를 떴다고 하면 되는거지.

(모두 침묵)

저 국회의원 하나 죽었다고 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지는 않아요. 또 저사람 후손들은 저사람이 남긴 재산을 나눠갖구 잘 살텐데. 무슨 걱정이 따르겠어요? 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 하루 매일 죽어라 뛰지 않으면 내 한몸 뿐 아니라 자식새끼며, 마누라며 다 굶

어 죽는다 이말이에요. 저 현양두 일 안 하면 시골에 있다는 식구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사이) 자 모두들 나가요. 난 잠시후에 시체를 문밖으로 지고 나갈테니.

(한사람 한사람 말없이 빠져나간다. 조씨와 수원택만 남는다)

조씨 (소주 한잔을 따라 마신다.) 자, 아줌씨, 나두 이젠 가야겠우. (시체를 들러맨다.) 내 가고 난 뒤에 가게 안에다 소금이나 좀 뿌리슈. 채수 동나지 않게. (조씨 밖으로 나간다. 수원택, 말없이 서있다가 선반에서 소금을 가져다가 가게 안에 열심히 뿌려맨다.)

수원택 휘이 휘이 잡귀야 몰러나라.

(다 부리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개새끼, 죽을려면 딴 데 가서 죽을 것이지 내 가게 안에서 죽어 자빠질건 뭐람. 아침부터 채수없게...

- 막 -

번역희곡

즉흥극

태드 모젤作
이 유 철訳

등장인물

위니프레드 (여)

토니 (남)

어니스트 (남)

로라 (여)

벽이 그리 높지 않은, 아무런 장식도 없는 공간, 벽들은 각각 특이한 각도로 높여져 있다. 무대 왼쪽 가운데에 휘어진 문이있고, 소파와 의자 그리고 작은 테이블같은 가구들이 놓여져있다. 무대 어둡다. 어둠 속에서 '위니프레드'의 담배불이 보인다.
정작... 배우가 어둠 속에서 말한다.

위니프레드 : 자, 준비됐으면 누가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요.

토니 : 막은 열렸어?

위니프레드 : 그래요.

토니 : 근데, 아무것도 안보이는걸 시작이 아니라 끝난 거 아니야? 이거 뭔가 잘못된거 같은데?

어니스트 : 그 멍청한 무대감독이 조명 켜는걸 까먹었을거야.

위니프레드 : 아니야, 어니스트, 이건 뭔가 고의적인 냄새가 나는데, 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구요.

로라 : 위니프레드, 그런 소리말아요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예요.

어니스트 : 잠깐, 내게 맡겨두라구 가서 그를 만나보고 올테니까.

토니 : 그건 안돼!

어니스트 : 왜 안돼?

토니 : 무대감독이 말한 걸 잊었어? 연극시작할 때까지 무대에서 움직이지 말랬잖아.

어니스트 : 그 사람은 그저 자길 과시하려 했을 뿐이야. 난 그런 종류의 인간을 잘안다구. 가서 무대감독보다는 배우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오겠어.

토니 : 그건 그 사람이 만든 '법' 같던데.

어니스트 : 어쨌든 난 이렇게 잠잠한 데서 있을순 없어(소리친다)

조명! 이봐, 거기 조명좀 켜봐! (사이)
로라 : 당신이 생각하는것 만큼 우린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조용히하고 그냥 기다려 봐요.

토니 : 근데 지금 관객들은 와 있는건가?

위니프레드 : 응, 사람들 숨소리가 들리잖아요.

어니스트 : 사람들의 뭐?

위니프레드 : 숨소리말이야요 잠잘때 처럼 썩썩거리는,

토니 : 그리고 보니 난 졸리운것 같은데

위니프레드 : 관객들이 와 있으면, 우린 결국 꼼짝없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 (사이)

토니 : 자, 우리 자면서 꿈이나 꾸자구. 내가 어린애가 돼서, 방안의 많은 사람들 앞에 서있다. 그 사람들이 나더러 춤을 추어보라는데, 난 이리저도 저리저도 못한다. 난 춤을 못추니까. 그래서 한 발로 강총깡총, 일어났다 앉았다 했더니 그 사람들은 박수를 친다. 성공이다. 눈물이 날것 같은데. (사이 조명이 들어온다)

어니스트 : 이제야 들어오는군.

로라 : 봐요, 무대감독이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위니프레드 : 무대감독이 “조명 in” 그러면 불이 들어오는 거지 뭐.

토니 : 근데 조명이 계속 켜져있지 않을 것 같은데, 바뀔려고 하잖아, 아까보다 더 나빠졌어.

위니프레드 : 당신은 저쪽 구석으로 가서 눈물이나 짜지 그래요. (토니가 그녀를 바라본다)

어니스트 : 저봐, 위니프레드, 당신이 맞았어. 관객들이 들어와 있잖아!

위니프레드 : 그 봐요.

로라 : 멋진데? 토니, 저사람들 좀 봐요.

토니 : 응, 보고 있어.

어니스트 : 저 사람들, 우리가 뭘 좀 하길 기다리는 것 같은데.

토니 : 우리가 뭘할건지, 저 사람들이 알고있을까? 누가 애길 했을까?

위니프레드 : 그럼 당신은 우리가 뭘 할

건지 알고 있어요?

토니 : 왜이래? 난 그저 물어봤을 뿐이잖아.

로라 : 물어볼 것도 없어요 토니, 그래봤자 기분만 상한다고요, 저 사람들이 우리가 뭘 좀 하길 기다린다고 어니스트가 말했죠, 좋아요 우리 그럼 시작하죠!

어니스트 : 잠깐만, 로라, 토니가 아주 좋은 점을 지적했어. 나도 저사람들이 우리가 뭘하고 있는지 아냐, 모르나가 궁금하다고.

토니 : 그건 우리가 말해줘야될 것 같은데.

위니프레드 : 좋아, 그럼! 당신이 얘기해요.

토니 : 나?

위니프레드 : 물론이지, 그건 당신이 생각해낸거야냐.

어니스트 : 내가 더 나올것 같은데.

위니프레드 : 알고있어요, 어니스트,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사람이 하길 바라는거죠.

토니 : 뭘 얘기해야할지 모르겠는걸.

위니프레드 : 알고있어요, 당신이 잘못된거라는걸.

토니 : (천진하게 의문스럽게) 나한테 장난하는거야, 위니프레드?

위니프레드 : 어떻게 알았죠? (그녀는 가볍게 웃는다. 토니는 그녀를 잠시동안 바라보다가 무대앞으로 나가 관객들에게 연설조로 얘기한다)

토니 : 신사 숙녀여러분, 저희는 여기에...에... 사람들은 모든 배우들에겐 꿈이

있다고들 하죠. 그래서 그 꿈을 재현시키기 위해... 그리고...에, 배우는 무대에 그리고 관객은 객석에 있죠. 에, 또 그런데, 배우들은 공연할 작품이 뭔지 또, 어떻게 움직임여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처해있는 상황이죠. 오늘 오후엔 우린 아마 꿈을 꾸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우린 여기에 있지도 않은지 모르죠...잘 모르겠습니다.

위니프레드: 계속해요. 멈추지 말고./ 그리고 미안하지만 난 여기에 있어요. 어쩔수 없이, 뜻하지 않게 그리고 지긋지긋하게도 여기에 있다가구요.

어니스트: (정중하게) 내가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토니. (관객에게 신사 숙녀 여러분, 한 한시간 전에 우리는 이 극장으로 나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읍니다. 일거리가 있단나요, 우리가 여기에 도착하자 무대감독은 저희들에게 급히 무대로 올라가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극을 하나 만들어보라는 거였죠. 지금 저희 처지가 이렇읍니다. (토니에게)자 봐 얼마나 쉬워./

토니: 물론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건 쉽지, 하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진 얘기 안했잖아; 우리가 누구며, 왜 여기 있는가 하는거, 그게 중요한 거라구.

위니프레드: 저 사람 머리속엔 들맹이만 꼭 차있나봐요.

로라: 저 사람들에게 우리 이름을 밝히자는 소린가요, 토니?

어니스트: 좋은 생각이야; 로라, 나도

방금 그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관객을 향해선다)

위니프레드: 자, 시작해요.

어니스트: (관객에게)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못받으셨기때문에 저희들이 누군지 잘 모르실겁니다. 제 이름은 어니스트입니다. 전 서부해안지방에서 영화 제작을 하고 그것을 성공리에 흥행시킨 후, 바로 얼마전 무대로 돌아왔죠. 전 연극인 가정에서 태어나, 분장실에서 키워지다시피 했읍니다. 이미 5살에 전 토니: 어니스트, 그런걸 설명하지는게 아니라구,

어니스트: 내가 누군지 얘기하는거 아냐./

토니: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로라: 좀 조용히 해요, 토니, 재미있잖아요, 난 다른 사람들 얘기듣는걸 좋아하거든요.

토니: 알겠어, 잠자코 있을게.

로라: 계속해요, 어니스트.

(어니스트가 계속 말하기시작한다)

위니프레드: (재빨리)당신도 잠자코 있어요, 어니스트.

어니스트: 아직 안끝났는데

위니프레드: 저 사람들은 당신을 알고 있어요. 배우로서의 당신을 말이에요. 당신 설마 저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걸 또 얘기해서 저사람들을 따분하게 하고 싶진 않겠조?

어니스트: 아, 물론.

위니프레드: 그럼 앉아요. (그는 앉는다)

로라: 이젠 당신 차례예요, 위니프레드.

위니프레드 : (어깨를 으쓱하고는 관객 앞으로 나가서서) 저는 위니프레드입니다. 전 뭐 항상 빛도 못보는 배우예요. 아마 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억은 못하고 계시거예요. 전 항상 주연여배우의 친구역만 맡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연극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연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간단한 예에 불과하지만요. 다음. (로라를 가리킨다)

로라 : (잠시생각한후) 제 이름은 본래 '로라리'였어요. 근대 사람들이 긴 이름은 재수없다고해서 그냥 로라라고 줄였어요. 그래도 뭐 재수가 좋아진건 아니지만, 상관없어요. 사실은 여배우가 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이상이예요. (뒤로 물러나온다)

위니프레드 : 자, 이제 모두 긴장해야겠네요. (장난으로 심각한 체하며) 당신 차례예요 토니.

토니 : 난 얘기할거 없어.

로라 : 하지만 토니, 관객들에게 자기소개는 해야죠.

토니 : 왜 그래야되지? 자기들은 안하면서, 그건 불공평해. (관객에게)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왜 여기에 왔죠? 일상생활에서 잠시 휴식을 얻으려고? 뭔가 배울게 있을것 같아서? 아니면 호기심때문에. 그리고 당신들도, 누가 명령을 내렸나?

어니스트 : 명령같은거 받은적 없어.

토니 : 그럼 우린 여기서 뭘하는거야? 바로 그걸 설명해야 된다구. 우리들중 네가 가장 축복받은 것 같으니 네가 설

명해봐, 로라는 여배우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했고, 위니프레드는 무대를 혐오한다고 했으니까.

위니프레드 : (말을 끊으며) 당신도 역시 겁내고 있잖아요.

토니 : 그래, 나도 겁이나. 자, 나에 대해서 얘기 했어,

위니프레드 : 다 했으면 앉아요, 당신혼자 잘 놀았는데, 이젠 더이상 안돼요. 영혼의 탐구란 지속적인 형태의 오락이라고요.

어니스트 : 왜 겁을 내는지 모르겠군, 토니 자넨 우리가 여기서 뭘하는질 몰았지? 그러다면 대답은 간단해 우린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있는거야, 그리고 저 사람들은 즐기러 온거구.

위니프레드 : 어니스트를 좀 닮아봐요 토니, 좀 똑똑해보라구요.

로라 : 빨리 뭘 시작하지 않으면 무대감독이 화낼거예요 . . .

어니스트 : 그렇겠지 로라. (관객에게) 신사 숙녀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쪽에 누군가가 좀 혼동을 일으켰나 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약간의 준비가 끝나는대로 곧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두 무대감독이 지시한 걸 잊고 있겠지.

위니프레드 : -저기 책상위에서 계약서에 쓴거 말이에요?

어니스트 : 닥쳐, 위니프레드. (관객에게) 여러분들에게 무대감독의 지시사항을 알려드리는게 좋겠군요, 우선, 첫번째로,

우리 공연은 무대감독이 만족할만큼 잘 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위니프레드 : 이것도 알려주는게 좋을거여요. (관객에게) 그런데, 그 무대감독은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라서 무엇에건 만족한 적이 없죠.

로라 : 그런식으로 얘기하지 말아, 위니프레드. 그 사람은 저 뒤에 있던 말이야, 다 들린다구, 조심하는게 좋을걸.

위니프레드 : 상관없어.

로라 : 하지만 그는 중요한 사람이야, 실력도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 줬잖아. 난 그사람을 존경해,

어니스트 : 빨리 시작해야된다고 생각지 않아, 로라.

로라 : 오, 미안해요, 어니스트.

어니스트 : (관객에게) 그리고 두번째는, 연극이 끝날때까지 우린 이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은 우리가 하는 연극은 생의 모방이야어 한다는 거죠.

토니 : 아니야, 틀렸어. (어니스트는 그를 쳐다보나, 무시한다) 그게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구.

로라 : 정말이여요, 토니?

토니 : 난 아주 자세히 들었다구. 그 사람은 생의 모방이라고 한게 아니라 마치 인생인것 처럼 하라고 했던 말이야.

로라 : 오, 그러고보니 당신말이 맞는것 같아요.

토니 : 내가 자신있게 맹세한다구.

어니스트 : 바보같으리라구. 연극은 인생에 대해서 진짜같이 또 인생을 위해서 또는 인생과 정반대되게 하는거라구.

위니프레드 : 인생과 정반대되게 하라는게 가장 중요하죠.

어니스트 :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인생이 될 순 없는 거지.

토니 : 그래 바로 그 얘기가.

로라 :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위니프레드 : (웃으며) 좋아요, 어니스트,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이렇게 기본이 좋을 줄이야.

어니스트 : 난 틀리지 않았어. 난 정확히 그사람이 얘기하는걸 알고있다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걸 기억하는지 확인하려고했던거구.

위니프레드 : (빈정대며) 물론 기억하고 있죠.!

어니스트 : 좋아, 좋다구, 시작하지.

로라 : 뭘요?

위니프레드 : 그저 미소를 짓고, 기분좋은 얘길하면되지. (어니스트에게) 처음뵈겠어요, 뽀들경.

어니스트 : (눈치채고) 처음뵈겠습니다. 뽀들양.!

위니프레드 : 이렇게 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니스트 : 이렇게 오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니프레드 :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기뻐요.

어니스트 : 정말 즐겁습니다.!

위니프레드 : 너무나무 황홀해요.!

어니스트 : 너무나무 기분좋습니다.!

위니프레드 : 막.! (그녀는 커튼을 쳐다보나,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 가지곤 안

되겠나 본데요.

어니스트 : 물론이지 위니프레드, 난 아직 성격도 정하지 못했던 말이야.

토니 : 그렇게 해서만은 안돼. 좀더 핵심을 파고들자구 우선 우리가 뭘 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어니스트 :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내가 뭘하는지 알아.

토니 : 우선 장소를 설정하자구.

어니스트 : 오, 정말 훌륭한걸 생각해냈군!

토니 : 뭐가 도움될만한게 있을거야 (두리번거린다) 세트를 발견한것 같지 않아?

위니프레드 : (지긋지긋한 몸서리) 벌써 발견했어요.

로라 : 아니 왜 그러지?

위니프레드 : 아무것도 아니야, 고리 짝 때부터 저 세트들이 세워져 있었다는것 밖엔.

토니 : 난 처음 본거야. 저 꾸부러진곳 좀 봐.

로라 : 어디요?

토니 : 문작은 굵어있고, 벽은 울퉁불퉁하잖아.

로라 : 아, 저거요!

어니스트 : 그런건 없어. 세트는 완벽하대구! 이대로 좋아!

로라 : 어떻게요?

어니스트 : 이걸 방인데 뭘, 어떤 집의 한 방. 누군가의 가정일거야.

로라 : (불현듯) 가정엔 어머니가 있어야겠죠?

어니스트 : 됐어, 토니. 벌써 배역 하나가 생겼어.

토니 : 그런데 그걸 누가 맡지?

어니스트 : 위니프레드가 있잖아.

위니프레드 : 아니예요. 위니프레드는 안돼요.

어니스트 : 왜 안돼? 딱 맞을것 같은데. 위니프레드 : 하기싫어요!

어니스트 : 안돼, 해야돼. 어머니역엔 딱 맞는대구. 결정됐어.

위니프레드 : 이말을 들으면 아마 결정을 취소하고 싶을걸요. 난 고등학교 다닐적엔 크리스마스 축하공연때마다 사슴역을 맡았었구요, 프로에 데뷔하면서 처음 맡은 역은 하녀역이었다구요, 설명역도 겸하는. 그후론 빈정대기 잘하는 역, 바른말 하는 역을 맡았었죠. 전 그런역에 잘 맞는대구요.

로라 : 그렇다면 잘됐는데. 이번기회에 성격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잖아.

위니프레드 : 내가!

어니스트 : 그럼 무슨역을 맡고 싶은지 말해봐!

위니프레드 : (한사람씩 쳐다보고는, 말 할까 말까 망설인다) 좋아, 이런 애긴 별로 하지 않지만... 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싶어하는 아주 어여쁜 젊은 소녀역을 맡고 싶어요. 웃지말아요! 웃기만 해봐라. 당장 이 극장에서 나가버릴거니까, 밖에서 하나님이 뭐라하든, 난 심각하대구요.

어니스트 : 하지만 그건 로라한테 어울리는걸.

위니프레드 : 항상 로라가 해왔으니까.
내가 한번만 했으면 하는 거라고요.
로라 : 그역이 뭐가 좋다고 그래? 소녀
역은 맨날 요랬다 조랬다 하는 우유부
단한 역인데.
위니프레드 : 난 요랬다 조랬다 하는게
좋아!
로라 :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배역은
얼마든지 있어.
위니프레드 : 그럼 내가 엄마역을 맡아
보렴!
로라 : (정말로 하고싶은듯) 그러고 싶어,
하지만 어니스트가 허락하지 않을걸(그
녀는 애원하는 눈초리로 어니스트를 바
라본다)
어니스트 : 그건 안돼, 어머니역은 위니
프레드가 해야돼.
위니프레드 : 좋아요. 어쨌든 난 내 생
각은 밝혔으니까.
어니스트 : 그러구. 토니는 당신의 아들
역을 맡을거야?
토니 : 걱정말아요. 위니프레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은 더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어니스트 : 그리고 자넨 뭐 잘못된거 있
어? ?
토니 : 난 아들역이라고 했잖아? 근데
처음엔 뭘해야 될지 모르겠는걸.
위니프레드 : 한발로 서서 깡충거리지 그
래요.
토니 : 또 놀리는거야! 재미도 있겠군.
위니프레드,
위니프레드 :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말

아요.
토니 : 내가 뭘 해야될지 모르겠다고 한
건, 난 누구의 아들이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구, 물론 부모가 있었지, 훌륭
한 부모님들, 너무 훌륭했기때문에 내
가 여섯살 되던 해에 그들은 내게 자기
들은 실수로 나를 낳았다고 얘기해줬지,
그러니 자기들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하
고 바란다고 그래서, 난 그렇게 했지.
그 사람들은 웃길 좋아했어. 그 사람들
이 제일 잘하던게 바로 웃는거였어. 아
무거나 보고는 웃어냈지, 특히 자기들
이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는, 위니프레드가 하는것처럼(사이)
위니프레드 :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아마 좀 무정한 사람들이었나보죠. 맞
아요?
토니 : 만일 내가 그렇다고 하면, 당신은
내가 화를 내고있다고 생각할것이고, 아
니라고 하면, 사실대로 얘기하길 꺼린
다고 하겠지?
위니프레드 : 난 절대 무정한 사람이 아
니예요. 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친절
하다구요. 하지만 맘 먹은대로 나오지
않아서 문제긴 하죠. 그렇게 창피해할
거 없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내
아들 역을 잘 해낼거 같은데요, 토니.
토니 : 좋아 하겠어.
어니스트 : 그리고 로라는 너의 애인이
야. 둘은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네가 로
라를 너의 어머니에게 소개시키려고 집
에 데려온 거야.
로라 : 당신은 뭘할거죠? 어니스트.

어니스트 : 난 이집 가족들의 친구지, 부자애다 잘생기고, 추진력있으며, 영향력있고, 지적인 이극의 중심역이지. 나 중에가서 극의 갈등을 주는 역.

로라 : (좀 놀리며) 아니 갈등도 있어야 돼요?

어니스트 : 물론이지, 아니 갈등이 없는 극에 대해서 들어본적 있어?

로라 : 그게 어떻게 될건데요? 저도 휘말리나요?

어니스트 : 물론, 위니프레드는 자기 아들을 당신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녀는 투쟁하려 하죠, 그녀는 당신들의 결혼 약속을 취소시키려 해서, 당신도 거기에 맞서 싸우는거지. 그리고 누구도 양보 안하고... 갈등을 겪는 거지.

위니프레드 : 그럼 당신은 그럼 어떻게 해결하죠?

어니스트 : (위니프레드에게) 당신은 토니 말고는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로라를 질투하는거죠. 한마디로 외롭다고 할까. 그래서 난 당신과 결혼하고, 따라서 모든게 해결된다.

위니프레드 : 토니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구요?

어니스트 :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 그 사람은 죽었어.

위니프레드 : 내가 바로 과부역을 하고 싶었어요.

로라 : 그리고 토니와 난 결혼 하나요?

어니스트 : 물론이지.

로라 : 해피엔딩이라서 참 좋아요. 훌

륭한데요, 어니스트, 그런걸 어떻게 생각해 내셨어요? 자 그럼 처음을 시작해 봐요.

어니스트 : 잠깐 생각할 시간을 줘요.(그는 손으로 이마를 짚고 무대를 왔다 갔다 하다가 토니의 앞에서 손을 내리고 극적으로 얘기한다) 자, 이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단다. 결혼이란 남자의 인생에서의 중대사란다. (로라를 향해서서) 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들 둘을 품에 안고) 자, 믿음을 가져라. 서로를 사랑한다는 믿음 말이야. (사이) 됐어.

위니프레드 : (눈은이의 특징을 살려) 물론 그여자엔 내 아들을 사랑해요. 그애를 보면 여자들은 모두 매혹되고 말아요. 그애가 세살때, 그애의 가정교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때문에 목을 매달았죠.

로라 : (눈을 반짝이며) 오, 난 그를 사랑해요. / 진심으로 사랑해요. /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요.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 그리고 눈썹에 주름이 가는 그의 웃음, 오!

위니프레드 : 어찌면 저렇게 여우갈을까?

로라 : 제가 한거 괜찮아요? 센티멘탈한 코메디 같았는데.

위니프레드 : 완전히 개근데?

어니스트 : 아니야, 둘 다 틀렸어, 그건 드라마야.

토니 :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중요한 건 네가 말한 것의 뜻을 네가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야.

어니스트 : (냉정하게) 네 마음엔 들지 않을 것 같아서였어.

토니 :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문제야?

어니스트 : 자, 조용하고 들어봐 토니, 난 연극계에 너보다 더 오래 있었어, 그리고 난 너의 그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완전히 질려버렸다고.

토니 : 하지만 우리가 우리역에 빠져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일 아니야? (그는 세사람에게 애원하듯 쳐다본다. 위니프레드는 그의 말을 듣고 있으나 어니스트는 못참겠다는 듯 돌아선다)

어니스트 : 맞았어, 위니프레드, (그의 머리칼을 가리키며) 돌맹이야, 아니 바윗덩어리라구. (그는 보루통하여 등을 돌린다.)

위니프레드 : (그녀의 경솔했음을 깨닫고) 오, 그래요, 당신 말이 다 맞아요.

로라 : 자 계속하는게 어때요 이렇게 멈추고 멈추고 하다간 죽도 밥도 안되잖아요.

위니프레드 : (토니에게) 이리 좀 오너라. 아들이. (그는 쏘파로 간다.) 앉거라(그는 쏘파 끝에 앉는다. 그녀는 옆에 놓인 쿠션을 툭툭친다) 여기에(그는 다가와 앉는다. 어니스트가 더이상 못참고 돌아본다) 네 손을 내게 다오.

토니 : (손을 내밀며) 미안해요 어머니.

위니프레드 : 자, 이젠 내게 모든걸 얘기해다오. (그녀는 기다리나, 그는 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지?

토니 : 저희는... 만났어요.

어니스트 : 어디서지? 그건 아주 중요해요, 난 항상 사람은 사랑에 빠지는 장소를 잘 골라야 한다고 생각해 왔어요. 예를 들어 내 경우엔-

위니프레드 : 어니스트!

어니스트 : 아니 또 왜그러지? 이번엔 아주 멋있게 한건데, 인물 성격도 잘 살리고.

위니프레드 : 당신은 지금 나오는거 아니란 말이에요. (토니에게) 자 너희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해주지 않으려?

토니 : 모르겠어요.

위니프레드 : 자, 어서(토니가 애원하듯 로라를 바라보나, 로라도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다.)

로라 : (어니스트에게 속삭인다.) 어니스트, 우리가 어디서 만났죠!

어니스트 : (역시 속삭인다.) 버스간에서

로라 : (토니에게) 버스간에서요.

토니 : (위니프레드에게) 버스에서요.

로라 : 옆자리에 같이 앉았었어요.

토니 : 같은 자리에 앉았었죠(잠시 사이)

로라 : 난 지갑을 잃어버려서.

토니 : 그녀는 돈이 한푼도 없었어요.

로라 : 이 이가 제 버스값을 내 줬어요.

토니 : 10센트 밖에 안됐어요.

로라 : 차장이 막 저를 밖으로 집어던지려는 순간에 말이에요. 얼마나 웃겼는지!

토니 : (생각다 못해) 난 웃겨서 죽는지 알았어요! (위니프레드는 절망적으로 토니를 바라본다. 갑자기 그녀는 짐목이 흐르는걸 알아채나, 무슨말을 해야할지 모

른다.)

위니프레드: 말 좀 해봐요, 어니스트

어니스트: 아, 저- (그는 얘기를 하려다 포기한다.) 음, 소용없어. 관객들은 벌써 떠분해서 나가버리려 한다구.

위니프레드: (진심으로) 우리도 나갔으면 좋겠어.

로라: 계속해야 돼요.

위니프레드: (사이, 토니에게 받은 연극 인척, 받은 실제인양) 기분 좋아?

토니: 모, 모르겠는데...

어니스트: 모른다구요?

로라: 자기~

어니스트: 넌 이장면에서 매우 기분이 좋아야돼. 기분이 좋고, 자신감에 차있고, 넌 싸워야 되니까!

위니프레드: (일어서서 걷는다. 토니에게 등을 돌리고) 팝소사, 어니스트, 우린 싸울 수가 없어요.

토니: (사이, 위니프레드를보며) 한번은 사람이 봄비는 거리에 나간적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팔장을 끼고 내 앞을 걷고 있었죠. 난 어린애였고, 그때 난 갑자기 멈춰 섰는데, 그들은 눈치도 못채고 그냥 걸어가 버렸어요. 점점 거리가 멀어져 보이지 않게 되었죠. 그때 난 기분 좋다고 생각했었죠. 내가 기분 좋다고 느낀건 그때 뿐이었어요. (이말에 위니프레드는 가볍게 웃으며 돌아서서 비끄는 투로 얘기한다.)

위니프레드: 아하, 그럼 그때- (토니의 눈과 마주치자 그녀는 말을 그친다.)

토니: 계속해요, 위니프레드, 또 똑똑

한 소리를 해보라구.

위니프레드: 계속하려고 했잖아요. (갑자기 그녀는 소파로가서 앉아 그를 쳐다본다.) 토니, 난 친절하게 대하고 싶어요.....

로라: 토니, 당신 연기하는거 아니었군요. 진짜 일을 가지고...

토니: (위니프레드를 바라보며) 알았어요.

로라: 하지만 이장면에서 당신은 좀 활기에 넘쳐야되는데.

어니스트: 상관말아요, 어쩔 도리가 없어. (로라와 어니스트는 세트끝의 그림자속에 있으며, 그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는것 같다.)

위니프레드: (토니를 바라보며) 아직 시간은 많아요, 어니스트.

어니스트: 시간이 많대구요? 아니 무대 감독이 뭐 죽을 때까지 시간을 줄지 알아? 벌써 예전에 끝냈어야 했대구요.

위니프레드: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성급해서 탈이에요.

어니스트: 우린 벌써 극의 줄기를 완전히 놓쳤어. 우리가 계획 짰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대구요.

위니프레드: 지금 이대로 하는게 더 나을것 같은데요.

어니스트: 저렇게 서있기만 하면 너무 단순해진다구.

위니프레드: 저 사람은 당신만큼 무대 경험이 없잖아요.

어니스트: 그러면서 왜 저렇게 가운데 서서 버티는거야? 나도 잠깐 등장

하게 해달라구.

위니프레드 : (토니에게서 시선을 돌리지만 어니스트를 바라보진 않는다. 그녀는 객석쪽으로 간다.) 당신은 언제나 실수만 저지르고, 모든 일을 망쳐 놓죠. / 당신이 저사람을 캐스팅했다면 그에게 기회는 쥐야 될거 아니예요. /

어니스트 : 기회를, 글썽 얼마나 필요로 하는데 그래?

위니프레드 : (신념을 갖고) 저사람 혼자 놔둬요, 어니스트. /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거란 말이예요. / 좋은 공연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구요. (토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내말 들었어요?

토니, 당신을 변호해줬다구요.

토니 : 알아요, 내가 잘 하지도 못하는 데도.

위니프레드 : 누굴 옹호해준건 난생 처음이예요.

토니 : 그렇게 한계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겠군요.

로라 :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멀리서도 들린다.) 무대감독이 우린 즉흥극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즉흥극이 아니라, 그저 원래대로 논대요.

위니프레드 : (토니에게, 마치 꿈결을 거닐듯이) 우리 같이 연극을 계속할래요?

토니 : 원한다면.

위니프레드 : 어디까지 했죠?

토니 : 당신이 나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위니프레드 : 아, 이제 기억나요. 기분은 괜찮아요?

토니 : 아직도 끝이 멎해요, 조명하구,

색깔들이 바람개비처럼 빙빙 돌아요. 세상이 뒤집히는것 같고, 하지만 무슨 일인가 일어났어요, 쉽게.

위니프레드 : 무슨일이 일어났죠?

토니 : 당신이 친절해진거예요. (사이, 그는 천천히 위니프레드에게 키스한다. 어니스트와 로라가 갑자기 무대로 뛰어나온다.)

어니스트 : 위니프레드, 우리야 아무래도 좋지만 관객들 생각도 좀 해야지, 에이. /

로라 : (거의 동시에) 토니, 당신은 나를 사랑하게 되어있어요.

토니 : (일어서서, 멀리떨어지며)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 난 이젠 더이상 그런 척 하고 싶진 않다구.

로라 : 하지만 당신이 그것 말고 또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 그런 체하는것. / 결국 그런거잖아요. /

토니 : (그녀에게로 돌아서서)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돼, 그것 말고도 내가 이극장에 온 이후로 유일하게 할수 있는 옳은 일 하나가 있었어, 만일 그것이 연극 도중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면, 나도 그것이 연극에 참가하지 않겠어. / 더이상.

로라 : 아니 그럼 어찌려구요?

토니 :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가지 있지. /

어니스트 : 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 /

토니 : 왜 안돼? 저 사람들 때문에? (관객을 가리킨다.) 넌 저 사람들에게 아무

것도 보여줄게 없어. 어니스트, 나 자신 이외에는 말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된다면서.

로라 : 하지만 토니 무대감독을 좀 생각해봐요. 그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할지.

토니 : 더이상 관심없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연극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지. 아마 그런 얘기로 당신을 납득시켰을거야! 난 그때위로 높은 수준의 위선을 부리는 자들은 무섭지도 또 존경하고 싶지도 않아! 그 새끼는 할수만 있다면 날 희롱할 수도 있대구! (그는 문쪽으로 간다. 위니프레드가 그를 잡는다.)

위니프레드 : 토니, 내 생각은 안해보는 거예요?

토니 : 나와 같이 가지 않겠어. 위니프레드? 그게 좋을것 같은데.

위니프레드 : 그러고 싶지만 당신과 나 사이엔 차이점이 있어요. 토니, 당신의 양심은 자유스럽죠. 하지만 내 양심은 아직 내가 다하지 못한 일과 말들에 얽매어 있거든요. 그래서 난 갈 수 없어요. 아직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문으로 빠져나간다. 짐묵이 흐른다.)

로라 : 저사람 돌아올까?

어니스트 : 이젠 안될걸. 아마 영원히 극장을 구경도 못하게 될거야.

로라 : 그럼, 우리공연도 끝장난 셈이군요. (그녀는 다른사람들을 무력하게 쳐다보다가 의자에 가서 앉는다. 이젠 다른일에 관심도 없는듯)이렇게 좌절과 실망을 겪는다는게 나한테 새삼스러운 일

도 아니죠. 나한테 모든게 잘풀리는 듯하다가도 결국엔 이모양이라구요. 난 항상 내 자신에게 말하죠. “신경쓸거 없어, 결국 그렇게될 운명이었는데 뭘, 아,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이번만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느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니스트 : (테이블에 앉아, 숙고하며) 불쌍한 토니, 그는 결국 배우하곤 거리가 멀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잖아, 그가 어떻게 배우가 되었는지 모르겠어. (위니프레드가 그를 바라본다. 그녀는 화가 나기 시작한다.) 그는 아무것도 없었어, 경험두 없구, 상상력두 없구. 무대에서 성공할만한 자질이라곤 하나도 갖추지 못했지.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야. 만일 내가 그렇게 소질이 없었다면, 난 지금과 같이 되지 못했을거야.

위니프레드 : (강력하게) 지금 당신이 어떤데요, 어니스트?

어니스트 : (그녀를보고 놀라며) 뭐라구요?

위니프레드 : 지금 당신이 어떻게 되어 있나구요?

어니스트 : 그런 바보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 위니프레드, 잘 알아잖아 내가-

위니프레드 : 그래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 그래요? 그렇게 바보같이 앉아서 머리나 흔들면서 “불쌍한 토니” 하고 중얼거리는 주제에,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중엔 가장 나은 배우라구요! /

어니스트 :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일을 잘 처리해왔던 건 바로 나리구./

위니프레드 : (경멸하며) 오, 그래요./

어니스트 : 그럼 아닌란 말야?

위니프레드 : 그걸 꼭 말해야 알겠어요? 말해줘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꼭 말로 해야 알겠어요?

어니스트 : (그녀는 그의 눈을 잠시 바라본다. 그는 시선을 돌린다.) 난 내능력과, 때마다 주어지는 기회에 대해 매우 확기적이었어. 사람들은 날 다른 배우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위치에 세우곤 했지만, 난 항상 어느상황,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그역을 지혜롭고 정확하게 해낼 수 있다는 자신도 있었다고. 내 생의 대부분은 그렇게해서 쌓여진거라구, 만일 내가 그걸 잃는다면 나라는 존재도 없어지는거야. (그녀에게로 돌아서서, 뉘우치는듯) 아니야, 위니프레드 내게 필요없어,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고, 나에게 아무의미도 없어, (그는 참지 못하겠다는듯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진다. 그는 관객을 향해 모호한 제스처를 쓴다) 관객들이 나를 좋아해주는 이상- (하지만 그는 관객을 향해 고개를 들수가 없다. 그가 무대위쪽을 바라볼 때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다. 위니프레드가 그를 잠시동안 바라본다. 그녀의 말은 동정심에 차 부드러워져 있다.)

위니프레드 : (부드럽게) 바로 그거예요. 저사람들의 판단에 달려있다고요. (그는 말이 없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로라를 본다. 그리곤 천천히) 그리고 이걸 우리

들의 공연이야, 그것도 즉흥극, 원래의 우리와는 전혀 틀린 배역, 그리고 그걸 잘 해내려 했었지, 하지만 우리가 왜 그걸 해야되지? (로라를 보며) 무대감독이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거죠. (어니스트를 보며) 박수를 받기 위한 감상적인 열망이기도 했고, 그렇다면, 그 공연은 어떻게 돼야되지?

로라 : 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니프레드.

위니프레드 : 걱정하지 말아요 로라, 단지 물건을 잃어버렸으면 그걸 떨어뜨린 곳에서 찾아라 하는 소리니까.

로라 : 물론 그래야한다는건 알아요, 하지만 난 다시 실망하고싶진 않다고요.

위니프레드 : 자, 어니스트와 내가 도와줄거예요, 안그래요, 어니스트?

어니스트 : (아직 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아, 무, 물론이지 위니프레드-

위니프레드 : 자 이젠 토니가 없이 어떤 장면을 해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봅시다, 어때요 어니스트? (그리곤 칭찬을 덧붙인다.) 당신 항상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곤 했잖아요.

어니스트 : 아 잠깐 시간을 줘요 좀 생각해볼게 있어.

위니프레드 : 로라는? 좋은 생각없어요?

로라 : 당신이 해요, 위니프레드.

위니프레드 : 좋아요, 그럼 그사람은 아파서 누워있거나, 필름 가지러 부엌에 간걸로 하죠.

어니스트 : 아니면 전화가 와서 받으러

갔거나, 그게 좋지-

로라 : 그래요, 그러곤 중요한 연락이면 더 좋죠. 예를들어 그의 직장 문제에 관한, 그래서 그는 급히 나갔다.

위니프레드 : 바로 그거야! / 이젠 됐어! /
(조명이 어두워진다.)

로라 : 아, 조명이! /

어니스트 : 조명이 뭐가 어때서? (로라는 어두워지는 조명을 바라본다. 위니프레드는 어니스트를 바라보나 말이 없다.) 똑같은데 뭘! / (자신없다. 위니프레드에게) 그렇지 않나?

위니프레드 : 연극은 끝났어요.

로라 : 그리고 우린 아무것도 못했고

위니프레드 : 아니야, 해냈어, 우리에게

주어진걸 잘 해냈다구. (완전히 어두워진다. 그들은 다시 어둠속에 잠긴다.)

어니스트 : 이게 어떻게 된거야? 또 깜깜해 졌어! /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군! /

위니프레드 : 가엾은 어니스트, 결국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거여요.

어니스트 : 아니 그럼 관객들은 어떻게 되는거야?

위니프레드 : 아직도 관객걱정을 하는거예요 어니스트? 저사람들도 우리와 다를바 없다는걸 알았잖아요. 막이 열리지 않고, 조명이 없다뿐이지, 그들도 결국 연극을 하고 있는 거라구요.
(침묵이 흐른다.)

내 아들 유철아!

李根三

얼어붙은 새벽길,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는 외진 곳에서 너는 홀로... 그렇게 어이 없이 가버렸구나.

네가 간지도 한달. 그러나 네가 간 것이 엇그제 같기도 하고 때로는 먼 옛날도 같으니 요새 나는 세월의 흐름조차 가늠할 수가 없단다. 너는 내 꿈속에도 나타나지를 않는구나. 꿈을 꿀 기력도 상실한 내 탓일까. 괴로운 일은 쉬 잊고저 하는 내 성미 탓일까. 또는 네가 나에게서는 이렇다 할 원이나 한이 없다는 말인가. 너의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환상 때문일까. 살아남은 우리는 아직도 초인종 소리만 나면 네가 싱겁게 웃으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구나.

세상에 외아들을 잃은 애비가 나 하나 뿐이겠나만은 그러나 너는 나의 아들인 동시에 나의 들도 없는 말벗이요 친구같은 존재이었기에 나는 이제 아들과 친구 두 사람을 동시에 잃은 것같은 심정이다.

만물이 잠든 한밤중. 내 방에서 우리는 술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 성인 남자들 간에서만 통하는 이야기도 했고 “아버지! 여자란 대학 4학년이 되어도 죄다 하는 짓이며 행동이 애기같아요” 네가 그 나이에 무엇을 안다고 그런 말을 했는지. 결국 날더러 여자문제에 대해선 걱정말라는 이야기였을테지. 이야기 끝에 간혹 내가 “꿈도 좋고 연극도 좋지만 네 전공과목을 그따위로 공부해서 되겠는가” 하고 핀잔을 주

면 너는 씩씩한 표정으로 네 방으로 돌아가 기타를 쳤다. 모처럼 좋은 분위기에 찬 물을 뿌리곤 한 것은 애비였다.

네가 가기전의 거동을 나는 잊을 수가 없구나. 그 이틀전 나는 네가 동네에 깔고 다닌 의상술값을 청산해 주었다. 두달 전에 친구들과 마신 술값이었다지. 불과 8천4백원. 집에서 뺄서표와 돈 천원 정도를 갖고 등교하던 너로서는 큰 액수가 아닐 수 없었다.

우리는 그날 밤 너의 단골집에 놀러앉아 같이 맥주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했다. 네가 맡은 극회(劇會)의 운영이며 다가올 공연 때문에 너는 몹시 고민을 하고 있었다. 듣기에도 애처로울 정도로. 도중하차는 금물이며 사람은 매사에 매듭을 깨끗이 지어야 한다는 나의 말에 너는 “죽을 각오로 하면 길이 뚫리겠죠”하며 일어나 에미한테 준다고 통닭 한 마리를 싸들고 나왔다. 너는 에미를 무척 생각하는 애였다. 이것이 너와 나의 마지막 이별주었으니….

죽기 일 주일 전부터 너는 하는 일이 잘 안되는지 새벽에도 집안을 서성대며 밤을 지새우곤 했다. 그러나 그 고민이 성장을 위한 젊은 세대의 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나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단다. 그때 너한테 좀더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리는구나.

2월3일은 몹시 추웠다. 학교에 불일이 있어 나간다는 나에게 너는 선잠에서 깨어난 눈을 부비며 차로 모신다고 하여 우리는 같이 집을 나섰다. 너는 학교에 나가 본지가 하도 오래되니 장소도 잊을 것같다는 농담도 했다. 왜 갑자기 학교에 가고 싶었을까. 영원히 못 볼 학교를 못내 잊을 수가 없었던 말인가. 너는 학교서 이발을 하겠다고 돈 천원만 보태달라고 했다. 긴 여행에 앞서 몸을 단장하겠다는 심사였을까. 그때가 오전 11시20분. 나는 너의 마지막 모습을 본 셈이 되었다.

새벽 2시에 너는 연습장 부근서 나한테 전화를 걸었다. 이제 연습이 끝났으니 곧 돌아온다고. 네 어미도 그때 조심해 오라고 신신 당부했는데. 그 전화가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너의 마지막 육성이었구나. 그러나 너는 한 시간 후인 새벽 3시에 그렇게 가버렸으니….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새벽 3시. 어쩌면 바로 그 시간에 너는 우리의 곁을 떠났단 말인가. 너의 49재는 3월24일에 열린다. 그 날은 또한 양력으로 너의 생일이 되는 날이다. 이런 것들이 그저 우연이라고만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너의 遺骨을 눈이 덮인 계곡에 뿌리고 돌아온 나는 그날 밤 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그 귀귀한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네 방. 서가에 꽂히거나 방바닥에 널려 있는 그 잡다한 연극관계의 책들… 제3세계의 연극, 민중연극, 브레히트와 투카치의 연극론… 너는 제대로 소화도 못하면서 그런 참여 또는 프롤레타리아 연극에

관한 책들을 모아들였더라. 그 책 사이에서 나는 네가 죽기 직전에 썼다는 희곡 원고를 찾았다. 「끝」이라는 제목의 희곡 말이다. 하필 작품의 제목이 「끝」이나 말이다. 책상에 굴러있는 노트의 낙서도 보았다. ‘죽음이 조용히 내 주위에 스며든다’는 글. 농담인지 감상(感傷)인지 모르겠지만 ... 너는 꽤 낙천적인 성격이었는데 ... ,

너는 내가 묻지 않는 한 너 하는 일에 대해선 좀처럼 말을 않는 성미였다. 네가 에미와 같이 가끔 절을 찾곤 했다는 사실을 나는 네가 죽은 날 처음 알게 되었다. 에미도 그런 말을 나한테 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 너의 위패와 사진이 안치된 삼성암(三聖庵). 너는 그 암자를 에미와 가끔 찾았으며 죽기 며칠 전 에미에게 다음 일요일쯤 절에 가 보자고 했다지. 무엇을 예감했기에.

네 어머니는 너를 삼성암에 맡긴 다음 날부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새벽같이 그 암자를 찾는다. 너도 알겠지만 그 산길이 얼마나 오르기에 힘이 드는데. 에미는 말썽만 부리던 내가 무엇이기에 그런 정성을 쏟는 것일까.

너는 어지간히 말썽을 부린 애였다. 네살 때 의사로부터 6개월 시한부 생명이라는 사형선고도 받았고 우리는 그 6개월을 울면서 너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너는 의사의 선고를 비웃듯 건장하고 명랑하게 여태껏 자라오지 않았냐? 글썽 너는 20년을 덤으로 살았는지도 몰라. 하늘이 네 어머니의 정성을 가련히 여겨 너를 20년 에미 곁에 두었다가 이제 더 기다릴 수가 없어 찾아갔을까.

너는 극성스럽게 장난도 많이 했고 말썽도 일으키며 자라온 애였다. 남의 집 개장에 기어 들어갔다가 황소같은 개한테 물려 병원신세를 졌고 필필 끓는 술에 발을 집어넣어 에미를 울렸고 네 몸의 그 많은 흉터가 산 증거란다. 사발시계, 라디오, 재봉틀은 보기가 무섭게 내장을 끄집어내 폐품으로 만들었고.

대학에 들어가자 너는 갑자기 연극바람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한 집안에 연극하는 사람은 하나로 죽하니 너는 경제학을 공부해서 재벌이 되라는 집안 어른들의 충고에는 아랑곳없이 너는 선무당처럼 연극에 미치기 시작했다. 하기가 너는 어렸을 때부터 만나는 사람은 연극인이요 구경하는 것은 연극 뿐이었으니 너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연극을 한다 친구를 만난다며 너는 외박도 자주해 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수없이 잠을 설치곤 했을 거야. 알고 보면 술에 취해 선배 또는 친구 집에서 쓰러져 자던 것이 고작이었는데. 언젠가는 한밤중 술에 취해 돌아오다 무엇에 자극을 받았는지 벽돌장을 던져 남의 차의 유리를 박살냈지. 파출소에 붙들려가 돈은 돈대로 내고 너를 빼내노라 네 두 매형이 무척 고생도 했지. 불심검문에 걸려 대들다가 경찰서에서 하룻밤 신세도 졌고. 에미가 아직도 나한테 비밀로 덮어두어서 그렇지 내가 모를 크고 작은 사고를 너는 수없이 되풀이 했을거야.

작년에 너는 우리에게 가출선언 (家出宣言)을 했다. 집에 있으면 너무나 편안해 대만해지고 친구들이 찾아와 시간을 뺏기니 독립을 하고 싶다고 너는 에미에게 독립에 필요하니 30만원만 꾸어달라고 했다. 그 돈은 6개월 후에 꼭 갚는다고 때가 어느 때인데 비밀과외도 하고 연극공연을 도우면 학비는 물론 먹고 살 돈은 나온다는 것이 어린 너의 생각이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너는 한 학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창백한 얼굴에 비쭉 말라가지고 패잔병처럼 초라하게 에미 품으로 돌아왔다. 30만원은 오간데 없어졌고 양지에서 더 바랄 것 없이 자란 네가 무슨 자신이 있기에 집을 나갔을까 결과는 뻔히 예상됐지만 젊었을 때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기에 너는 모른 척하고 너를 내버려 두었었는데, 독립기간(?)중 네가 무엇을 느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가출중 너는 희곡 한편을 써서 몇 달 후 3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끈돈 물어내라고 하자 너는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했다. 극단 일에 너는 돈이 필요한 때였다. 물론 우리도 그 끈돈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너는 그 돈으로 우리를 위해 선물을 샀고 자축한다며 엉뚱하게 부모를 이태원 환락가로 안내했다. 우리는 별의별 이방지대를 구경했고 맥주와 피자 대접을 받고 새벽 4시에 집에 돌아왔다. 너는 마치 수학여행중인 학생들을 인솔하는 교사모양 능숙하게 우리를 끌고 다니며 “요새 젊은애들 큰 일이죠?” 하는 건방진 말을 하기도 했다.

너는 이 애비의 나쁜 버릇만 고루 받아들인 자식이었다. 밖에서 술을 마시면 좋은 친구 농칠세라 한밤중에 집안에 끌어들여 밤새 수군댔고, 일은 밤새워 해야만 직성이 풀렸다. 아침 밥은 거의 먹는 법이 없었고, 좋은 옷 사다주면 벽장에 쓸어넣고 거지꼴로 다녀 누나들한테 욕 언어 먹기가 일쑤였다. 내키지 않는 일인데 쓸모 없는 동정에 말려 손을 댔다가 손해만 보고, 발동만 걸리면 너는 밤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포장마차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에미는 너의 이 모든 결점은 애비의 탓이라고 했었다. 나에겐 너에게 물려줄만한 장점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너에게도 살만한 장점은 있었던 모양이다. 그 나이에 네 주위에는 너를 좋아하는 선배와 친구들이 무척 많았던 것 같구나. 병원에 구름처럼 찾아온 너의 스승, 선배 그리고 친구들. 진실로 너의 죽음을 애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들이 고맙기도 했지만, 또한 나는 너의 새로운 면을 처음 찾아 볼 수가 있었다. 네가 지금 쉬고 있는 삼성암 주지스님도 말씀하셨다더라. 네 친구들이 지금도 그치지 않고 암자를 찾아오는 것을 보니 생전 친구들이 많았던 모양이라고, 이런 좋은 스승 선배 그리고 친구들을 두고 너는 무엇이 바쁘기에 것처럼 성급하게 이 세상을 하직했을까. 이 세상은 그렇게도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말인가.

하기야 이 세상은 좋아지지가 않는구나. 그래도 내일은, 하고 장래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실망만 주는 것이 요즘 현실이란다. 그러나 너는 이러한 어두운 현실속에서도 네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했고, 갖고 싶은 것도 그런대로 다 가졌고 가고 싶은 곳은 아무런 어려움없이 갔으니 무슨 불만이 있을리 없었을텐데 ... 뿐인가 너에게는 꿈도 있었지 않나. 그것이 좋은 연극인이 돼서 좋은 연극을 하겠다는 조그마하고 소박한 꿈에 불과했지만 말이다.

연극은 장난이나 재롱이 아니라 학문의 대상으로서도 생각해야 한다는 나와 주위 선배들의 말을 받아들였는지 너는 2년전 부터 내 서가에서 연극서적을 뽑아가 열심히 읽기를 시작했다. 내가 없다면 이 연극서적은 어떻게 될까하고 걱정하던 나에게 너는 무한한 기쁨을 주기 시작했는데 연기와 연출을 일생의 업으로 하겠다던 너에게 극작(劇作)과 어학(語學) 공부겸 번역도 해보라는 나의 권유에 너는 최근에는 그런 일에도 성의를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버어톨트·브레히트가 갑자기 좋아졌다며 그의 희곡을 읽기 시작했었는데 50년대에 외국서 브레히트에 심취했던 내 생각이나서 어쩌면 애가 30년 뒤에 애비의 취향을 닮아갈까 하는 생각도 했지. 너의 최근의 이러한 태도를 보고 나도 너를 통해 나의 꿈을 키워볼까 하는 한 가닥 꿈도 가졌었는데 이제 너의 꿈은 물론 나의 꿈도 영원히 사라졌구나.

이제 생각하니 나는 너를 제대로 모르고 지낸 것 같구나. 하는 일이 가끔 장난 밖에 모르는 어린애 같기도 했다. 대학 4년생이 가끔 에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어 누어 우스개 소리도 했고, 내가 “남의 색시 무릎에 누운 사내는 어떤 놈이냐?” 하면 너는 썩 웃으며 일어나곤 했다. 그런가 하면 하는 말이 너무나 어른스러워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했고, 집안 일이 없으면 너는 마치 인생을 두번 겪은 사람처럼 능숙하게 처리도 하곤 했다.

이제 너는 갔고

허구헌 날 밤 마음을 조이며 세상도 시끄러운데 혹시나 해서 너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졌다. D학점으로 얼룩진 너의 성적표를 보고 상심할 일도 없을 터이고 너의 외국 유학을 애써 주선할 필요도 없어졌다. 아침잠 많은 너에게 신경질을 부릴 일도, 한밤중에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너에게 시끄럽다고 야단칠 필요도 없어졌구나.

이제 남은 것은 너로 부터의 해방, 그리고 무한한 정막뿐. 너도 쉬겠지만 나와 네

에미도 이젠 좀 쉬고 싶구나.

그래도 ……

평평 쌓이는 눈은 누가 치울까?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나를 누가 부축해 집에 데려오지?

김장철에 독 문을 땅은 누가 파지?

밤새워 하던 남자 사이의 대화는 누구하고 할까?

식탁에서 맞은 편 빈자리는 누가 채워줄까?

잘했다는 칭찬보다 못했다는 잔소리만 듣다가 간 너.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다면 좀더 칭찬을 해주었을 것을 …… 강의실 또는 극장에서 네 나이 또래의 애들을 보기가 싫구나.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 수많은 얼굴속에서 네 모습을 찾는 착각을 되풀이 하지만. 요새 나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한다. 차마 네가 아끼고 즐겨타던 그 차종(車種)을 볼 수가 없어서 말이다.

편안히 쉬어라. 너는 좋은 곳에 가 있을거야. 말썽은 많았지만 우리는 안다. 네가 악(惡)할 수는 없는 애였다는 것을.

너의 두살짜리 조카 … 네가 그렇게 귀여워하던 효진(孝眞)이가 들어와 같이 놀잔다. 나는 이 애의 즐거운 듯 또 연극을 할 수밖에 없구나. 편안히 쉬어라. 그리고 가끔 꿈속에서나마 싱겁게 웃어다오. 너를 위해 친구들이 조그만 책자를 낸단다. 좋은 친구들이야. 어떻게 보면 너는 마지막까지 네가 좋아했던 일을 신나게 하다 갔으니 가장 행복한 애였는지는 몰라.

좋은 곳에서 … 영원히 고통이 없는 곳에서 잘 쉬어라. 이제 내가 너한테 부탁할 말은 이것밖에 없구나.

1987년 3월 5일

아버지가

■ 後記 [김재형]

내가 책 만드는 일에 손을 댄 지도 20년 가까이 된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별의별 책을 다 만들어 보았지만 이런 종류의 책은 처음 만들어 본다. 더군다나 천명을 다 하고 떠난 어른의 얘기가 아닌 새파란 청년의 얘기이다 보니 월각 설움이 치솟는다.

내가 이근삼교수를 처음 뵈는 것은 1969년이다. 그때 나는 고향(광주)에서 극단위원을 만들어 첫 공연에 출연하고 있었다. 당시 이교수는 이미 명성을 떨치던 극작가로서 전국의 연극인들에게는 흠모의 대상이었다. 또한 우리 극단의 고문격으로 모셨던 대학은사 김승규교수와 친교가 깊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창립공연에 귀빈으로 초청했던 것이다. 아마 이교수께서는 부담없는 여행인데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는 가벼운 흥분감 탓이었는지 무척 유쾌한 기분으로 계속해서 칭찬만 해주셨다. 다음 날 그 지방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이교수의 공연평도 어젯밤 구두로 해주신 칭찬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후 나는 서울 연극계에 발붙일 곳이 없어 상경하게 되었고 잡지사 기자생활을 하면서 밤이면 명동 국립극장 주변을 맴돌았다. 극단가고 식구들을 따라 서너 차례 이근삼교수 댁을 방문할 기회도 있었는데, 유철이는 그때 아마 국민학교 1학년 쯤이 아니었던가 싶다.

1975년에 나는 극협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76년 1월에는 월간「한국연극」을 창간하면서 편집장직도 겸하게 되었다. 그때 이근삼교수는 편집위원으로서 자주 회합에 참여하셨고 나와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가까운 분이 되었다.

작년에 다시 내가「한국연극」주간을 맡게 되었을 때 이교수는 사무실 근처의 맥주대포집으로 나를 불러내 환영해 주셨다. 그리고 왜 글을 쓰지 않는냐는 꾸지람도 해주셨다. 내가 지금까지 들은 꾸지람 중에서 유일하게 기분좋은 꾸지람이었다. 그 후 몇번쫌이나 될까, 회의가 있는 뒤에 나는 이교수를 댁까지 바라다 드리는 몇번의 기회를 갖게 됐다. 그날은 어김없이 서재에 따라 들어가 다시 한잔을 마셔야 했다. 이교수께서는 유철이 얘기를 많이 하셨다.

『재형이, 얘가 연극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뭐, 희곡도 쓰고 연출도 하고 극단도 만들고 요란하드만! 유정이도 연극한다지, 우리 집은 연극인 가족 다 돼버렸어. 내가 죽고 없더라도 유철이녀석 연극 잘못하면 재형이가 가만 두지 않겠지?』

이교수는 유철이로부터 자랑스레 느끼시는 것같았다. 그리고 보호자로서의 불안감 같은 것도 비쳐졌다.

작년 말 나는 예의 이교수댁 순례길에 유철이를 끌고 새벽 1시경 장위동 술집들을 뒤졌다. 술집을 찾지못해 내가 포기하려 하자 유철이가 힐끗 눈치를 보더니 어떤 집으로 안내했다. 붉으죽죽한 불빛이 홀 안에 가득하고 섹시한 유행가 카세트가 귀를 간지럽힌다.

『너 여기 자주오니?』

『아뇨, 오늘 첨예요. 지나가다 간판만 봤어요.』

술 따르는 아가씨와 유철의 시선이 자꾸 부딪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걸로 봐서 처음은 아닌 것같은데, 글썽 명색이 연극한다는 녀석이 그 정도도 꾸며대지 못할까. 그 새벽의 대화는 유철이와 나를 퍽 친근하게 묶어 주었다. 유철이는 부친의 작품을 비평하는 위치로 성장해 있었는가 하면, 극단대표로서 단체생활을 헤쳐나가야 하는 현실주의자로서의 일면도 보여 주었다. 동이 터오는 새벽, 유난히 깃들듯 구는 술집 아가씨에게 다음에 유철이와 또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는 택시를 집어탔다.

그후 유철이와 나는 몇번 통화할 기회가 있었지만 만나지는 못했다. 상의할 일이 있어서 찾아오겠다고 하던 유철이 … 그가 내게 할 말은 무엇이였을까.

유철의 영안실에서 나는 명칭할대로 명칭해 있었다. 유철의 가족들 … 유철의 친구들 … 그들의 입에서 유철의 소박한 기록을 남겨두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다. 나는 책을 만드는 기술자로서의 역할만 할 뿐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이유헌균의 죽음을 안타까와 하는 친구들이 엮은 소박한 기록장이다. 물론 이 책은 그를 아는 가까운 친구들과 영결식장에 와주었던 분들에게만 배본될 것이다.

「작은신화」를 함께 창단한 유철의 친구 박정영, 최용훈 그리고 유철이 죽은 뒤에 눈망울이 가장 많이 젖어있었던 지희-이 세 사람의 노력으로 이 책이 빛을 보게 되었다. 나는 다만 이교수와 유철에게 애정을 느끼고 있던 한 사람으로서 극히 형식적인 일을 맡아 했을 뿐이다.

작은신화 / 1987년 3월24일 발행 / 비매품

연락처 • 극회 「작은신화」

[150-02] 서울특별시 강서구 신월1동 218-22. 전화 692 - 1186